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방경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2월 1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11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승려대회 남발

'승단은 화합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화합하지 못하는 집단은 머지 않아 붕괴하므로 불화가 생기면 즉시 화해해야 한다.'〈팔리. 율장대품〉

지난해 11월 폭력사태를 부른 두 차례의 전국승려대회 이후 스님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상당히 싸늘해졌다. 자비와 보살행, 비폭력의 종교인 승가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은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문제는 스님들이 국민과 종도들이 받을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스님들은 승려대회만 열면 초법적 행위도 감행할 수 있고 나름의 명분도 챙겨, 이른바 '승려대회 만능병'을 낳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승려대회는 종헌 및 종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처님 재세시부터 승단내 대소사의 사안에 관하여 전체 대중스님들이 모여 각기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만장일치로 합일된 의견을 창출해내는 '산중공사' 또는 '대중공사'로 불리우는 불교고유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유래했다.

승려대회 만능병 후유증 심각

승려대회는 45년 9월 조계종 창종 후 첫 승려대회 이후 10여차례 이상 열렸다. 청정 승가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자체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나 종도들의 여망을 반영해 잘못된 종무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사례도 있었지만 종권 쟁탈을 위해 일부 세력이 자의적으로 개최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결의가 관철되지 않거나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무분별한 승려대회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왔다. 많은 불자가 상처받고 다수의 잠재신자들이 발길을 돌려 한국불교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것이다. 외부세력이 불교를 침해하는 경우라든지 교단의 존립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권의 수호를 위한 혹은 교단의 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승려대회는 극적 처방으로만 선택될 수 있다. 무분별한 승려대회의 제한과 종헌·종법 개정 등 분규종식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금강산 개발앞서 문화재 보호"

조계종, 통일부 · 현대 등에 공문…3월중 공청회도

조계종은 5일 통일부와 문화관광부, 현대 측에 '금강산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 제하 공문을 발송했다.

조계종은 공문에서 "현대 측과 정부가 금강산 개발의 계획을 발표한 내용이 자연환경과 불교문화유적 보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은 것"이라 못박고 "개발계획에 앞서 불교문화재 보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의 금강산 종합개발계획은 금강산 일대 2백27만여평에 2003년까지 약 1조5천6백65억원을 투자해 호텔, 콘도, 모텔, 온천장 등의 숙박시설과 골프장 스키장을 포함한 레저 스포츠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조계종은 "금강산 일대는 불교문화재와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는 우리문화의 보고이며 현재 표훈사를 비롯한 전통사찰 8곳과 국보급 유물 2점을 비롯한 많은 불교문화재가 있으며 6·25 동란 등의 혼란기에 손실된 많은 문화재가 아직까지 복구돼지 않고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산스님 재활원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설날을 앞두고 10일 국립재활원을 방문 환자들을 위로했다. 고산스님은 환자들을 만나 "자신의 지금 모습을 불행이라 생각하면 끝없이 불행해 지고 희망을 가지면 행복해 진다"며 "부처님의 가피로 쾌유될 것을 굳게 믿으라"고 당부하며 재활훈련 기능장비를 기증했다. 스님은 이어 노인 요양시설인 성남 자광원을 방문 노인들을 위로하고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불교계 금강산 관광 추진

불교계는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한 시점과 가을 두 차례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8백여명 규모로 이뤄지며 현대측과 협의해 승객의 숙식료 중 일부를 북한동포돕기 사업 기금으로 쓸 계획이다. 종단협의회는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한 관광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에는 조계종 단독으로 관광단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 조계종과 종단협은 선상 대법회, 세미나, 신계사 터에서의 남북불교도 공동 법회 등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중앙승가대 새 총장에 현성스님 선임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고산)은 8일 이사회를 열고, 현성스님(현성정사 주지)을 새 총장으로 선임했다. 〈인터뷰 3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99년도 법인예산 67억3천여 만원과 학교예산 18억2천여 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수행 본분지켜 화합-안정 이루자"

조계종 10일 울 종무계획 발표

조계사 일대가 재정비되고 종무관련 여론 수렴 기구인 종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0일 오전 10시 '99년도 중앙종무기관 종무계획'을 발표했다. "출가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고산스님은 "부처님 정법에 입각하여 화합과 안정의 기조 속에서 종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계종의 주요 종무계획은 크게 7가지로 나눠진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총무원은 종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찰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재가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행중심의 승가상 확립을 위해서는 승가교육체계의 재정비를 △포교전법사업의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중앙신도회의 정상화를 약속했다.

또 △대사회 활동의 다각화와 전문화 △종도중심의 서비스 행정 실현 △종무행정 전산화 및 불교정보화 사업 추진도 강조했다. 특히 △한국불교 총본산(불교종합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 고산스님은 조만간 조계사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정화회의 조속한 시일내 해산하라"

조계종 3원장 성명발표…본사주지회의도 한목소리

조계종 총무원은 정화개혁회의가 조속한 시일안에 각종 소송을 취하하고 정화개혁회의를 해산하지 않을 경우 통도사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일면,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교구본사 주지회의도 11일 회의를 갖고 "종단분규의 중심사찰인 통도사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과 월하스님과 정화회의측의 고소고발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본사주지회의는 부의장에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을 선출하고 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 한국불교태고종 제16세 종정 덕암 대종사 추대법회가 9일 신촌 봉원사에서 1천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종도 화합 국난극복하자"

9일 태고종 덕암종정 추대법회

태고종 제16세 종정 덕암스님 추대식이 9일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됐다.

역대종정과 선조사에게 종정 추대를 고하는 다례의식에 이어 봉행된 추대법회는 어산종장 스님들의 종사이운 의식과 개식선언, 명종, 의식발원문, 종정약력보고, 추대법요식 등으로 봉행됐다. 덕암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금란가사와 비로관, 주장자, 불자 등의 전수품을 봉정받았다. 또 인공스님이 추대사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3당 대표 등이 축사를 했다.

이날 추대식에는 운제 승정, 인곡 총무원장을 비롯한 태고종 주요 간부스님과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박상규 국민회의 연동회장, 박철언 자민련 불자회장,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김광삼 현대불교신문 사장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합석했다.

취임 법어 천진자성이 사람마다 다 구족하니(天眞自性皆具足) 신심이 청정하면 곧 공문에 들게된다(信心淸淨卽入門) 사부대중이 보살행을 받들어 행하면(四衆奉行菩薩行) 다함께 백우에 멍에하여 바른 불도에 함께 노닐게 될 것이니라(共騎白牛遊直道). 할!(喝) 종도는 화합하여 우리 불교를 재건하고(和合再建我佛道) 국난극복에도 우리가 앞장서자(國難克服是我等)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설 연휴로 24일자 신문 쉽니다 – 212호 3월 3일자 발행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27일 오후7시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일시: 2월 27일 오후 7시(1회 공연)
△장소: 서울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출연: 청룡사 불광사 길상사 묘각사 조계사 청년회 인천보명사 중앙불교, 진각 합창단, 수원포교당 합창단, 중앙대 남성합창단 중앙국악관현악단 유승엽씨('선음악 혜초' 오카리나 연주)
△공연·예매 문의: 진각종 문사부 (02)913-0753 현대불교 편집국 (02)722-4162
주최: 대한불교 진각종 ·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btn · BBS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월의 문화인물 혜초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



■ 혜초스님(704~787): 신라시대의 고승.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에서 밀교경전을 연구한 승려. 인도 여행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 당시 인도등 중앙아시아의 불교 언어 · 정치 · 풍속 · 생활상등을 알림.

문화관광부 선정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 기념 음악회
'음악으로 찾아가는 혜초스님의 발길'

2월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혜초스님의 달' 입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구법승으로 중국밀교의 정통 맥을 이은 혜초스님은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면서도 그동안 스님의 구법행적과 사상이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2월 혜초스님의 달을 맞아 대한불교 진각종과 현대불교신문사는 오천축국을 여행하면서 부처님의 자취와 그곳의 역사 풍물 등을 기록으로 남긴 위대한 한국인 혜초스님의 발길을 창작 국악교성곡으로 찾아나섭니다. 시인 장지현 정사의 가사에 젊은 작곡가 김희경씨가 작곡한 국악교성곡 '혜초'는 불교계 연합 합창단 250명과 남성합창단 30명, 중앙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하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 혜초스님을 기리는 이 음악회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혜초스님 구법의 생애 그린 감동의 무대
27일 오후 7시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일시 : 2월 27일 오후 7시 (1회 공연)
장소 : 서울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작곡·지휘 : 김 희 경
출연 : 청룡사 불광사 길상사 묘각사 조계사 청년회 인천보명사 중앙불교, 진각 합창단, 수원 포교당 합창단, 서울대 남성합창단, 유승엽씨('선음악 혜초' 오카리나 연주)
협연 : 중앙국악관현악단
공연·예매 문의 : 진각종 문사부 (02)913-0753
현대불교 편집국 (02)722-4162

공동주최 : 대한불교 진각종 ·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BBS · btn

사 설

조계사 발전의 청사진

조계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중심사찰이다. 이는 경내에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해 있다는 행정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계사가 그동안 우리 나라 불교의 신문화를 견인하는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실로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포교와 신문화의 1번지였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그동안 조계사는 그 상징성에 비해 운영이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느낌이다. '주인 없는 절'이라는 인식 때문에 절 자체를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분위기가 부족했다. 특히 종단불화가 재연될 때마다 조계사는 가장 참담한 싸움터가 됨으로써 이미지마저 크게 손상됐다.

최근에 열린 '조계사 발전방향 공청회'는 이같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계사의 면모를 일신시킬 것인가를 논의한 자리여서 관심을 끈다. 특히 사부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체제 도입으로 조계사를 진정한 불자공동체의 중심사찰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성공여부를 떠나 매우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 원래 이 제도는 개혁종단이 사찰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까지 마련했지만 실행이 안되던 사안이었다. 오래된 관행과 부분적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런 터에 앞으로 조계사가 이 제도를 선구적으로 시행한다면 다른 사찰들의 운영방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현안으로 거론돼야 할 부분이 조계사 도량정비에 관한 문제다. 현재 조계사는 도량이 정비되지 않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서의 체면을 크게 손상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사찰이라고 해서 외국인이나 비불자가 찾아왔다가 실망만 안고 돌아간다. 다행한 것은 10여년 동안 매입한 부지가 2천여평이 넘었으므로 이제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도량정비를 할 때가 됐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졸속하게 추진돼서는 안되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조계사의 상징성에 걸맞는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도심사찰'이란 개념이다. 마침 조계종도 새 해에는 불교종합회관 착수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반드시 후회없는 대작불사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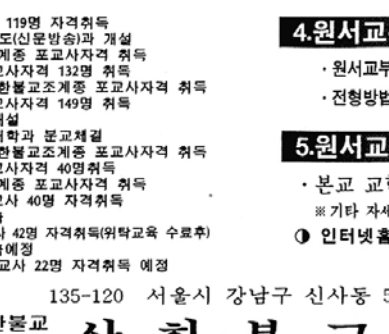
또 한가지는 포교활동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포교행태나 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어쩌면 이 점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도 하다. 조계사가 포교일번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편이라는 이름의 비불교적 작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입시백일기도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조계사가 할 일인지, 입춘부적을 파는 것이 정당한 포교방편인지는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 포교란 곧 '정법선양'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물놀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 못지 않게 어떻게 해야 문화적 세련도를 높이고 사찰의 경건성을 확보할 것인가도 신중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조계사는 범연한 사찰이 아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중심사찰이며 그 자체가 한국불교의 상징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조계사가 제대로 서야 한국불교가 제대로 선다는 뜻과도 통한다. 그러므로 조계사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년 또는 100년 뒤의 조계사를 상상하며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결코 몇 년 뒤에 헐어야 할 집을 가건물 짓듯 해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사람들의 진지한 연구와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일만이천번 잘 살펴보고…

동국대 경주문화 테크노파크 추진

경주소재 대학-시-중소기업청 연계
유·무형문화재 망라 문화인프라 구축

천년고도 경주에 국내 최초의 문화테크노파크 설립이 추진중이다.

동국대(총장 송석구) 경주캠퍼스는 산·학·관 협동체제의 문화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경주대, 위덕대, 서라벌대 등 경주지역 대학과 경주시, 중소기업청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4일 발표했다.

동국대는 건립에 앞서 올해 시예산 2억5천만원을 포함, 모두 4억5천만원을 들여 연건평 5백평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경주캠퍼스안에 건립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청에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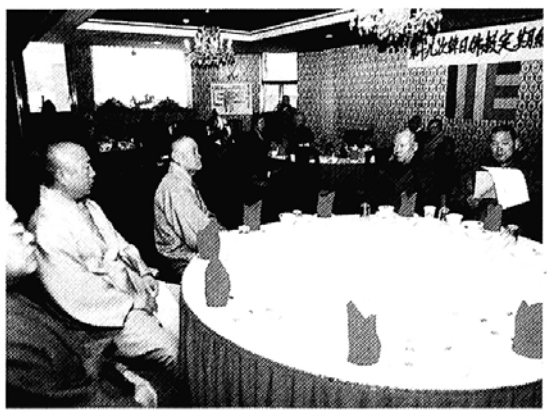
문화테크파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2년마다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 고부가 가치의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꾀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복안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전문성과 종합성을 띤 테크노파크안에서 경주가 가진 천혜의 문화유산과 대학의 우수한 두뇌를 접목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화테크노파그에는 각종 관광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설비를 비롯 민속공예촌, 박물관, 연구소 등이 들어서며 영산재, 충담재 등을 시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마련된다. 유·무형의 문화재를 망라한 종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단지조성과 관련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단지나 민속공예촌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황윤식소장은 "현재 산업자원부는 재단법인 형태로 6개의 테크노파크를 추진중이나 문화산업을 이끌 테크노파크는 없다"며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전망이 밝은 만큼 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8일 열린 한일불교교류협 제19차 정기총회.

한일불교교류대회 5월 직지사서

교류협 8일 정총 결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흥파)는 8일 오전 11시 하림각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열고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제2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갖기로 했다. 교류협은 이번 대회를 세미나 형식에서 한국불교문화의 체험과 역사기행 등으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0월에는 영산대재와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일본에서 개최하고 한일불교문화교류20주년 기념 화보집도 발간키로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은 53명의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이날 총회에서 98년 결산내역을 승인하고 올 사업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교류협은 또 명예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추대했으며 지하스님(전중앙승가대총장)과 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감사에는 성견스님과 김성기 이사를 유임시켰다.

임연태 기자

고산 총무원장 상대 제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서울 민사지법 기각판결

정화개혁회의측 월탄 정우 성문스님이 1월20일 고산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는 4일 "피신청인(고산)은 98년 12월29일 제29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후 30일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아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정화개혁회의가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1월25일 정영스님 신청),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1월26일 정영스님 신청), '중앙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1월13일 월하·정영스님 신청),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항소'(98년 12월14일 월탄·정우·성문스님 신청) 등 4건이 남았다. 임연태 기자

'종단운영 순응' 전면부정
월하스님 8일 해명서 발표

월하스님은 '종단운영 방침에 순응하겠다'는 내용의 지난 1월 26일자 친필 성명서를 전면 부정하는 해명서를 8일 발표했다.

월하스님은 "종단이 통합되어 일원화된 종단에 순종한다는 말이지 한쪽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밝혔다.

정성운 기자

남-북 종교지도자 日 도쿄서 만난다

3월13일부터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종교인 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만난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조선종교인협의회(KCR 회장 장재언)가 공동 주최하는 '종교인 도쿄 평화모임'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 한국측에서는 불교를 비롯한 6개 종교 대표 14명과 참관인 등 30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또 북한측에서는 불교 천주교 천도교 기독교를 대표한 종교인 4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돕기 및 아시아 평화를 위한 자선공연, 공동성명서 발표 등으로 진행될 이 대회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학술세미나도 열린다. 세미나에는 한국측 강원룡목사가 기조 강연을 하고 한국 일본 북한의 학자가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고산스님은 9일 회장직을 수락했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
3월24일 직지사서

(ytlim@buddhapia.com)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9일 오후1시 파계사에서 회의를 갖고 3월 24일부터 직지사에서 행자교육원을 개설키로 했다.

계단위는 이에 따라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을 사미계 수계사로 정하고 나머지 증사는 계단위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임연태 기자

"군법당 건립예산 무원칙"

군승단, 조계종에 재검토 요청…포교원 실사키로

군법당 건립 지원 예산이 원칙없이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9일 포교원 업무보고에서 "법당 건립을 위한 종단의 예산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병교육대 등 교육기관 중심으로 배정해줄 것"을 포교원에 건의했다.

포교원은 당초 올해 법당 건립 지원비 2억4천만원을 육군특수전학교 1억원, 3사단신병교육대 7천만원, 7포병여단 7천만원으로 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종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획에 없던 해병2사단 교육관 재건축 지원비로 3사단과 7포병여단 예산에서 2천만원씩 삭감해 4천만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병2사단 한관희법사는 "한스님이 이곳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효율성있는 군포교를 위해 법당 건립 지원비를 장·사병 배출기관에 우선 배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병2사단 실사를 통해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집행의 조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교원의 군승단 지원비 4천4백만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천만원이 논산훈련소 수계지원비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 여론이 일고 있다.

군승단은 "사무실 운영과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조정을 포교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포교원은 군승단 운영회의에서 재조정을 결의하면 포교원이 승낙하는 방법으로 예산집행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교편향위 '훼불백서' 발간키로
공동위원장에 현진-원혜스님 추대

종교편향대책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선임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대책위 실무자들은 10일 조계종 포교부장 현진스님을 방문,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현진스님은 송강스님의 사퇴로 공석이 된 공동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대책위는 또 원혜스님(봉은사 주지)을 공동위원장에 재추대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주요사업으로 조계종사태로 중단됐던 '종교편향 및 훼불 백서'를 발족 1주년에 맞춰 4월경 발간키로 하는 한편 종교편향 및 훼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률 대응 매뉴얼'을 하반기중에 배포키로 했다.

지난 해 4월 발족한 종교편향 대책위에는 실천불교승가회 선우도량 등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훼불사건과 공공기관 종교편향 사례 접수전화(02-7340-108)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4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60명 ■통신4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중국어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40명 ■통신20명		

2.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2월 25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방송대학 입학 가능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2월 25일까지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국립한의과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 석사, 박사 과정 약간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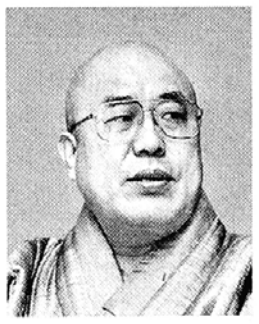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의 예 과	5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양생강복학과	5년	◇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약 학 과	4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제약학과	4년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약리학과	5년	◇ 건강진단서 1통
침구학과	5년	◇ 보증서 1통
추나학과	3년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간호학과	2년	◇ 여권용사진 3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의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등 완비
◆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

"김포학사 건립불사에 최선"

인터뷰 중앙승가대 새 총장 현성스님



8일 중앙승가대 새 총장에 선임된 현성스님은 "종단이 어려운 때에 소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수행자의 본분으로 돌아가기 위한 교육과 수행의 도량으로서 중앙승가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것만이 승가의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불교를 살리는 길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최근 공사중단으로 상반기 내 완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승가대 김포학사 건립문제와 관련 "이사회에서 지적된 바 대로 완공까지의 건립기금 조달과 완공 이후의 운영비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총무원장이자 이사장인 고산스님과 함께 종단 최대의 불사인 김포학사 건립 문제해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종단사태에 승가대의 일부 학인들이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학업에 매진해야할 학인들이 종단문제 연루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강화된 교육과 수행 프로그램을 도입해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매년 거듭되고 있는 정원미달사태 문제도 덕망있는 교수들을 초빙하고, 여러 동문 선배스님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우수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학풍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스님은 64년 선학원에서 청담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66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73년 국민대학교를 졸업하고, 75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85년 스리랑카 국립 프리베나대학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80년~92년까지는 도선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혜명불교양로원장이자 서울 홍은동 현성정사 주지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교육-수행-전법 체계 구축

조계종 올 종무계획 어떤내용 담겼나



◇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0일 종단종무계획을 발표했다.

종책자문위 구성…초발심 회복운동도
불교종합회관 건립등 추진일정 밝혀

10일 발표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계획은 지난해 종단분규의 상처를 치유하고 종단을 화합시키는데 상당한 힘을 싣고 있다. 종단의 안정 속에서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 기조다.

무엇보다 새 집행부 출범 한 달 후에 발표된 종무계획은 종단 분규에서 돌출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극복의지와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종단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어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계획서와 함께 금년 한 해동안 전개할 각종 사업들의 추진 일정을 발표한 것도 달라진 조계종의 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발표된 일정표는 자칫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2월말까지로 책정된 종무일정들 가운데는 아직 추진되지 않는 사안들도 있어 이 같은 우려를 사고 있다.

10일 발표된 사업들은 종무의 큰 틀을 바꿨다기 보다는 그간 진행해 온 사업들을 유지해 새로운 것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개혁 1기 집행부가 보여 주기 식 전시 행정을 많이 했다는 종단 안팎의 자성 분위기를 감안, 내실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IMF 시대를 감안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발표된 사업들 가운데는 지난달 28일 폐회된 제138회 임시종회가 승인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달과 운영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의 금년 사업 계획은 크게 7가지 범위에서 구상됐다. 이들 사업은 거듭나는 조계종의 불자와 국민을 향한 약속이란 점에서 반드시 실현시켜 불교의 새 얼굴을 가구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이 여론이다.

■ 종단 안정과 화합

조계종은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종단 운영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를위해 본사주지회의를 정례화하고 교구종회의 활성화를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단의 중진스님들을 주체로 하는 종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열린 종무행정 실현을 위한 종단적 의지의 결집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다.

■ 수행중심의 승가상 확립

종단분규의 상처를 빠른 시일 안에 치유하고 승단의 교육개혁과 의식개혁을 통한 수행중심의 승가상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조계종은 범종단 초발심 회복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3월 25일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4월1일) 동안의 기간을 참회와 자정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10월까지는 전국을 순회하며 법회를 봉행 한다는 방침이다. 10월에는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승가종합복지대책을 세우고 교육 수행 생활 전법의 전일 체계를 구축하며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기관을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 포교전법사업의 내실화

종단의 포교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조계종은 신도조직과 신행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신도회를 정상화하고 사찰신도회 및 신도연합단체 활성화 유도, 신도교육체계 정립 및 신행체계화를 먼저 꼽았다. 산하 신도조직의 정비와 활성화 연합체 운영 등을 통한 포교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의지다. 또 포교인력을 양성하고 전법도량 지정, 전국순회법회등 그간 전개돼 온 사업들도 지속시킨다는 방침이다. 포교와 문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해 기존의 불자 관리와 새 불자 만들기의 효과를 함께 거둔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 대사회 활동의 다각화 전문화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불교상을 세워 사회에 대한 종교적 순기능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기조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불교시민사회운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새로운 복지 형태 구축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북불교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북한불교 현황을 파악할 계획.

■ 종도 중심의 서비스 행정의 실현

관리행정에서 서비스 행정으로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은 고산스님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대목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산하조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단문장을 개발하고 직영 직할 사찰의 관리를 강화해 보다 투명한 운영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종단 관련 법인대책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혀 선학원 등 법인관련 현안도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종무행정 전산화 및 불교종합정보망

이미 3년전부터 추진해 온 행정 전산화와 종합정보망 구축에 업무력을 집중시켜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다는 계획이다. 종무기관의 종무행정 전산화와 사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금년 상반기 중에 기본적 성과를 드러낼 계획이다. (본지 210호 1면참조)

■ 불교종합회관 건립불사

한국불교의 얼굴로 인식되어 있는 조계사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된 불교종합회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종합회관 건축 공모도 할 방침이다. 조계사를 도심포교의 모범지역과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가꾼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지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목어 시간

'시간'이라는 책이 최근 번역 출간됐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시간의 생태학'을 연구하고 있는 칼하인츠 A 가이슬러(55)교수가 쓴 책이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시간관리를 잘하자" 현대인들은 시간의 덫에 걸린듯 숨가쁘게 살고있다. 설 연휴에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기를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속의 말들을 간추려 본다.

사람들은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바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나는 머무른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로 바꾸자.

현대생활의 분주함은 인류가 스스로에게 명령한 시간체험이다. 우리는 시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전쟁은 빠르고 파괴적이다. 평화는 느리다. 인간의 문화가 노동과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것임을 잊지말자. 사랑은 느림안에서 느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속도는 사랑을 희미하게 한다.

느림이 우정을 발명했다. 빠름에는 친구가 필요치 않다. 교통수단이 필요할 뿐이다. 가속은 시간의 사회적 공허함이다.

긴휴식과 긴호흡이 있어야만 숨이 가빠지지 않는다. 노동이란 휴식, 시작과 끝이 있음으로 아름다워 진다.

서두르지 마라. 가속에 치이지 말라.

일상적인 압박, 끝없는 분주함, 몹시 지치게하는 시간부족, 이런것들이 충족과 완성을 방해한다.

현대화된 사회는 시간관리자의 사회다. 시간관리는 바로 자기통제를 위한 갈등이다. 지속적 시간관리자는 궁지에 스스로를 가둔 사람이다.

'빨리 빨리' 사회에서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거리를 상실한다. 성급함은 참을성있는 기다림의 생명력을 고갈시킨다. 기다림이란 행동의 포기가 아니라 창조적인 행동이다. 휴식은 모든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

논스톱 사회는 끝을 '아직 배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한다.

"걸어라 그래야만 자신의 주인이 된다" 티벳어로 인간은 '걷는 사람.' 이제 걸어보자. 과테의 시를 읊으며. "숲에서 혼자 그렇게 걸었다. 아무것도 찾지 않으면서 그것이 내 의도였다."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의지 표현

조계종 '정화회의 해산' 성명서 배경

해종행위자 처벌-소송 조기매듭 수순
의견 둘로 갈린 '통도사 문제' 해결도

11일 조계종 총무원과 교구본사 주지회의가 정화개혁회의를 상대로 발표한 성명서와 결의문은 새 집행부가 처음으로 정화개혁회의의 해산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월하스님이 1월 26일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일부 번복하는 혜명서가 발표된(8일) 후에 이같은 성명서와 결의문이 나왔다. 총무원과 본사주지스님들이 정화개혁회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화회의측은 12일 "성명과 결의문에 개의치 않고 개혁불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도사측도 정화개혁회의에 대한 해산과 소송취하 등 문제를 통도사 차원에서 풀 수는 없다는 정서다. 월하스님과 정화회의 총무원의 관단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총무원과 본사주지회의의 입장이 발표된 배경은 소송과 관련한 문제의 조기 매듭과 통도사를 종단에서 더 이상 소외시킬 수 없다는 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법원이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한 외에도 아직 정화회의가 제기한 소송은 4건 이상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 총무원측은 이들 재판에 대해서도 승소가 자명하다고 보고 있지만 법적인 시비를 고리로 정화회의가 계속 활동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법적 문제가 계속됨으로 종단분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시각을 일소시키기 위한 의지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도사가 월하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정화회의 고수 세력과 총무원에 협력해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세력으로 양분되고 있다는 판단도 이번 성명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고산스님 취임 이후 통도사는 월하스님과 부방장 청하스님의 총무원지지 세력간 갈등이 적지 않게 표출돼 왔다. 이같은 갈등 구조 속에서 청하스님의 부방장 사임론까지 대두돼 왔던 게 사실이다.

소송 취하와 정화회의 해산을 요구한 성명서와 결의문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통도사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해종행위 조사의 강도를 높히고 각종 종무행정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이 회자되고 있다.

총무원과 본사주지회의의 성명 및 결의문은 정화개혁회의에 대한 '최후통첩'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최후통첩에 대해 정화개혁회의가 12일 밝힌대로 개의치 않을 경우 총무원은 곧바로 제재조치들을 취할 방침이어서 향후 행보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연태 기자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99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 일	과 목	교 수	내 용
월요일 화요일	잡아함경 능엄경(7,8권)	최봉수(동국대) 송찬우(승가대)	부처님이 설파한 진리의 원음의 보고 잡아함경 대승경전중의 수행요체의 정화인 능엄경7,8권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등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포교사 취득자	①입학원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자기소개서 1통	99년 2월 1일~ 99년 3월 6(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1999년 3월 8일(월) · 9일(화) 오후 7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을(매주 2강좌)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732-1206~8, FAX 732-1207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 2회(매년 2월, 8월)

1 교과목

1학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법화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화엄사상
2학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 선종사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2 정규반, 통신반 개설

3 문 의 처 : ☎732-1206~8/FAX 732-1207

4 특전사항 :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1999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 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9년 3월 6일 (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 ·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 · 돌 ·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 · 매장 · 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장	99년 2월 6일(토) ~3월 5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00~3:00 (동산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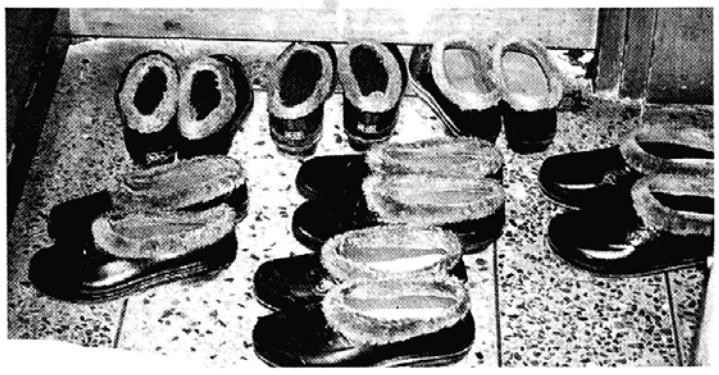
3 입 학 금 · 일십만원

4 원서교부 및 접수 ⊙ 본교육원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100-170)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검소함'의 상징 스님 털신



Focus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조계사 법당에서 매일 새벽예불을 올린다. 고산스님은 1월 초 "중앙종무기관에 근두하는 종무원들 먼저 근검과 청정가풍을 확립하라"고 당부해 왔다. 이에따라 중앙종무기관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일제히 털신으로 갈아신는 등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아침 예불시간 5층 법당에 놓인 종무기관 스님들의 털신.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은해사 종회의원 무이 · 장적스님 당선



◇무이스님



◇장적스님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 선거가 12일 치러져 장적스님과 무이스님이 당선됐다. 이날 선거에는 투표인 77명 가운데 46명이 참가했다. 무이스님은 21표를, 장적스님은 18표를 각각 득표했다.

무이스님은 일각스님을 은사로 득도, 82년 사미계를 87년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서울 중계동 학도암 주지를 맡고 있다. 장적스님은 성진스님을 은사로 득도 77년 사미계, 79년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장적스님은 현재 안흥사 주지와 은해사 기획국장,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을 맡고 있다.



김태호 함종한의원 고산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1일 한나라당 김태호, 함종한 의원의 방문을 받고 환담했다. 취임축하 인사차 방문한 두 의원은 "스님의 취임으로 종단이 안정화 기로를 걷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염려와 화합과 안정을 염원하는 종도들의 마음이 모아져 종단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진각복지회 노인 3백20명에 쌀 전달

진각복지회는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에서 대표이사 김성초, 사무국장 장지현정사, 진영호 성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북구 관내 저소득계층 노인 320명에게 1인당 쌀 10kg씩 모두 40가마의 쌀을 전달했다. 한편 진각복지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까지 성동구청에서 '깔끔세탁배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화랑선우회 육사생도 환영법회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 화랑선우회(회장 고우익)는 7일 오전 10시 태릉 육군사관학교를 방문, 기훈생도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육군사관학교 기훈생도 2백여명과 화랑선우회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선우학생회 회원들의 위문공연과 지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스님)은 6일 동산교육회관에서 99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무진장스님은 "종단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불자들은 더욱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신입생을 독려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총 175명이 입학했으며, 동산불교의식연구원 권지홍법사,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차로

천불사 초청법회서 법문



비룡 월정사 조실은 20일 천안 천불사 큰스님 초청법회에 참석, 법문한다. (0417)557-3223

장수 죽림리서 방생법회



도문 대각사주지는 26일 독립운동가 용성스님의 탄생지인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동화댐에서 정초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개그맨 김병조 초청강연

도영 화엄불교대학 학장은 6일 오후 2시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그맨 김병조씨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장애인·노인에 설 음식 제공



혜창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장은 10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지역내 중증 장애인 및 노인가정 50세대에 각각 백미 20kg, 쇠고기 300g, 가래떡 2kg씩을 전달하는 '훈훈한 설날 함께 보내기행사'를 가졌다.

실상사 불교 귀농학교 입제



도법 불교귀농학교 교장스님(실상사 주지)은 6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제3기 불교귀농학교 이론교육 입제식을 개최했다.

日 NGO 심포지엄 주제발표



법륜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 집행위원장은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 YMCA에서 열리는 한일 양국 비정부기구(NGO) 합동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측 비정부기구 대표로 주제발표한다.

종단협 사무총장에



전남정 총화종 총무원장은 12일 열린 종단협의회 이사간담회에서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美·加 청소년 복지시설 조사



최일산 월곡청소년센터 관장(한국불교청소년범죄예방연맹 총재)은 10일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뉴욕 지역 청소년 및 노인복지 수용시설을 조사하기 위해 출국했다.

교수불자연합회 총회



조희영 교수불자연합회장은 26일 오후 2시 조계사 교화사무국 강의실에서 '99년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올 사업계획 확정 및 신임 임원을 선출한다.

獨 민법관련 세미나 개최



연기영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11일 동국대 BSC 세미나실에서 독·한법률학회 회장 하인리히씨를 초청, 독일민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차생활문화원 봉강좌 개설



감승희 한국차생활문화원 원장은 99년도 제1학기 봉강좌를 3월 6일부터 연다. 전문반과 기초반을 28일까지 접수한다.(02)3672-4030

"재가자에 불학사 학위를"

사회교육원서 불교교육
동국대 **권기종** 교수



불교를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강좌가 동국대 사회교육원에 개설됐다.

사회교육원장 권기종 교수는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재가자를 위해 기존에 한 학기씩 개설하던 강좌를 2년과정의 '불교전문교육' 강좌로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이수자에게 동국대 총장 명의의 '불학사(佛學士)'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권교수는 "불교대학 교수들로 탄탄한 강사진을 구성, 알찬 강의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전문교육은 △초기·부파·대승불교의 이해 △한국·중국불교의 이해 △반야·유식·천태·화엄사상 등 총 20강좌다. (02)2260-3727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경기대 체육학 박사과정 입학

전기영 불자유도선수는 10일 현역 선수에서 은퇴해 3월부터 경기대 체육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다.

'초발심자경문' 윤독강의

권영일 스카우트불자회 회장은 20일 오후3시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15층에서 〈초발심자경문〉 윤독강의를 연다. (02)2292-8502

"나누며 살아야"…6년째 재소자 위문

中 위안부 초청행사 후원 조연홍 보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정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5~7일 서울 인사동의 전통 찻집겸 음식점인 '살마시오소라'에서 열린 중국거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3일간의 사랑나누기' 행사자리를 제공한 조연홍(47·수월심) 보살. 모두 1천2백여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故 강덕경 할머니의 새로운 지문 초상화 작업에 날인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이번 행사는, 3일간 영업을 손해 본 조 보살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그녀는 할머니들의 초청경비 마련을 위해 자비로 손님들에게 차와 떡을 정성스레 대접했다.

하지만 조 보살의 이런 보살행은 일종의 부업이다. 그녀의 본업은 의정부교도소 종교위원이자 조계종 포교사로서 교도교화 사업. 6년간 의정부 동두천 수원교도소를 매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로했다.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원(사회복지 전공) 재학생인 그녀의 작은 서원은 강원도골짜기에 마련한 2층집에서 가족없는 할머니들과 오손도손 살며 남은 여생을 복지사업으로 회향하는 것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포교이론·수행교재 집필"

30년 교단 떠나는 김봉식·김재영씨



◇김봉식씨



◇김재영씨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교단에서 청소년 불교포교에 앞장섰던 두 불자교사가 정든 교단을 떠난다.

23일 경남 밀양 홍제중학교에서 정년퇴임식을 갖는 김봉식교장(64)과, 2월 말 동덕여고를 퇴직하는 김재영법사(61)가 바로 그들이다.

"교법사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종교관을 심어주는 선생님이자 종교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김봉식교장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65년 이후 최초의 교법사로, 또 군법사 1기로 학교와 군대 등 포교일선에서 불법을 전하는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김재영법사는 66년부터 동덕여고 교사로 재직하면서, 동덕여고불교학생회와 청보리회 등을 지도하며 불교포교에 앞장서 왔다. 김법사는 "퇴임후에도 불교 포교와 교육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 하고, 단계별 수행교재를 편찬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모집 요강**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온 어산(범패)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전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어산과 : 00명 · 습의과 : 00명

■ 교육내용
어산과 : 전통의식(범패, 바라무, 착복무) 신중작법, 시련, 대령, 관욕 시식, 상주권공
습의과 : 불전의식(일용의식, 상용의식, 제반의식) 일용의식-도량석, 종송, 축원, 예경 상용의식-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대령, 관욕, 시다림, 점안, 방생 등
특 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 교육기간
어산과(범패, 작법) 2년(4학기)
습의과(불전의식) : 6개월
※본 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 교육시간표

'99학년도 시간표			
요일/과정	어산(魚山) 과정(범패, 작법)	요일/과정	습의(習儀) 과정(불전의식)
월	18:00~19:30(학교강의실)	화	18:00~19:30(학교강의실)
목	18:00~19:30(학교강의실)	금	18:00~19:30(학교강의실)

■ 응시자격
●중헌, 중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비구(니), 사미(니)로서
●은사스님이나 각 본사의 추천을 받은 자
●각 과정(어산·습의) 재가불자도 수강이 가능함

■ 전형방법 서류전형과 면접

■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승적증명서 1통
2) 추천서(은사스님, 또는 본사의 추천)
4) 반명함판 사진 3매
5) 주민등록등본 1통(재가자일 경우)

■ 접수일자
'99. 2. 22 (월) ~ 3. 4(목) (우편접수도 가함)

■ 면접일자 '99. 3. 5 (금) 오후 2시

■ 개강일자 '99. 3. 8 (월)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921-342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중앙승가대학교내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佛紀 2543年 (己卯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유지재단

이 사 장 **보현정사** 주지 석 정 각
상임이사 **보화정사** 회주 석 탄 공

이 사 석 금 암 이 사 석 일 화 이 사 석 창 법
이 사 석 혜 안 이 사 석 혜 우 이 사 석 지 월
이 사 석 선 종 이 사 진 각 화 이 사 석 성 진
감 사 석 혜 봉 감 사 석 필 종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유지재단 사무소

총 무 광 진 재 무 법 원
사무국장 김 도 엽 사 무 장 김 현 태

■(우)320-920 충남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 44-7(지장암)
TEL : 0461)732-5629, 733-5629 FAX : 0461)733-5628

전국공무원 불자연합 만든다

청와대 감사원 국가정보원 합동법회 계기 추진

부처간 연대 통해 결성…"화합·통일 구현 앞장"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을 위한 발판이 놓였다.

청와대 감사원 국가정보원(舊 안기부) 불자회가 8일 오후 6시 감사원 강당에서 합동법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부터 단체간 연대를 강화하여 불교중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청와대 감사원 국가정보원 합동법회가 8일 감사원 강당에서 열렸다.

감사원 안홍보씨(감사관)는 "앞으로 국방부등 국가 중앙기관들과 합동법회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올해 단체간 관계강화를 통해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고 법회 취지를 밝혔다.

3개단체 1백여명 회원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서 감사원불자회 남정수회장(감사원 3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 2건국운동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3개 단체가 연합법회를 갖게되 감회가 새롭다"며 "고려시대 불교를 새로운 국가통치이념으로 도입해 국민화합을 이뤄냈다. 앞으로 민족적 난제인 국민화합과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 불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타스님(은해사주지, 평불협 회장)은 "국가기관 중 가장 중요한 3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기가치관을 가지고 직무수행하면 반드시 민족화합에 기반한 불교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남북간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타종교보다 북한에 호의적인 불교계가 중심이돼 남북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로 강연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타스님(은해사주지), 감사원 지도법사 청안스님을 비롯하여 청와대불자회 김태동회장(정책기획수석), 정은성교화간사(청와대 통치사료비서관), 김경일총무간사(청와대 행정관), 국가정보원 세기불자회 김지흥회장, 신상두·신동진 감사위원, 노욱섭 1국장, 임병준 4국장, 장광명 5국장등 3개기관의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세기불자회는 11월 26일 구룡사에서 첫 공개법회를 갖고 감사원불자회를 초청한 바 있다. 세기불자회는 40여명의 활동중이다.

이와함께 여권의 정당불자회도 27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신년하례 합동법회를 갖는다.

이날법회에는 각종단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하여 청와대불자회 회원등 총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오른손에 발심 왼손에 기연"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⑦

〈전 호에 이어〉

"그렇지요. 형이상학에 있어서는 가능한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할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이하학적인 한계성과 가능성은 배제되고 필연성만이 문제되는 거지요. 이렇게 지껄이는 내 자신이 가능성의 존재인지 불가능성의 존재인지 현재의 나로서는 알 수 없기에 가능성 쪽에 매달려 정진하고 있을 뿐이지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져 있으니까요."

"무서운 도박이군요."

"그렇지요. 그리고 무서운 운명이지요."

"퍽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명제군요."

"명제가 아니라 문제지요. 해답은 충분조건이 충족될 때 얻어지겠지요. 어서 잡시다. 다사(多思)는 정신을 죽이고 포식은 육체를 죽인답니다."

밖에서는 설한풍(雪寒風)이 굉음을 울리면서 지각을 두들겼다.

■11월 20일 올깨끼와 늦깨끼

조실스님 시자는 열여섯 살이요, 주지스님 시자는 열아홉살이다. 스무살 미만의 스님은 이들 두사람 뿐이다. 나이도 어리지만 나이에 비해 체구도 작은 편이어서 꼬마스님들로 통한다. 조실스님 시자가 작은 꼬마요, 주지스님 시자가 큰 꼬마다.

작은 꼬마스님은 다섯살때 날품팔이 양친이 죽자 이웃 불교 신도가 절에 데려다 주어서 절밥을 먹게 되었고 큰 꼬마스님은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동해안의 낙산보육원 출신이다. 낙산보육원에서 간신히 중학을 마치고 곧장 절밥을 먹었다고 한다. 모두가 고아다. 작은 꼬마는 절밥을 12년 먹었고 큰 꼬마는 4년째 먹는다.

꼬마스님들은 대중들의 귀여움을 받는다. 측은해서도 그렇고 가상해서도 그렇다. 그런데 꼬마스님들의 사이는 여름 날씨같은 것이어서 변덕이 심하다. 때로는 혀를 서로 물정도로 다정한 사이인가 하면 때로는 원수대하듯 한다. 다정(多情)과 앙숙(怏宿)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다.

다정한 사이일 때는 서로 법명밑에 스님이라는 호칭이 붙지만 앙숙지간일 때는 작은 꼬마가 큰 꼬마를 '늦깨끼'라고 부르고, 큰 꼬마는 작은 꼬마를 '절밥 도둑놈 올깨끼'라고 부른다.

예로부터 성욕의 발동기를 10세 전후로 보았기 때문에 10세 전후에 입사한 스님을 동진출가 또는 '올깨끼'라고 부른다 그 이후에 입산한 스님을 '늦깨끼'라고 부른다. '올깨끼'는 '늦깨끼'에 대해서 항상 자기의 순결무구한 동진(童眞)을 내세우고 관록과 선취득권을 주장하면서 '늦깨끼'를 경멸하는 버릇이 있다.

'늦깨끼'는 입산 초에는 갓 나온 송아지격이어서 그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내면서 '올깨끼'에게 순종하나 절밥 밥그릇 수를 더해가면서 절생활에 익숙하게 되면 저나 내나 견성 못하고 중생으로 머물러 있는 바에야 절밥만 더 손해 보이게 한 것 이외 무엇이 다르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절밥 도둑놈 올깨끼'라고 반격하기 시작한다.

잘 따지고 보면 서로 서로가 어서 빨리 공부해서 견성하자는 탁마의 소리다. '늦깨끼'는 늦게 들어왔으니 어서 공부하라는 의미고 '절밥 도둑놈 올깨끼'는 절밥만 오래먹고 공부하지 않아 아직 중생에 머물러 있느냐,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의미이다.

'올깨기'는 정신과 육체가 함께 생성과정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 이다. 대부분 하산하고 만다. 하산을 포기하고 입주를 결심한 사람에겐 생사를 걸어놓고 결단에 임한다. 이것이 바로 발심(發心)이라는 것이다.

또 흔히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 사람이 절로 갔을까, 그렇게 유능하고 유족한 사람이 왜 절로 갔을까, 아까와라 이렇게들 지껄인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절대로 절밖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들어와서 절밥을 먹는다. 그 피눈물나는 절밥을. 절밖에서는 금지옥엽이지만 절안에서는 '늦깨끼'로 불리어지면서 온갖 수모가 던져진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불평과 불만과 반항도 찾아볼수 없다. 그들은 이미 어떤 기연에 의해 입산길에 올랐고 절안에 몸이 던져진 것만을 감사히 생각할 뿐이다. 그들은 이미 기연을 포착했을 때 발심이 되어있었다. 절간에는 열반도 피안도 없으며 인간을 육체적으로 거의



그림·이준석

올깨끼 **동진출가…예불등 절 풍속 능숙**

늦깨끼 **입산동기 뚜렷…생사 걸고 수행**

을 절간에서 겪기 때문에 혼탁한 사회 생활은 전연 백지여서 순진하기도 하고 특히 산술에 어두운 것은 사실이다. 절풍속이 몸에 젖어 있어서 가람수호와 예불헌공에 능숙하고 계율을 무척이나 중요시한다.

그러나 대부분 타의에 의한 입산길이었지 자의에 의한 입산길이 아니어서 뚜렷한 입산동기가 없고보니 절생활이 타성화 되었고 자립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늦깨끼'의 입산길은 뚜렷한 동기가 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인생의 패배자나 낙오자들이 자살할 용기마저 없어 찾아가는 곳이 절간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삶들이라 할지라도 절 밖에서 머뭇거리다가 일단 절 안으로 들어와 절밥을 먹게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오욕칠정이 용납되지 않고 삼부족(三不足)에서 살아야 한다. 피안에로의 길이 열려져 있지도 않고 열반이 눈앞에 있지도 않다. 깊이 살펴보지 못하고 겉만 살펴보면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 박제화시키려는 고통 뿐이라는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는 피안에로의 길을 자기자신이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면서 즐거이 수고(受苦)할 뿐이다.

불가에서는 발심과 기연(機緣)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래서 법성게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고 잘 표현해주고 있고 부처님은 분명히 나로서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고 했다. 기연과 발심이 없는 수도생활은 불가능하고 또 무익하기 때문이다.

발심은 날로 거듭해야하고 기연은 수시로 더욱 힘차게 붙잡아야 한다. 입산초기의 혼신적인 구도열이 자꾸 쇠퇴해지는 이유는 발심과 기연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불자는 모름지기 행주좌와에 있어서 발심을 오른손에 기연을 왼손에 꼭 붙들어야 할 뿐이다.

이렇게 쓰다보니 '늦깨끼'만이 발심과 기연이 있고 '올깨끼'에게는 없다는 결론인데 천하의 '올깨끼' 스님들이 이 '늦깨끼'를 잡아 치도곤을 줄까봐 변명아닌 사실을 써야겠다.

〈계속〉

합병은행 불자회 재창립

한빛은행…4월 전국모임 갖기로

합병은행들의 불자회 재창립작업이 활발하다.

4월 공식 창립될 예정인 한빛은행불자회는 부산지역부터 전국적으로 상견례법회를 갖는다. 부산 한빛은행불자회는 합병 이후 처음으로 20일 오후 5시 부산 영주암에서 前상업은행과 한일은행불자회원들의 상견례 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는 고문 정관스님이 법문한다.

부산 한빛은행불자회 홍보부장 배상신씨는 "화합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법을 밝히겠다"며 "예전보다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는 회원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빛은행불자회는 지역별로 회합을 가진뒤 조직을 정비하고, 4월 전국모임을 갖고 전국조직으로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타은행들도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의 조정으로 불자회 통합작업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통합은행 불자회가 탄생될 경우 지난해 회원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은행불자회의 건실화가 전망된다.

김원우 기자

충청 교정인 회지 발간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충청지부(지부장 정남복)는 최근 총회를 갖고 99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자수첩 발행, 봉사활동 확대, 성지순례, 합동수계법회, 충청불자의 밤을 확정했다. 또 지회행사로 1인 1명 포교, 어두운 곳에 불심나누기, 법회개최 증가, 경교대 및 수용자 포교진력등의 계획을 정했다.

한편 불자교정인연합회 충청지부는 불교포교를 위해 회지인 〈불심〉 2호〈사진〉를 발간했다. 불심은 50페이지 분량으로 법문과 논단, 교정불자공간 등이 실려있다.

(0416)733-2220

우리 모임에선

감사원 불자회 탱화점안

감사원불자회(회장 남정수)는 28일 오전 10시 영천 은해사에서 탱화점안법회를 갖는다.

점안되는 탱화는 보물로 지정된 은해사 법당의 후불탱화로 감사원불자회가 모사하여 법회때 사용할 예정이다.

감사원불자회는 이를 위해 27일부터 40여명의 회원이 함께 참여하여 철야기도를 할 계획이다.

(02)721-9121

한전반야회 수련회

한국전력반야회(회장 김영창)는 27일부터 28일까지 충주 콩불암에서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임원 중심으로 참여하며 참선과 기도정진, 10주년을 맞는 반야회 발전방향등을 토론할 계획이다. (02)3456-5780.

서울대병원 대중공양

서울대병원불자회(지도법사 은진스님)는 28일 용주사 선방에서 대중공양을 펼친다. 이날 대중공양은 대보름맞이 방생을 대신하여 이뤄지는 행사다. (02)760-3176

'99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72년 9월에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대중불교의 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불교전문교육의 요람지로서 2년제 야간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포교사 자격고시대비생 (교리 및 의식교육) 불자
3. 강의시간 주4일 수업 (오후 7시부터 ~ 8시 30분까지) 4.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 년		교 육 과 목		
1 학 년	1 학 기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2 학 기	◇대승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2 학 년	1 학 기	◇불교문화의 이해	◇비교종교	◇부파불교
		◇초기대승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2 학 기	◇기신론 사상	◇천태사상	◇화엄사상
		◇선사상	◇정토사상	◇불교교리 발달사

※ 매학기 : 의식이론 및 실습교육 / 동·하계스쿨링교육(특강 및 의식실습 실시)
※ 교수진 : 권기종교수(동국대) 강건기교수(전북대) 권탄준교수(동국대) 장희옥교수(동국대) 최종석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 김사업교수(동국대) 김종명교수(동국대) 김응기교수(동국대)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2월 28일 18:00까지(본대학 서무과)
6.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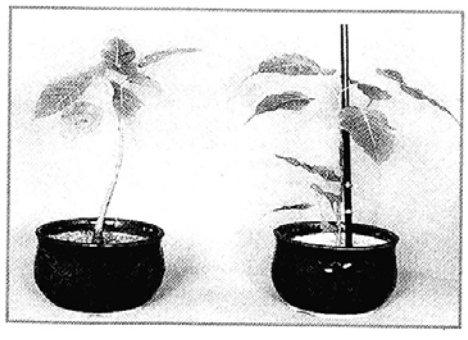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서무과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인도 부다가야 産 보리수 묘목 보급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진하셨습니다.
첫 사미승인 부처님의 아들은 부처님의 유산(法)을 보리수 아래서 받았습니다.
그 보리수를 사찰과 재가불자님들께 보급합니다.

생활속의 불국토 실현!
21C 보리수회는
범불교 사찰과 불교가정에
보리수를 보급하는 모임으로
보리수는
불교의 상징입니다.



- 보리수는 절학을 느낄 수 있는 나무입니다.
- 가족간에 행복을 키울 수 있는 나무입니다.
- 소원성취를 약속하는 나무입니다.
- 모든 문제에 답해 드리는 나무입니다.

※ 안착재(적응약재) 판매, 배송료 별도부담

제1회 포교사상 제정
■보리수상 : 우수포교사 10명
■자 격 : 불교포교공로자
■선별 및 발표 : 추천후 선별 및 추후 지면 발표
■포 상 : 상금과 상패 및 부상

■ 일반불자께는 한주당 15만원에 판매합니다.
■ 사찰에는 무료보급

· 전국 시·도 지부 개인 활동원을 모집합니다. ·

21C 보리수회 ▶주 소: 광진구 중곡 1동 240-19호 ▶연락처: 019-268-6754

★ 봉축 행사, 사찰불사, 불교단체 후원은 보리수회로 연락주십시오 ★

이렇게 들었다

뇌물

"법답지 않은 재물 구하지마라"

이종기 변호사 수임 비리사건에 이어 각종 뇌물수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충북대병원 등 국내 12개 종합병원의 병원장과 관계자들이 의료장비 매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가 하면,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청장이 구속된지 보름만인 10일 국장급 1명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교수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교수를 비롯해 남편의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댓가로 뇌물을 받은 동해시장 부인이 적발되는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책임있는 자리는 뇌물이나 받아먹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남을 위해 봉사하라는 자리다. 뇌물과 관련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중아함경〉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곧은 마음(直心)'은 곧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게 된다. 〈유마경〉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그렇게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3악도의 고통이 되는 근본은 탐욕이 으뜸이고, 피안(彼岸)에 이르는 6가지 가운데 힘따라 도와 주는 것이 제일이다. 아끼고 탐내는 것은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은 나쁜 길을 막는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비록 구차함이 있더라도 인색하지 말라. 올 때도 빈 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3일의 짧은 기간이라도 마음을 닦았다면 천 년의 보배요, 영원할 줄 알고 탐낸 모든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고 만다. 〈자문경〉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하나니라. 〈능엄경〉

▨차라리 道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려 사는 일이 없거라. 〈육도집경〉

▨도름지기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선을 더욱 많이 짓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닦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겉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아미타경〉

열린마당

조계사 발전방향 공청회

한국불교 포교 1번지 조계사. 지난 해 말 조계종사태로 상처입은 조계사를 하루속히 바로 세우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열린 포교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청회가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연대회의의 주최로 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조계사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과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도회 주체적 의견결집

임동현〈조계종 포교사단 사무국장〉

조계사의 정상화 여부에 따라 98년 종단사태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인식되거나, 퇴락의 길로 들어서는 원인으로 인식될 것이다.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운영은 종법에 규정된 사찰운영위원회 문제로 나타난다. 사찰운영위의 구성 여부가 개혁의 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운영의 주체로서 재가신도와 재가종무원이 있다. 사찰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가신도와 재가종무원의 참여는 중요하다. 그러나 사찰운영위원회를 조급하게 구성하기보다는 먼저 건강하고 탄탄한 신도회를 세우고, 힘을 모아야 한다.

또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종단도 조계사가 종단의 직할사찰인 만큼 조계사의 변화를 추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행 모범사찰 표준제시

이종찬〈조계사 청년회장〉

신행단체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조계사 신행단체로서의 모든 회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부서나 단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신행활동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셋째, 조계사 신행단체의 회원은 다른 사찰 신행단체와 달리 수시로 찾아오는 불자와 일반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문도 구해야 한다. 특히 무조건적인 권선은 피해야 한다.

넷째, 조계사 신행단체들은 대사회적 문제에 있어 주인된 의식을 갖고 지켜봐야 하며, 시민발언대로써의 조계사 광장 활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그 어느곳보다도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여섯째, 조계사 사중단체는 조계사 운영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야 하며, 사찰 운영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공간으로 개방해야

유정길〈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조계사는 한국사회의 도덕적인 중심, 정신적 권위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불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인 및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방문객 안내센터를 만들어 한국불교를 알리는 일과 더불어 조계사에 대한 가람가이드를 제작하고, 불교사상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 녹색가게, 생활협동조합 운동, 청소년 상담실, 탁아시설, 비디오 정보실, 지역내 자원봉사 인력은행, 지역화폐 발행, 불교박물관 등의 운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조계사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변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계사의 수행과 신행생활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신심과 수행의 기풍과 내용이 없으면 단순히 한 기업체의 미래 경영전략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토론내용

'신도교육프로 활성화' 등 주장

토론회에서 박상희씨(조계종 봉축기획단 간사)는 신도들의 신심고양과 역량 증대를 위한 신도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신희권씨(자비의 전화 사무국장)는 12년 동안 고착화된 신도들의 의식구조 전환, 도량넓히기 불사과정에서 야기된 기형적 경영구조의 정상화, 신임소임자와 기존신도와의 신뢰회복 형성 등을 99년 조계사의 숙제로 지적했다. 신씨는 이를 통해 조계사가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는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웅정씨(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는 조계사는 하나의 단위사찰이라기보다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총본산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재가불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태씨(조계종 포교원 연구과장)는 조계사가 포교와 전법도량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조계사불교대학의 내실있는 운영과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한 수계와 신도등록 및 조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도의 수행강화 신행프로그램 개발과 도농공동체 생협운동, 봉사활동, 시민운동 참여 등으로 사찰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라도 지역에 이어 서울·경기도가 타종교에 비해 불교세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조계사가 포교 취약지역인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는 물론 수도권(인천, 경기)의 전반적인 포교상황을 활성화하는 방안(포교당 및 분원 설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한자병용 불교계 의견

문화관광부가 9일 전통문화의 이해와 전승, 발전 및 한자문화권 국가간의 교류와 관광 증대에 효율적으로 부응키 위해 한자 병용(倂用)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글 전용은 1948년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72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문서를 한글로만 작성토록 했다. 한자 병용 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불교사상 이해에도 도움

○…한자는 우리가 사용해 온 엄연한 국어의 한부분이다. 불교의 경우 한자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불교계로 봐서는 한자 병용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한자를 배우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 어휘력의 이해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젊은 세대를 위해 경전이나 각종 불교용어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양산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한자문맹 국제화 역행

○…세계의 3분의 1이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자의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자문화권의 중심이랄 수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한자문맹화는 국제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무지를 양산하는 것이다. 차제에 한문교육도 강화돼야 한다.

백운스님〈춘천 석왕사 주지〉

한글 우수성 세계가 인정

○…기본적으로는 '한글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한자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자어에는 이미 우리말로 토착화되어 한글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어휘가 상당수 있다. 이것을 굳이 한글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함축된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뫼' '가람' 등과 같이 사장돼 가는 한글어휘를 일상의 어휘로 살려내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홍기삼〈동국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한자병용 교육효과 높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특정 단어들을 한글과 한자로 병용·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과학계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경우 그러한 바람은 더욱 간절했다. '반도체', '전이', '자기장'의 단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선생님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한글·한자 병용은 교육 효과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라는 것이다.

고우익〈교법사·동대부속중학교〉

한자병용은 지식 고급화

○…한자 문화권에 있으면서 한문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언어는 문화와 지식을 고급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다. 젊은층에 저질언어가 난무하는 것도 올바른 한문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한자는 중국과 일본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윤창화〈불교출판인회 부회장〉

잘못된 교육청 공문

목탁소리

오 종 욱 〈취재1부 기자〉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4월 일선 중·고등학교로 발송하는 '청소년 1학생 1단체 가입 권유' 공문이 청소년 종교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1학생 1단체 가입'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선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건전단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청소년 교육·포교 관계자들은 "이 공문이 오용(誤用)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문 하단에서 '권장 청소년단체'로 보이스카웃, 청소년연맹, RCY(청소년적십자연맹)등 6개 단체만을 언급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 소속 단체'로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간의 불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교써클 자체를 꺼리는 국립중·고등학교의 풍토에서 교육청이 언급한 6개 단체의 선점 효과는 청협 소속 단체들과 비교해 절대적이다.

청협의 공신력은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6개 단체 역시 청협 회원단체이며,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청소년교화연합회등 교계 단체도 청협 소속단체다. 그렇다면 교육청 공문은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단체 수를 줄이고, 각 단체에 대한 형평성마저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 포교 관계자들은 "교육청은 공문에서 청소년들이 가입해도 좋은 건전한 단체 모두를 소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계의 한 청소년단체의 지루가 '공문'에 단체명을 명기해 줄 것을 해당 교육청에 정중히 건의했던 일은 '잘못된 공문'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청소년단체들의 입지를 반영해 주고 있다. 또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4월 일선 학교에 보낸 '1인…' 공문에 6개 단체명을 삭제하고 청협 소속 단체 명부를 첨부한 것에서 '공문'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피해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gobaoou@buddhapia.com)

문의 354-6204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봉성기획

박찬호, 20승할까? 못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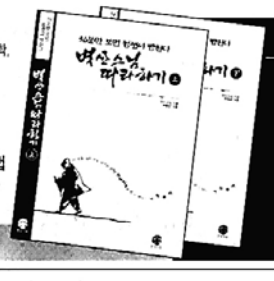
61

30분만 따라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설날, 온가족이 모여 함께 따라해 보세요

■ 벽산스님(법명 : 道日) 약력 1968 합천 해인사 입산, 1973 부산 범어사 춘해 대화상 은사로 득도, 1975~76 통도사/봉선사 강원 대교과수료, 1977 동국대 역경원 원장 운허 대종사 법좌하에서 수학, 1977~86 서울 상내동 자은 포교당 주지, 부산 정수사/소림사/화엄사 주지, 現 합천 칠성암 주지, 부산 금정구 생활 신원 주지

「벽산스님 따라하기」 50쪽만 따라읽으면 누구나 쉽게 괘를 뽑을 수 있습니다.

▶6가지 괘 뽑는 법 쌀로 괘 뽑는 법 색페이지로 괘 뽑는 법 바둑돌로 괘 뽑는 법 동전으로 괘 뽑는 법 생활속의 숫자(아파트호수, 주민등록번호, 차표 등)로 괘 뽑는 법 일진, 년, 월, 시로 괘 뽑는 법
▶14가지 항목별 괘풀이의 예 투자/주식 : 2개월간 수요일을 노려라 외약 식물 주식이 좋다 시험/학문 다시 재정비하라 마음만 앞서기고 있는 상태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를 연구하고 기일동안 집신수련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매매 타인, 중개인 말만 듣고 함부로 계약하지 말라 3개월만 참으면 좋은 계약이 이루어진다 사업 새사업은 6개월 뒤에 시작하는게 좋다 소자본으로 재빨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된다 자신감을 가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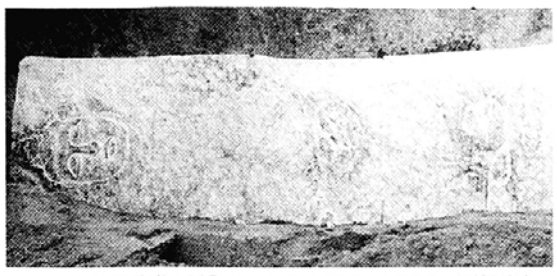


10,000명의 실전상담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풀어쓴 생활주역
30분만 보면 점쟁이 뺨친다
벽산스님 따라하기

신국판 상,하권 / 값 각권 12,000원

국내 첫 마애열반상 발견

경주시 율동 뒷산서…고려시대 조성 추정 동국대박물관 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마애열반상. 경주시 율동 뒷산 사당골사지에서 발견됐으며 30자 가량의 명문도 찾아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의 마애열반상이 경주에서 발견됐다. 동국대 경주박물관 박흥국 연구원과 경주 계림고 최민희 교사는 4일 경주시 율동 뒷산 '사당골 사지' 지점에서 몸길이 1.8m 불두길이 42㎝ 얼굴폭 25㎝ 크기의 마애열반상을 발견했다. 이 마애열반상은 가로 3.56m 세로 4.5m 크기의 ㄱ자형 암벽의 오른쪽 벽면에 새겨져 있으며 왼쪽 암벽 하부에는 30자 가량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얼굴과 왼쪽 손, 발은 비교적 뚜렷하며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불두의 눈이 가는 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를 아래로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전형적인 열반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처님의 입멸을 묘사한 열반상은 인도나 중국, 일본에서도 드물게 발견되고 있는 불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화나 원각사지 10층 석탑(조선 세조)의 탑신에 소규모 부조가 있으나 독립상으로 조성된 마애열반상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창호 경주대박물관장(문화재학과)은 "4행으로 된 명문에 '무술년 2월3일'로 표기된 부분이 나오고 이두문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원래 명문은 81년에 발견됐으나 이 유적으로부터 6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하나의 선각 마애불두상과 관련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었다. 그러다 두 유적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먼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흥국 연구원 팀이 탐사 끝에 토사에 묻혀 가려져 있던 마애열반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박흥국 연구원은 "이 열반상은 마애불상으로는 공백으로 남아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어서 불교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 지역이 사당골사지로 불리워지는 절터인만큼 주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8일 문화재관리국에 율동 마애열반상 발견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현장보존 조치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정옥녀씨의 지도로 국악교성곡 '혜초'를 연습하고 있는 불교계 연합합창단.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연습 현장

"혜초스님이 되자" 250여명 한마음

'왕오— 천축— 구옥 전—'

"첫 부분인 '왕오'를 당겨 힘차게 올려야 합니다. 이 첫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해 봅시다."

8일 오후 2시, 강남 진각종립 진선여고 내 회당기념관에는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 않은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교계 연합합창단 2백50여명이 소프라노와 앨토로 나뉘어 국악교성곡 '혜초' 연습에 한창이다.

"길 떠나네- 길 떠나네- 이 부분은요, 씩씩하고 희망차게 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미지의 나라로 구법의 길 떠나는 혜초스님을 상상하며 해 보세요." 소프라노파트의 연습을 이끌고 있는 정옥녀씨(청룡사·묘각사 합창단 지휘자)의 자상한 지도에 합창단원들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화음만들기에 열중한다.

27일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열리는 국악교성곡 '혜초'의 공연날은 앞으로 19일. 연습기간이 짧기 때문에 무대에 서야하는 합창단들은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진각 길상사 청룡사 묘각사 인천보명사 중앙불교 수원포교당 조계사청년회 등 연합합창단 2백50여명은 2월의 문화인물 기념음악회가 원만히 성료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마치 실전처럼 임하고 있다.

"단원들에게 우리가 혜초스님이 된 기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천3백년전에 낯설고 물선 그 머나먼 곳으로 구법의 길을 떠나신 혜초스님이 되어보자는 것이지요. 다른 음악회보다 몇 배 긴장이 됩니다." 길상사 이정법장 단장은 합창단들의 각오를 살짝 들려준다.

앨토파트에 참가하는 홍정법화 청룡사 합창단 총무는 "혜초스님을 기리는 문화행사에 동참하게 되니 너무 기쁘고 보람이 큽니다"면서 노래를 부르는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5년동안 성악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돌아온 바리톤 박성규씨는 '혜초' 작곡자 김희경씨의 권유로 합창 앨토파트의 연습을 지도하고 있다. 귀국하자마자 큰 불교음악회에 동참하게 되어 불자로서 보람이 크다는 박씨는 "외국에서 힘들게 공부하다보니 그 옛날 인도로 구법여행을 떠난 혜초스님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것 같다"며 좋은 화음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피아노반주의 김동욱 강유정 이정은 씨들도 합창단원들과 한마음으로 27일 공연날을 위해 피치를 올리고 있다.

혜초스님을 기리는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는 작사자 장지현정사와 작곡자 김희경씨, 250여 합창단원들, 노래를 지도해 주는 지휘자 정옥녀, 박성규씨 그리고 반주자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멋지게 성료되어 불교계 최고의 공연중 하나로 기록될 것에 틀림없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경주서 '제1회 불교엑스포' 열린다

4월1일 전야제…52일간 행사 영산대재등 전통불교문화 총망라

지난해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렸던 경주에서 '제1회 불교 엑스포-한국불교문화예술대전'이 개최된다. 4월1일 전야제 연등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부처님오신날 다음날인 5월 23일까지 52일간 계속되는 불교엑스포는 영산대재로 개막, 탑돌이 대동제로 막을 내리게 된다. 지난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여한 13개 전시 공연 기획사들의 모임인 한국전람사업협의회(회장 이일로)가 주관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스님)가 후원하는 '한국불교문화예술대전'은 경주 보문단지 내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한국불교문화전, 불교건축대전, 실크로드의 불교문화 영상, 불교음악제, 사찰음식 강연회, 불교의상패션쇼 등 행사가 펼쳐진다.

불교문화관에서는 한국불교문화전, 한국불교미술전, 부처님진신사리전, 세계불교성지사진전, 한국불교건축전 등을, 영상관에서는 세계의 불교성지, 실크로드의 불교문화, 불교영화, 스님의 하루 등의 영상상영으로 비디오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참가를 유도한다. 공연장에서는 불교문화의 몸짓, 불교음악제, 김영동의 음악세계로, KBS 열린음악회, 동국대 불교관현악단 공연, 젊은이들의 한마당, 동심으로의 초대, 문화예술공연, 오페라 원효, 어머니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불전사물, 조석예불, 사시마지 등을 음향효과로 재현한 'IMF 극복과 제2건국 기원을 위한 기원제'가 중앙광장에서 봉행되고 학술행사장에서는 '한국불교의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한국불교의 발전방향' '물질문명과 불교' '한국사회와 불교' 등 3개 주제를 놓고 토론 한마당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특별행사로 티벳의 달라이라마 직속 공연단 초청공연도 가지며 관람객들이 직접 현장체험할 수 있는 참선과 다도의 장도 마련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세상이 아름답고 찬란한 이유

홍기삼교수 산문집 '들풀도 고향이 있다'



〈불교문학 연구〉〈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 등 불교문학이론의 권위자 홍기삼 교수(동국대 국문학)가 주옥같은 에세이를 모은 산문집 〈들풀도 고향이 있다〉를 펴 냈다. 샘터 刊.

이번 산문집에는 칼날같은 감수성으로 쓴 서정성짙은 41편의 에세이가 담겨있다. 따뜻한 눈으로 사물을 보는 생명주의자 홍교수가 현대인에게 띄우는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것. 1부 모여사는 아름다움에는 유소년기 청년기의 아름다운 추억을 통해 비틀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반조하고 2부 걸음걸이와 인격은 잔잔하고 향수어린 글을 통해 오늘의 세대에 따끔한 일침을 놓는다. 3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는 공동체적 삶과 역사의식에 대한 통찰과 비판, 4부 누더기 장삼의 가르침은 불교문화 진단을 통해 불교계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산문집 〈들풀도…〉는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현 문화세태를 잔잔하면서도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경숙 기자

문화재소식

광양 옥룡사지 명문기와 출토

광양 옥룡사지에 대한 3차 발굴조사 결과 요사채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옥룡사' 명문이 새겨진 암막새와 햇무리굽 청자 등이 출토됐다.

이번 발굴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는 그 동안 일부 문헌과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옥룡사가 실재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초반까지도 사세가 유지되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좋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화주응진(化主應眞)…만력십칠년기축삼월일(萬曆十七年己丑三月日)' 명 기와를 통해 1589년 경에 옥룡사에 대규모의 불사가 있었음을, '송치(松峙)' 명 기와에서는 기와제작 장소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옹정오년정미(擁正五年(1727년) 丁未)…일옥룡사(日玉龍寺)…도감담(都監潭)' 명 암막새 등 5종의 명문와와 연화문막새, 용문양 암막새, 압형기와, 치미, '관(官)' 자명 인화문분청사기편, 벼루편, 상평통보 등 유물이 다수 출토됐다.

흥국사 나한전등 향토유적 지정

고양시 지축동 한미산 흥국사 나한전 등 7개의 문화재가 고양시 향토유적으로 7일 지정됐다. 흥국사 나한전은 1878년 건축된 건물로, 정면 3개의 문에 있는 문살의 무늬가 세밀하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흥국사 나한전 외에 새로 지정된 향토유적은 강매동 창릉천에 있는 돌다리, 박태성 정려비와 묘, 은지와 이축 선생 묘, 심희수 교지와 묘, 권희 선생 묘, 이석탄 장대비 등이다.

동학사 입구 민속박물관 세운다

계룡산 동학사 입구에 민속박물관이 들어선다. 충남도는 2일 공주 동학사 입구 온천개발 집단시설지구 3만3천여평에 대한 계룡산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요청,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도는 이곳에 민자 2백10억원을 유치해 2002년까지 '계룡산 민속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민속박물관은 1만3천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지며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주민들의 의식주 관련 유물 3천5백여점이 전시된다.

이곳은 10여년 전 온천개발 집단시설 2지구로 지정,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민간사업자의 부도로 산중턱간 흉하게 깎아놓은 채 중단돼 주민과 관광객들의 비난을 사왔었다.

지자체별 문화재 정비계획

분화사 석탑 발굴, 백률사 대웅전 보수를 골자로 한 경주시를 비롯한 공주시, 경상남도 등의 올해 문화재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경주시는 올해 1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백률사 대웅전·원원사지 보수 정비와 분황사 석탑 발굴,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경주 남산 발굴 및 복원 5개년 계획의 2년차 사업에는 14억2천여만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4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공주시는 마곡사 대웅보전과 영은암 적묵당 보수비로 4억여원을 배정했다. 신원사 옥외소화전 설치, 상신리 구릉사지 정비, 갑사 철당간지주 보수 및 경내정비 등도 4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또 무령왕릉 모형관, 석장리 구석기유적 전시관도 건립한다.

경상남도는 고성 옥천사 보장각 전시시설 1억원, 통도사 서운암 15만 도자(陶磁) 대장경 제작에 2억원 등 도내 문화재 1백25건에 대해 2백7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사업을 벌인다. 김수로왕릉, 진주성, 통영 세병관 등에는 55억5천만원을 들여 정비 및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충주시는 올해 17억7천6백여만원을 들여 김생사지 학술조사, 중앙탑 주변 정비공사, 정토사 법경대사비 보호각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도비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남원시는 실상사 정비, 덕음암 석불좌상 보수와 함께 사찰 서원 향교 등 향토문화재에 대한 정비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리시에 '고구려박물관' 건립

지난해 고구려 유물이 한꺼번에 발굴돼 관심을 모았던 구리시 아차산 보루성 인근에 고구려 박물관이 건립된다.

구리시는 2일 아천동 1천여평 터에 건평 3백여평 규모의 고구려박물관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물관에는 고구려 군사요새였던 보루성에서 발굴된 토기·무기류 등 관련 유물 1천여점과 구리문화원에서 전시하고 있는 유물 50여점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일타 큰스님의 신간

불자의 기본 예절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Ⅰ. 불자의 마음가짐과 언행 Ⅱ. 합장법과 예배법
Ⅲ. 사찰에서의 예절 Ⅳ. 법문 듣는 법
Ⅴ. 절집안의 생활예절

4×6 판 / 3,500원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생활속의 기도법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 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전하시는 큰스님의 법어집.

· 기도(祈禱)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 시작하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강설집.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 신국판 / 값 5,000원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 범망경보살계 1 - 5 — 신국판 / 각권 6,000원
큰스님의 보살계 법문.

· 법공양문 —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감로법문 —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죽음은 삶의 온전한 거울

소걀 린포체 '티베트의 지혜' 오진탁교수 번역



우리는 죽음을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 온갖 탐욕과 거짓, 이기심에 휩싸여 살면서도 죽음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티베트인들은 죽음에 대한 가장 깊은 사색을 하는 민족이다. 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삶의 마지막 단계로 여길 뿐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차분히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에 대한 혼란은 없다. 이런 티베트인들의 '죽음에 대한 사색' 중심에는 바로 불교가 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 소걀 린포체는 말한다. "하늘 같은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라. 참된 자기가 있는 곳, 삶과 죽음 너머 변화하지 않는 순수한 깨달음을 얻으라.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새겨라.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죽음과 삶 모두에 커다란 희망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소걀 린포체가 쓴 〈티베트의 지혜〉(민음사 刊)는 삶과 죽음이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이며, '죽음은 삶의 온전한 의미가 반영된 거울'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해준다. 죽음과 죽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방법과 수행의 길도 제시한다. 새로 쓴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이자, 위대한 라마들이 가르쳐 온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 우리말로 옮긴이는 오진탁 교수(한림대 철학과).

'삶을 내려 놓으면 삶이 보인다' 불교의 가르침 함축

'삶을 위해 삶을 내려 놓으라'는 불교의 가르침. 이 책의 매력은 이 가르침을 쉽게 공감케 하는 데 있다. 불교는 삶에 있어 궁극적으로 아무런 한계도 없는 자유를 제시한다. 그런 자유는 지금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죽음을 준비하고 수행을 충실히 닦은 사람에게 죽음은 패배이기는 커녕 승리이자 삶의 가장 영광스런 성취라고 소걀 린포체는 강조한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인간이 죽은 후 '바르도'를 거치게 된다고 말한다. '바르도(bardo)'란 티베트어로 한 상황의 완성과 다른 상황의 시작 사이에 걸쳐 있는 '과도기'라는 뜻. 이 '바르도'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일상적인 삶, 죽어가는 과정과 죽음, 죽음 이후, 환생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본다. '바로 지금의 삶' 조차도 '바르도'로 이해하는 데에는 윤회라는 수레바퀴 속에서 헤탈의 기회가 삶과 죽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시됨을 의미한다.

'내일 또는 다음의 생, 어느 것이 먼저 올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들여다보라는 소걀 린포체의 말은 '삶의 무상함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바로 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죽음에 대한 사색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색임을 이 책은 가르친다. 값 2만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게송 308수로 기신론 요약

전종식씨 '대승기신론 강의'



영문번역본 별책 구성

한글·영문 번역과 함께 저자의 해설을 곁들이고, 내용 전체를 저자 자신이 지은 308수의 게송으로 요약 풀이한 〈대승기신론〉 번역서가 나왔다.

전종식씨(강남대 종교철학과 강사)가 펴낸 〈대승기신론 강의〉(한국예절문화원 刊)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여타 번역서와는 다른 몇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선 우리말과 영어 두 가지로 번역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영문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되 어려운 부분들은 해설문장을 추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문 번역본은 별책으로도 구성했다.

또 다른 특징은 진체의 구역(舊譯)을 저본으로 삼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신·구역 대조표를 만들어 원문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대승기신론〉은 인도의 마명보살이 저술한 것으로 양나라 진체삼장과 당나라 실차난타의 한역본 두 가지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진체역본을 구역으로, 실차난타의 역본을 신역으로 부른다.

〈대승기신론〉의 전체 내용을 역자가 3·4·4·4조에 맞춰 308수의 게송으로 요약 풀이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대승기신론〉의 내용 전체를 읽지 않고 게송만 보더라도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내용은 〈대승기신론송(頌)〉이라는 별책에 담았다. 값 1만9천원(별책 2권 포함)

詩로 쓴 구도역정

김연식 시집 '감로의 문'



중견 여류시인 김연식씨(60)는 마치 수행자가 정진하는 듯한 자세로 작품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지금까지 발표한 시집이 그렇듯이, 이번 열두 번째 시집 〈감로의 문〉(청학 刊)에서도 그의 깊은 불심은 알알이 드러난다.

시인은 구도역정과 시심(詩心)이 곧 불심임을 노래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로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일 따름이다. 모든 감각과 지식은 실체가 없음을 알고 있는 탓일까, 자신에게 실체가 있는 유일한 것은 '감로의 문' 뿐임을 김시인은 노래한다. 값 5천원.

'제경요집' 등 한글대장경 5권 나와



동국대 역경원(원장 월운)이 한글대장경 〈제경요집1〉〈살바다비니비바사 外〉〈십주단결경 外〉〈불공견삭신변진언경〉〈대반열반경〉 등을 펴냈다.

〈제경요집〉은 200여 종의 경·율·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설법연(說法緣) 청법연(聽法緣) 등의 부류별로 뽑아 엮은 불교백과사전과 같은 책이다. 〈살바다비니비바사〉는 설일체유부의 계율을 정리해 놓은 율장으로, 유부 계율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십주단결경〉은 요진시대 축불념이 한역한 것으로 어떻게 10지(地)의 수행을 닦아 나가는지에 대해 설한 경전이다. 〈십주단결경 外〉에는 〈관세음보살수기경〉〈불설관약왕약상이보살경〉 등 6개의 경전이 번역돼 있다. 〈불공견삭신변진언경〉은 불공견삭 관음보살의 진언 다라니·염송법·만다라·수인(手印)·공덕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반열반경1〉은 담무참에 의해 한역된, 40권 13품으로 구성돼 있는 〈대반열반경〉을 번역해 놓은 것. 여기에는 20권 9품까지의 내용이 실려있다. 각 권 1만5천원.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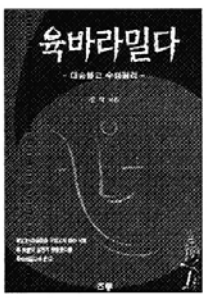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참선요지	허 운	여시아문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4	불자의 기본예절	일 타	효 림
5	서장	대 혜	불 광
6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운외	불교시대사
7	산에는 꽃이피네(대)	법 정	동쪽나라
8	소원성취 기도법	정우서적편집부	정우서적
9	화두 짓는 법	토방 편집부	토 방
10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대원미디어

구입문의:(02)737-0695

육바라밀다 | 정각스님 지음

보살수행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불교에서는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육바라밀다'를 대승불교 보살 수행의 실천 원리로 꼽는다. '육바라밀다'의 행(行)은 신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자 삼계를 초월하는 법이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행복에 이르는 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육바라밀다' 수행의 요점을 간략하게 서술한 입문서다.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육바라밀다'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바라밀다의 실천은 또 다른 세계 속에서가 아닌 '현실 가운데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임을 강조했다. 저자 정각스님은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 〈초롱, 3천원〉

화제의 책

한국문화의 뿌리를… | 코벨 지음

외국학자의 눈에 비친 한국문화



외국 학자의 눈에 비친 한국문화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는 미국의 교육학자 존 카터 코벨이 한국문화의 독자적인 본질을 추적한 책이다. 한국문화계의 고질적인 중국 선호사상을 벗고 한국 자신이 그 문화의 주인공임을 한국의 유물과 스님, 예술가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불교의 선화(禪畵)를 전공한 탓인지, 저자는 이 책 내용의 상당부분을 불교사상과 유물에 할애하고 있다. 백제·신라의 불상과 탑, 원효·의상스님, 석굴암, 미륵반가사유상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사상과 유물들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조망했다. 역자는 전 경향신문 문화부장 김유경씨. 〈학고재, 1만7천원〉

화제의 책

종교와 사회윤리 | 나카무라 하지메 지음

고대 인도 종교의 '사회이상' 추적



인류문화의 지도적이고 지배적인 정신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상은 주로 종교다. 그렇다면 종교는 어떤 사회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일까.

〈종교와 사회윤리〉는 고대 인도 종교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 종교학 개론서다. 바라문교·자이나교·원시불교의 경제윤리를 비롯해 아쇼카왕의 종교정책과 대승불교의 경제·사회정책 및 봉사정신 등을 소재로 종교의 '사회이상'을 추적하고 있다.

일본의 저명한 불교학자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의 〈종교와 사회윤리-고대 종교와 사회이상〉를 오진스님(일본 동방대학 강사)이 번역했다. 〈경서원, 2만5천원〉

해외신간

미국불교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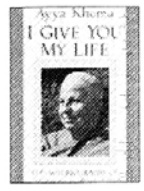


찰스 프레비쉬와 케네디 다나카 등이 공동 저술한 〈미국불교의 모습(The Face of Buddhism in America)〉에는 미국인 불자들에게 존경받는 스님과 명상가 19명의 수행과 신행이 조명됐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불교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심원한 불교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책. 각 장은 전통적인 명상뿐만 아니라 '미국화'된 불교 즉, 페미니즘·심리요법·환경보호 등과 접목된 불교를 소개한다.

찰스 프레비쉬는 마지막 장에서 "다양한 불교의 모습은 결국 불교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그림판의 한 조각"이라고 강조한다. California Press. ISBN 0520213017.

나의 삶 그대에게



서구의 대표적인 비구니 아야 케마(Ayya Khema)의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의 길을 엿볼 수 있는 〈나의 삶 그대에게(I Give You My Life:The Autobiogra-phy of a Western Buddhist Nun)〉가 출간됐다.

쉐랍 초드진 등 제자 10여명이 저술한 이 책에는 2차대전 당시 유태인수용소에서 탈출해 캘리포니아의 평범한 여성으로서, 호주의 농부로서, 지구촌 유랑민으로서 그리고 55세 나이로 출가한 비구니로서 살아온 아야케마스님의 삶이 투영됐다.

스님은 세계여성불교도회의를 결성하고, 미국과 유럽에 비구니 사찰을 개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Shambhala. ISBN 1570624151.

교육의 중심 종교

'여고생 원조교제' '고베시 아동연쇄 살인사건' 등 청소년이 일으킨 사건들로 청소년의 윤리관이 일본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교육의 중심 종교〉를 펴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체험한 종교교육의 성과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

제1부 '현대 일본의 종교교육'에서는 일본 불교계 사립학교 교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의 효과를 소개하고, 제2부 '종교교육의 국제비교'에서는 한국·말레이지아 등의 종교교육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新書館 刊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밝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소멸해 버린 자리(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성(大晟)스님 옮김
B6변형 278쪽/ 값5,500원/ 여시아문 펴냄



주 머니 속 대장경 301 - 선 (禪)

허운 화상(1840~1959)은 1840년 중국 복건 천주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처음 관음보살의 일대기 등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19세 때 출가, 고산 용천사의 묘련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는 모든 소임을 놓고 3년간 일념으로 관조의 염불을 하였으며 31세에는 천태산 용천암 융경 노화상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불법을 구했으며, 갖은 병고와 액난에도 굴하지 않고 계율을 엄수하고 근고정진한 끝에, 종문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단절되다시피 한 5종 가풍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하에서도 승도를 수호하고 사찰 불당의 파괴를 막았으며 대소 수십개소의 가람을 복원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를 주고 불문에 귀의시켰다. 그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계한 제가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스님의 일생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법(法)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째로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안일과 나태, 그리고 온갖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통렬한 질타이기도 하다. 결국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 자신의 이러한 치열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결정화된, 요긴한 말씀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옮긴이의 말 중에서)

수록 내용

제1부 참선요지
제1장 참선의 선결 조건
1. 참선의 선결 조건
2. 성불(成佛)의 방편
3. 화두 참선법
4. 공부의 어려움과 쉬움
제2장 선방 법문
1. 이끄는 말
2. 공부의 입문 방법
3. 공부의 두 가지 어려움과 쉬움
4. 결론
제3장 참선경어
제4장 제석보다시중(除夕普茶示衆)
제5장 수행과 불수행
제2부 선칠법문
부록
1. 허운 화상 약전(略傳)
2. 어휘 해설
3. 인명 해설

"신중단 예경의식 대신 반야심경독송 '봉암사 결사' 이후 선중심 변화"

송현주씨 서울대 박사논문 '근대 한국불교 예불의 성격에 관한 연구'

"예불의식 가운데 기존의 신중단(神衆壇) 예경의식이 현재의 〈반야심경〉 독송으로 변화된 것은 성철·청담스님이 선법(禪法) 중흥을 위해 주도한 '봉암사(鳳巖寺) 결사'에서 비롯됐다."

한국불교 예불의례의 변화과정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 예불의식이 갖는 의의를 고찰하는 등 한국불교 예불만을 집중 연구한 논문이 발표돼 화제다.

송현주씨(종교학과)의 서울대 '98 박사학위 논문 '근대 한국불교 예불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한국불교 연구분야에서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예불의례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며 현대 한국불교 예불의례가 성립된 배경과 의미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한국불교의례는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대규모 전문의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으며 출가수행자 중심의 대자의례(對自儀禮)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송씨는 월운스님의 〈일용의식수문기(日用儀式隨聞記)〉에 나타난 현대 불교예불 형식이 자리잡게된 '시점'에 주목하고 "현대 불교의례는 전통예불 의식에 비해 선(禪)중심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국불교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자신의 종파적 정체성을 선종(禪宗)에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씨는 1947년 성철스님과 청담스님, 자운스님, 월산스님 등이 경북 봉암사에서 결사를 맺고 선법의 중흥을 모색한 것이 한국불교 예불의례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있다. 이 결사 기간동안 성철스님과 청담스님의 주도하에 신중단 예경의식이 〈반야심경〉의 독송의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봉암사 결사는 일본불교인 '대처불교'를 밀어내고 한국불교를 재흥시키는 초석이 됐던 결사로, 특히 성철스님은 한국불교의 내적 정화의 하나로 한국불교 전래의 의식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었다. 신중단 예경의식이 〈반야심경〉 독송으로 바뀌게 된것도 선종의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송씨는 "중단예불이 〈반야심경〉으로 대체된 것은 이 경전이 지닌 선종과의 친화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력수행(自力修行)을 목표로 하는 선종의 입장에서 궁극적 모델로 삼는 이상적 인간형이 부처님이기 때문"이라며 "신중에게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신중들에게 불법을 들려주어 깨닫게 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는 "현대 한국불교의 예불의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불형식은 과거 통종파적 성격으로부터 선종 중심의 성격으로 재편되어온 과정"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비록 전체 예불의식 중 일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대웅전 상단예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불교가 자신의 종파적 주체성을 선종에서 찾았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일용의식수문기〉에 의하면 현대 한국 예불의례가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정립된 것은 1950년 전후로, 현행 대웅전의 상단(上壇)예불문이 〈칠정례(七頂禮)〉로 정리되어 널리 쓰이기 시작하는데 송씨는 이러한 변화를 한국역사에서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걸쳐 있었던 식민통치와 해방의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 의해 문호가 개방된 후 한국불교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외래종교와의 대면, 일본 종파불교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종파적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 일제하의 이러한 상황은 불교의식 문헌 속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 〈석문의범(釋門儀範)〉 등은 종래의 의식집과는 달리 의식을 간소화하고 모든 의식문을 한글로 표기하여 포교의 자료로 삼고자 하고 있다.

송씨는 "종래에 간행된 불교의식집들이 종파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기에 발간된 〈석문의범〉 등은 선(禪)·교(敎)를 구분하는 등 한국불교 교단의 정체성 탐구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씨는 "선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知的), 엘리트적 성향 때문에 민중 교화의 차원에서 의례화의 기제(機制)로서는 한계를 지닌다"며 "교리적·사상적으로는 그 취약성을 화엄사상으로 보완하고, 의례면에서는 정토와 밀교 등을 통해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법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현대 한국불교의 예불이 지금까지 선종중심으로 재편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개양상 역시 선종중심의 성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현대 예불의식의 〈반야심경〉 독송은 1947년 '봉암사 결사' 이후 신중단 예경의식에서 변화한 것이다. 사진은 예불의식 장면.

'대혜서장 연구'

보조사상연구원

25·26일 불일회관

선전연구 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스님)은 '대혜서장(大慧書狀)연구'를 주제로 25~26일 불일문화회관에서 제2차 선전(禪典)연구 발표회를 갖는다.

〈대혜서장〉은 중국 종고(宗고·1088~1163)선사가 학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책으로, 〈도서〉 〈선요〉 〈절요〉와 함께 우리나라 불교 강원의 사집(四集) 중 하나.

△중국 선종사에서 간화선의 위치(혜원스님·동국대) △간화선의 사회적 배경(종호스님·동국대) △대혜 간화선의 특질(인경스님·보조사상연구원) △대혜의 묵조선 비판(김호귀·동국대) △서장이 보조사상에 끼친 영향(이병욱·고려대) 등이 발표된다.

인도불교문헌 CD롬 출간앞둔 **이종철** 교수

"다언어 불교용례사전 첫 결실"

'다언어 불교용례 전자사전' 편찬사업의 첫 결실인 인도 불교문헌 CD-ROM 출간을 앞두고 막바지 교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종교철학).



인도 불교문헌 CD-ROM은 최근 계약을 맺은 美 버클리대 출판부에서 올 후반기 출간하게 된다. 인도 불교문헌 CD는 산스크리트어를 로마자로 전사(轉寫)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검색엔진 및 산스크리트어 글자체 개발은 태국 마히돌대 컴퓨터 센터에서 도움을 주었다. <본지 151호 9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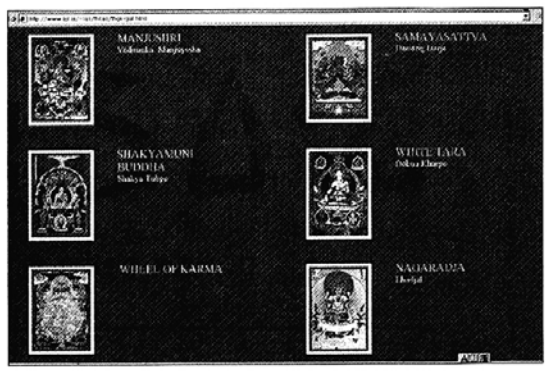
92년 처음 '다언어 불교용례 전자사전' 계획을 세운 후, 꾸준히 작업을 진행해 온 이교수는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국내 관련기관의 무관심으로 버클리대에서 출간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쉽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인도 불교문헌을 전산화해 냈다는 것과 본격적으로 출간될 경우 인도 불교문헌 및 산스크리트어 연구에 필수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전자사전의 출간을 계기로 한역경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연구풍토가 쇄신될 수 있을거라 기대해 봅니다. 산스크리트어를 비롯 각 언어로 쓰여진 논·소와 경전의 총체적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교수의 장기적 계획인 '다언어 불교용례 전자사전'은 〈구사론〉 〈중론〉 〈법화경〉 등 주요 불교문헌 40여권을 우리말 번역은 물론 티벳어·팔리어·한문으로 연결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의 문헌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서술된 자료를 입력하여 동시 검색이 가능하며 구체적 용례도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인도 및 불교 연구가들 앞에 선보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용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티벳어-팔리어-한글-한문으로 연결되는 '꿈의 사전' 실현을 이뤄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탕카

티벳불교 상징예술품 30여점 전시

탕카제작 과정-부분별 의미 소개

티벳불교 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불교예술품을 꼽는다면 탕카(thangka)와 만다라(Mandala)가 단연 으뜸이다.

인터넷 사이트 '불교 탕카 갤러리(Buddhist Thangka Gallery)'와 '다르마팔라-탕가학교(Dharmapala Center)'를 방문하면 고화질 그래픽 탕카 30여점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탕카 제작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국내 불교미술의 탱화와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탕카는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의 이치를 담고 있는 티벳불교의 예술품으로, 티벳스님들이 주로 명상을 할 때 사용해오고 있다.

티벳불교의 탕카에서는 6가지 색상 즉, 흑·남·황·적·녹·백색이 주로 사용된다고 한다. 흑색은 근원적인 에너지를 의미하고 남색은 물, 황색은 땅, 적색은 불, 녹색은 공기, 백색은 대기 밖의 영기(靈氣)를 의미한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탕카 중에서 '따라보살', '마하깔라', '육도윤회도' 등은 국내 불자네티즌에게 이국적 불향을 느끼한다.

△따라(tara)='바다나 강을 건너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일을 도와 주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어느날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 중생의 삶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해, 이것을 보고 두 눈에 눈물이 흘려내렸는데 오른쪽 눈물에서 녹색 따라보살이 태어나고 왼쪽 눈물에서 백색 따라보살이 태어났다고 한다. 미간과 양손 양발바닥에 7개의 눈이 있다는 백색 따라보살은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마하깔라(Mahakala)=관세음보살이 사악한 중생을 제도할 때 나타내는 관음의 분노존이며, 희두교에서 파괴의 신(神)인 시바의 다른 이름이도 하다. 깔라(kala)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시간이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라고 불린다. 마하깔라는 불교의 호법신에 편입되면서 삼보를 수호하고 굶주리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존재로 알려졌다. 탕카에서 마하깔라는 분노의 얼굴에 해골 목걸이를 두르고 시바의 아들 가네쉬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돌고도=생명의 수레바퀴를 나타낸 탕카가 '육도윤회도'다. 생명의 바퀴로 불리는 이 그림의 중심에는 수탉과 독사 그리고 돼지가 뒤엉켜 있는데, 윤회하는 세 가지 힘의 원천인 탐욕, 성냄, 무지를 상징한다. 두번째 원의 오른쪽은 나쁜 업보로 떨어지는 모습이고 왼쪽은 선지식의 인도로 아미타불 정토에 태어남을 상징한다. 세 번째 큰 원은 상단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천상, 인간, 아귀, 지옥, 축생, 아수라등 여섯 갈래의 윤회세계가 그려져 있다. 네번째 원의 12개 그림은 12연기를 상징한다.

네팔 카투만두시(市)에 있는 다르마팔라센터는 히말라야 지대에서 가장 유명한 '탕카 학교'다. 이 곳에서는 제작기간이 3개월 가량 소요되는 탕카의 제작 과정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교 탕카 갤러리 http://www.iol.ie/~ias/thkas/manj-w.html
다르마팔라-탕가학교 http://artsci.wustl.edu/~rrscott/

'우리가 다른종교를 배워야 하는 까닭'

서강대 윤영해교수 '해인' 2월호에 발표

"타종교에 대한 연구는 종교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사회적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해인〉지 2월호에 실린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배워야 하는 까닭'에서 윤영해 교수(서강대)는 "타종교에 대한 연구와 이해없이는 종교간의 공존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정도와 다른 종교인에게 자기 신앙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정비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씨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훼불사건을 사례로 들며 "기독교인들에게 불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기독교를 '자기를 견주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자(他者)'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인들이 탈종교화나 세속화로 내몰리는 것은 경쟁종교 때문이 아니라 '이성만능주의'나 '세속주의'라고 하는 공적(公賊) 때문인 것을 각 종교인들은 인식해야 한다"며 "상대 종교에 대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이같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해·태·상·사·(주)

그린홈 매트

구정효도 특별 세일 50%

국내 굴지의 수출 선도기업 해태상사(주)가 불자님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건강제품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돌침대의 건강효과와 침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첨단 맥반석 코팅 방법으로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그린홈 매트 크기 : 200×140×50, 2인용

◉ 그린홈 매트 구매 포인트 하나

-건강소재를 확인하세요!
-세균을 죽이고 시멘트 독성까지 중화시키는 비가열성 일라이트 세라믹 !!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100% 천연 일라이트 효과!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원적외선을 가장많이 발산하고, 상온에서도 원적외선을 방사하여 탁월한 건강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 그린홈 매트 구매 포인트 둘

-건강매트 열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최첨단 사상발열체면 안심입니다.
-발명특허 제 1894343호 일본 교호쇼가이 (KYOWA SHOKAI)의 기술자원으로 개발된 사상발열체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열선과 달리 생활 건강용으로 개발된 특수 열선 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고급 차량에 기본 장착되고 있고 병원 물리치료용 음전위 치료기에 사용되는 열선이 바로 사상발열체입니다.

◉ 그린홈 매트 구매 포인트 셋

전자파 차폐천 (실용신안등록) 그린 홈 매트는 인체의 피부가 직접 닿는 제품이라 유해 전자파의 효과적인 차단은 매우 효과적인 고려사항입니다. 대형 전자제품 공자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성분을 이용한 전자파 차단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천은 한국 표준 과학연구원에서 선진국 기준치 이하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공인 받은 제품입니다.
말 많고 탈많은 전자파 유해논쟁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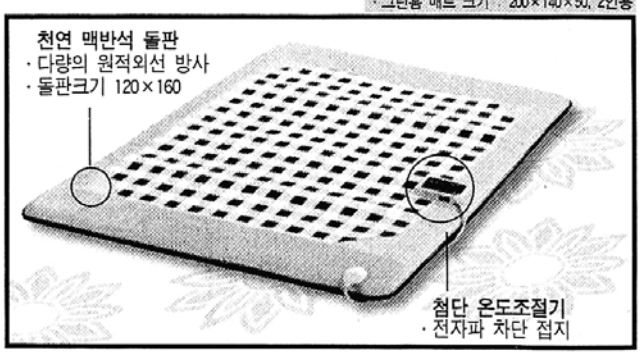
그린홈 건강매트의 특징

1. 인체에 가장 유익한 양질의 원적외선(8-14미크론)이 다량 방사되는 비가열성 일라이트 세라믹과 사상발열체 등 첨단 열판을 사용하여 최고의 원적외선 방출 효과를 나타냅니다.
2. 사계절 보온과 찜질용으로, 여름에는 돌판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3. 전기사용량이 일반 전기장판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4.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인증 전자파 차폐천을 사용해 유해 전자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합니다.
5. 디지털 마이콤 방식의 온도조절기는 최적의 수면 온도를 제공합니다.

원적외선의 효과

그린 홈 매트는 발열과 동시에 원적외선이 피하조직 40-50mm 까지 침투하여 다음과 같은 건강증진 효과를 나타냅니다.

- 공명, 공진현상을 통한 생체 에너지 활성화
- 모세혈관 확장(콜레스테롤 제거)
- 혈액순환 촉진(치질, 여성 냉증에 효과)
- 대사 장해 요소를 해소(소화촉진)
- 조직부활(무좀, 여드름, 동상에 효과)
- 효소생성 촉진 - 피로회복 및 감기 예방 - 체중절감



▶ 단체 구입시 샘플을 원하시면샘플을 보내 드립니다.
▶ 건강매트 수익금 중 일부는 불교 포교기금(노숙자 지원, 결식아동지원 등)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사찰을 통한 단체구입 주문(5장이상)도 받습니다.

◐ 구입문의 : 몰.부다피아 쇼핑몰 02)732-1522
◐ 특판가격 : ~~₩660,000~~ ₩298,000 (구정~대보름 한정)

· 사용중 제품에 불만이 있으시면 1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합니다.
· A/S기간:1년 (T. 02)613-8098)

해태상사(주) 그린홈매트 제조원 : (주)MCI

4禪 통해 윤회 벗어나라

경전 속의 禪 사상 7

禪은 계의 완성도 재는 척도
안반념 · 사념처 수습법 설명

증일아함경〈상〉

글쓴이

김 형 준
〈동국대 강사〉

원시불교의 선(禪)사상을 논할 때 먼저 정의되어야 할 것은 선(dhyāna/jhāna)의 개념이다. 그 어근이 되는 dhyai(생각하다)에서 본다면 사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선이라는 음사어 외에 '사유수(思惟修)'나 '정려(精慮)'로 한역되고 있음은 이같은 선의 어원적 특징에서이다. 어쨌든 선은 그 어떤 사유, 혹은 관찰을 통해 얻어진 심전일(心專一)의 경지를 가리키며, 그 경지란 다름아닌 탐·진·치 삼독이 지멸해 내면이 청정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수습(修習)을 통해 도달된 마음의 경지가 탐·진·치 삼독이 소멸한 상태라면 이를 곧 '선의 경지'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습이라는 인(因)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선과 수습과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를 숫타니파타나 테라가타 등 이른바 최초기 자료에서 본다면 '감관의 제어(制御)'라든가 '사고의 통어(通御)' 등에 의해 도달된 심적정(心寂靜)의 경지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게된다. 원시경전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수습법들은 이같은 감관과 사고를 제어하고 통어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그리고 이같은 선의 개념이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되고 체계화된 것이 바로 사선(四禪)으로, 사선은 삼독이 가라앉아 마음의 맑고 평온해져 가는 깊이를 네 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증일아함경〉 가운데 구체적으로 선을 언급하는 경설들은 대부분 사선을 가리키고 있다. 원시불교에 있어서 사선은 대체로 정형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내용을 약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선(初禪): 탐욕과 착하지 못한 법에서 떠나 아직은 거친 생각(尋)과 미세한 생각(伺)이 있으나, (다섯장애를)여읨에 의해 생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상태.

제2선: 거친 생각·미세한 생각이 가라앉아 내면은 적정해지고 마음은 집중되어 삼매에서 생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상태.

제3선: 기쁨마저 여의고 마음은 무관심해져(捨), 올바른 염(念)과 지(智)로써 온몸으로 즐거움을 감수하는 상태.

제4선: 즐거움과 괴로움마저 여의고 염(念)이 극도로 맑아진 상태.

이 사선에 대해 〈증일아함경〉에서는, '처음은 괴로우나 나중은 즐거운 법 가운데 하나'(제20권 성문품), '신과 용, 귀신들을 압도하는 불제자 신력의 상징'(제22권 수타품), '생사의 바다를 건너 열반에 이르게 하는 여래의 연못'(제23권 증상품)등으로 그 수승함을 설하고 있다. 또한 증상품(제23권)에서는 '청정한 몸·입·뜻·명(命)을 갖춘 자는 인간계에 나고, 오염된 몸·입·뜻·명을 갖춘 자는 지옥에 나며, 보시·사랑·남의 이익·고른 이익을 행하는 자는 천상에 나며, 그리고 사선을 얻은 자는 후생을 받지 않는다'고 설한다. 곧, 오직 사선을 통해서만 이 윤회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이 고타마 붓다의 깨달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음을 증상품(제23권)에서도 볼 수 있다. 본경에서는 세존께서 6년간의 고행편력을 통해 그것이 해탈의 길이 아님을 알고는 출가전 경험했던 사선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나는 기억한다. 옛날 나는 부왕의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음욕과 탐욕이 없이 악과 착하지 못한 법을 버리고 초선에 노닐었으며, 무각(無覺)·무관(無觀)의 제2선에 노닐었으며, 염(念)은 청정해 뭇 생각이 없는 제3선에 노닐었으며, 고락(苦樂)이 없이 의념(意念)이 청정한 제4선에 노닐었던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해탈의) 길일지 모른다. 이제 나는 마땅히 그 길을 추구하자구나."

고행과 대비되는 이 부분은 불교수행에 있어서 선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여기에서 흥미를 끄는 점은 세존께서 출가전 이미 선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증일아함경〉에는 이같은 선의 경지를 얻는 방법으로 두가지 패턴이 설해지고 있다. 그 하나는 계(戒)를 성취해 선에 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한 수습법을 닦아 禪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등견품(제26권)에서는 초선에 드는 조건으로써 계의 성취가 설해지는데, 이 경우 선이란 계의 완성도를 재는 척도인 것이다. 계는 수행자로서 갖추고 지녀야 할 수행의 위의를 말하는데, 선이란 바로 이러한 위의가 완전해져 그 마음이 청정해지는 상태를 상징한다. 사선 가운데 초선은 바로 이 계의 구족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자신의 수행생활이 붓다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행해져갈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 곧 초선의 내용인 것이다.

선을 얻는 구체적인 수습법으로는 들숨과 날숨을 관하는 안반념과 몸·느낌·마음·법의 네 곳을 관하는 사념처가 설해진다. 안반품(제7권)에서는, 세존께서 라훌라에게 안반념 닦을 것을 권하며 그 자세한 방법을 알려준다. 이어 라훌라는 나무밑으로 가 가르침대로 안반념을 행해 사선에 도달하며, 그 삼매의 힘에 의해 세가지 신통(三明)을 얻고 있다. 이처럼 안반념과 사념처수습의 과로 사선이 설해지는 것 역시 원시불교 선정구조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6

마음챙김 ②

스리 오로빈도(Sri Aurobindo)의 〈요가의 기초(Base of Yoga)〉에는 '마음챙김'을 잘 설명해 놓은 문구가 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정신의 바탕은 고요해진다. 아무것도 그것을 혼란시키지 못한다. 사유나 행동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생긴 것일 따름이다. 수많은 망상이 일어났다 스러지고 격렬한 사건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간다 해도, 마음은 영원토록 불멸로 고요히 정지되어 남아 있다. 아무 것도 더 보태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대상은 이러저러한 것으로서 '인식되었으며', 어떤 일반적인 용어들이 그것에 적용되었다. 이제 그것들은 우리와 관련된 어떤 것, 즉 상관 있고 흥미 있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우리는 감각적인 탐심을 충족시켜주는 그것들에게 정신을 접차 빼앗긴다. 이 상태를 '감각의 우세'라고 말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본래 상태인 내적 고요를 혼란시킨다. 감각과 연결된 대상들 위에 마음이 머무는 것을 매우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각의 우세'를 제어한다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사실상 그보다 더 본래적인 것은 없다. 본래의 순수 속에서는 마음은 고요히 공(空)을 명상하고 있는 데 그것은 방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空이다. 잠에 빠져 들어갈 듯한 '공'은 아니다. 보고 듣는 마음은 분열되고 잘못 기능하고 있는 마음이다. 감각의 우세는 본래의 순수한 상태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지혜의 고요한 흐름을 혼란시키는 미혹적이고 그릇된 외관으로 그것을 덧칠한다.

감각이 우세한 활동들은 본능적인 충동들의 발산을 조장하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중심점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것들의 동요하게 하고, 본질적으로 불건전한 충동들을 매우 강화시킨다. 이 중심점이 제거되면 그 충동들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눈, 귀 등의 문을 열린 채로 내버려두면, 모든 종류의 불건전한 상태들이 수행자를 가득 채운다. 즉 뒤쫓아 와서 침몰시킨다.

'감각의 우세' 내적고요 방해
삼독심으로 사물 대하지 말라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할 때 감각적인 자극들이 드세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 그것들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나 감각적 자극들은 본래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어도,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도 없다. 그것들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염원하는 구제나 열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절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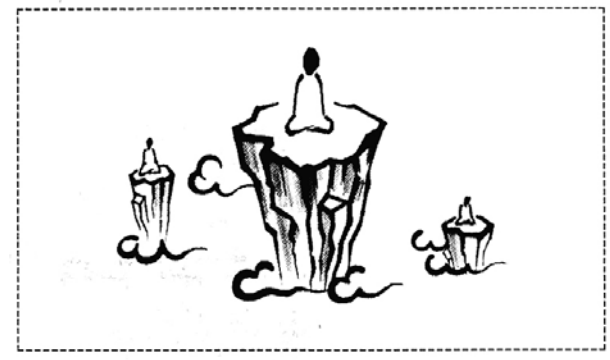
즉,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곧이곧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 그 역시 오로지 무상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실체가 없다. 위대한 명상가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계속해 정신집중을 하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마음챙김은 우리에게 '사물의 참주인'이라는 본래의 자리를 찾아준다.

불교의 수행은 많은 부분 본능의 희생을 요구한다. 마음챙김을 비롯해 다섯 가지 덕목들이 어느 정도 우리의 인격을 혁신시키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일상적인 견해로부터 영원히 물러날 수 있는 강인함을 갖지 못한다. 사물들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사물들 자체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 삼독심을 품고 사물을 대하는 습관으로부터 조금씩 물러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마음챙김의 덕에서 극단적인 치우침에서 벗어나 맑고 집착 없는 평상심의 상태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어느 한 부분이 또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 머피의 법칙



최악상황 일어날 확률 최선보다 100배나 높아

머피 환상은 아상에서 방심금물 늘 겸손해야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의 즉각적인 판단과는 달리 나쁜 방향으로 일어나면 머피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실제로 악마 같은 존재가 있어, 우리가 곤경에 빠지도록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쁜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즉각적인 판단이 잘 못된 것일까? 가정생활 속에 나타나는 머피의 법칙과 통계의 이야기를 해보자.

존 알렌 파울로스가 쓴 '숫자라는 것은(Once Upon a Number)'에서 하나의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은 20장의 (10쌍) 양말을 가지고 있었다. 각 쌍은 모두 모양이 달라 다른 쌍과는 섞일 수 없다. 그런데 그중 6장을 잃어버려 모두 14장이 남게 되었다. 남아있는 양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양말 쌍을 이루는 확률과 가장 적은 쌍을 이룰 확률 중 어느 것이 높을까? 다시 말해,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잃어버린 6장의 양말이 모두 쌍을 이루어 남아 있는 14장의 양말도 모두 쌍을 이루는 경우다. 즉, 온전한 7쌍의 양말을 얻는 경우이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나쁜 경우는 잃어버린 6장의 양말이 한 쌍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다. 짝 잃은 한 장의 양말은 쌍을 이룰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20장의 양말 중 12장이 짝을 잃는다. 겨우 4쌍만의 온전한 양말을 얻게 된다. 일어날 확률이 높은 쪽은 어느 쪽인가?

시뮬레이션이나 수학적 조합을 해보면 온전한 7쌍에 대한 확률은 0.003, 6쌍에 대한 확률은 0.130, 5쌍에 대한 확률은 0.520, 4쌍에 대한 확률은 0.347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바람직한 경우(짝 잃은 양말이 전혀 없어 7쌍의 양말을 얻는다) 보다 가장 나쁜 경우 (단지 4쌍의 온전한 양말과 6개의 짝 잃은 양말)가 일어날 확률이 무려 100배나 높다. 그러므로 적어도 위와 같은 양말의 경우, 우리가 맞게 되는 나쁜 상황이란 것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사건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것이다. 불행이나 사악한 존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경우의 머피의 법칙은 단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사건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아상을 강화하는 경향이 머피의 환상을 낳게 한다고 주장한다. 즉, 만약 세상이 나에게 피해를 줄려고 한다면 나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일 것이다 라는 잠재의식적인 추측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수학적 분석에서 우리는 다음을 배우게 된다.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한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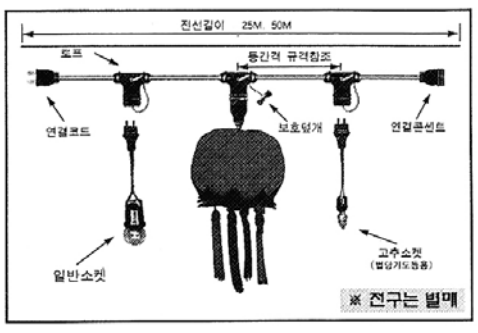
위의 경우 단지 6장의 양말을 파괴하니, 나머지 14장의 양말이 쌍을 이루는 확률이 쌍을 이루지 못할 확률보다 매우 작다는 것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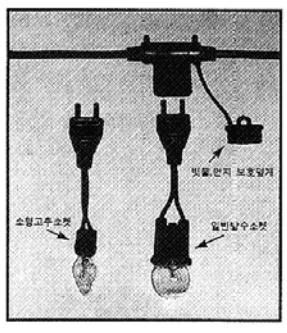
우리의 수행과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수행을 하는 과정은 면도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자칫 잘못하면 수천 길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 그런데 이 길은 수행을 하면 할 수록 더욱 길의 폭이 좁아져 한순간 방심한다거나 하면 떨어지고 만다.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해질 수록 적은 노력으로도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듯이 수행자들의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 수록 작은 방심이 수행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작은 아상도 그러하다. 그래서 항상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선사들이 말씀하였나 보다.

조원희(현대불교 전략정보실장)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 · 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 · 사찰 · 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 · 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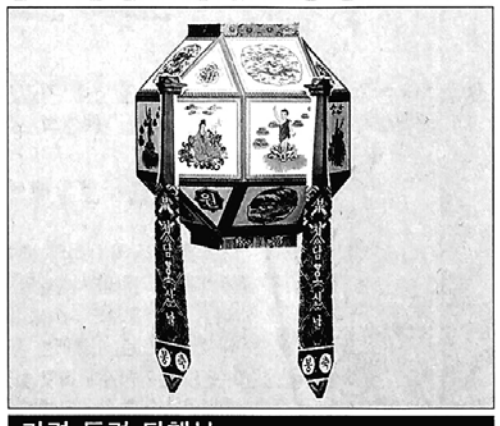
규 격
⊙ 등간격 : 30㎝, 50㎝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 원 기 업 代表 吳 大 權(光 明)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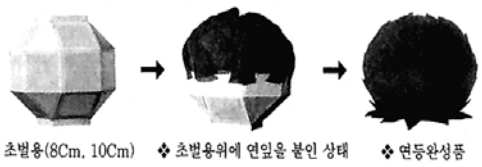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 · 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 휴대폰 : 011-833-8018
영 · 호 남 지 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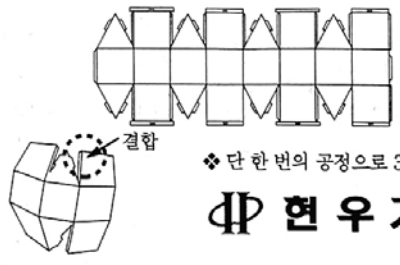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 우 기 획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金藥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일조량 풍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병원법당

환자-보호자-의사-간호사들의 귀의처

"마음 다스리면 병마 이겨요"

서울 가락동 국립경찰병원.

새벽 5시. 오늘도 어김없이 김봉현(서울 가락동)씨가 생수통을 어깨에 메고 법당으로 들어선다. 잠시 뒤엔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가 택시에서 청수를 가져와 부처님전에 올린다.

다기에 청수를 채우고 향 초에 불을 밝히자 병원법당에는 환자가족들이 10평 남짓한 법당을 가득 메운다. 이어 한마음봉사회(회장 변윤연) 회원 20여명이 들어서자 법당엔 활기가 넘친다. 예불을 마친 회원들은 경찰병원 경승실장 혜광스님(봉천동 참나선원장)의 상좌인 무관스님과 하루일정을 점검한다.

맨 먼저 시작하는 일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서를 대여해주는 일. 정진욱 총무의 진두지휘로 회원과 자원봉사학생들은 봉사복으로 갈아입고 법당 옆 4천여권이 소장된 책장으로 가서 환자들이 읽을 책을 엄선한 뒤 2대의 수레에 싣고 병실로 향한다.

"불교법당입니다. 책왔어요."

병실문을 열고 자원봉사자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 환자들은 침대위에서 내려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며 즐거워 한다. 하루에 대여되는 책은 1백50여권.

자원 봉사자들은 병실을 돌며 단주를 끼워주고 간단한 쾌유기도와 상담으로 병마의 시름을 덜어준다. 또 수술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도를 올린다.

경찰병원 736호. 조계종사태 당시 청사로 진입하다 고가사다리에서 추락해 중경상을 입은 경찰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실이다. 병실에는 입낙규팀장(36세) 김민영(26세) 신재경(28세)씨 등 3명의 경찰과 가족이



◇국립재활원 지도법사 정진스님이 봉사자들과 환자를 위문하며 쾌유와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병원법당 및 불자회 현황

법당 · 불자회	전화번호
국립의료원법당	(02)2265-9131
국립경찰병원법당	(02)430-2555
국립보훈병원법당	(02)2225-0361
국군통합병원법당	(02)651-0955
서울대병원법당	(02)760-3176
삼성의료원법당	(02)3410-2114
서울중앙병원법당	(02)2224-7892
동국대경주병원법당	(0561)770-8237
광주불교병원법당	(062)234-1511
영남대의료원법당	(053)620-4372
인천길병원법당	(032)460-3114
동아대의료원염불회	(051)240-2111
부산대병원법우회	(051)254-0171
부산백병원법우회	(051)894-3421
부산시립의료원불자회	(051)850-0243
일경의료재단의우회	(053)655-0300
동국대포항병원불교회	(0562)73-8111
경북대병원불교법우회	(053)420-5125



◇국립경찰병원 한마음봉사회원들이 간이독서대를 정리하고 있다.

도서대여-이 · 미용봉사-쾌유기도 '분주'
대형병원 60여곳중 12곳만 법당 갖춰
불자봉사회 병원마다 관심가져야

있다. 스님은 "몇번 병실앞까지 왔다가 되돌아 가곤 했다"며 "불교내부의 문제로 이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신재경 경장은 "종단이 정상화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봉사단은 1시간 반가량 책대여가 끝나면 하이제과(송파구 올림픽아파트 상가內)에서 보시한 잣구어낸 제과빵 1백여개를 병실마다 배달한다. 하이제과(02-403-4545)는 명절날도 꼬박꼬박 빵을 보내준다.

10시부터는 세면장에 차린 간이미용실에서 이미용봉사가 한창이다. 변상금(개봉동) 김현욱(신수동) 강유경(화곡동) 신윤선(목2동)보살은 전직 미용사들로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 9시까지 법당으로 출근하여 10시부터 5시까지 5백여 환자들의 머리를 책임져주고 있다.

봉사자들이 병원을 떠나면 4시부터 환자쾌유법회가 시작된다. 참가한 환자들은 한 손에 촛불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6시부터는 경전공부시간 환자들은 차례로 낮 동안 읽은 부처님 말씀을 발표한다.

밤이 깊어지자 환자가 잠든시간을 이용하여 보호자들이 밤새도록 법당에서 쾌유기도정진을 한다.

병원법당은 동체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도량이다.

병원법당은 86년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이 불교공부하며 환자들을 위해 법당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설립됐다.

'불자가 병든이를 보면 마땅히 부처님과 같이 공경할 것이니 팔복전(八福田) 가운데 병든이를 간호하는 것이 첫째가는 복전이다.(사분율)'

부처님께서는 병자를 간호하는 일이야 말로 최상의 공덕임을 말씀하셨다.

전국에 대형병원은 60여개에 이르지만 불교법당은 12곳에 불과하다. 매년 원력있는 스님과 병원직원불자회가 정진하여 어렵게 병원법당수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타종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병원법당을 지도하는 법사스님들은 95년 병원법당지도법사연합회를 만들어 2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병원불자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18곳. 법당이 없는 6곳의 병원에 법당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큰 숙제다. 한국전력공사 반야회는 올해 부속 한일병원에 불자회 설립을 서두르고 있기도 하다.



◇국립경찰병원 환자 쾌유법회 장면.

대한불교부인회(회장 구자순)는 매달 정기적으로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는등 신행을 실천하고 있다.

법당이 없는 중 · 소형 병원에도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방문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포교에는 환자들이 읽을 불서나 교계신문등 간행물을 보급하기 위한 법공양 운동의 전개가 아쉽다.

공공시설인 국립병원에도 불교법당은 5곳에 불과하다. 국립병원의 경우 관심 갖고 찾아가 사명감으로 희생 봉사해야 공간이 확보되는 데 이를 감수할 법사가 없다.

94년 비구니 지문스님은 8백40개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보훈병원에 견학 갔다가 그 자리에 터를 잡고 그해 7월16일 10평 공간에 법당을 마련했다. 그리고 직원불자회와 연대하여 도서대여 병실 쾌유 기도활동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갔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11월 27일 5주년을 맞아 69평의 대규모 법당을 마련해 부처님을 정안하는 결실을 거둬 병원법당 운영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사암과 불자들의 관심부족은 병원법당 신설과 운영에 적잖은 장애 요소다. 지나치리만큼 적극성을 보이는 타종교의 병원 전도활동으로 병원에서 개종하는 불자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불자들의 병원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지역 사암연합회나 신도조직이 병원측과 협의해 법당 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아직 병원 법당 운영에 대한 불교계의 노하우는 미숙한 단계지만 병원이 포교의 주요 거점이라는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글=길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아미타호스피스회에 소속한 자원봉사자가 청주 하나병원에서 임종간호하는 장면.

아미타호스피스회
임종간호 전국화

교계 유일의 호스피스 전문 교육·봉사단체로서 충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아미타호스피스회(회장 여현정법사)가 최근 전국 단위로 활동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조계종 충북 불교자원봉사 교육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同회는 임종 환자들이 타종교 자원봉사자들의 간호를 받고 임종직전에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개종하는 사례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 호스피스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위탁교육 및 봉사단 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 · 청원지역서 160여명 활동중

올부터 전국사찰 봉사단 구성 지원

지난 97년 4월 출범한 아미타호스피스회는 그간 6회의 호스피스 케어 교육을 통해 2백20명의 수료생을 배출, 이중 1백60여명이 청주 · 청원지역 병원에서 활발한 임종간호 활동을 펼쳐 불교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발돋움했다.

여현정 법사는 "상당수의 불자 임종환자들이 타종교의 호스피스 봉사자들로부터 간호를 받고 개종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안락한 마음으로 극락왕생 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포교차원에서 불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미타호스피스회는 '불교 임종의 집'을 추진하는 한편 〈불교 호스피스 교육자료집〉과 신행수기집 〈아름다운 임종〉의 발간을 준비중이며, 제7기(3월10일~4월22일)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0431)254-2258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피할 수 없는 죽음' 상징



◇〈불설비유경〉의 내용을 그린 해인사 벽화.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27

뱀

"옛날 어떤 사람이 황량한 벌판에서 미친 코끼리에 쫓기다 우물을 발견하고 등나무 넝쿨을 타고 우물속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는 독사들이 입을 날름거리고 있었다. 다시 오르려 했지만 들판에는 맹렬하게 불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간신히 넝쿨에만 몸을 의지할 뿐이었다. 이 때 어디선가 흰 쥐 한마리와 검은 쥐 한마리가 나타나 넝쿨을 갉기 시작했다. 절대절명의 위험한 지경인데 마침 머리위의 벌집에서 꿀이 떨어져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모든 위험을 잊고 꿀의 달콤한 맛에 정신없이 도취되었다."

〈불설비유경〉에 나오는 인간 삶의 비유이다. 여기서 황량한 벌판은 무명장야, 코끼리는 무상, 우물은 생사(生死), 넝쿨은 생명줄,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 들불은 늙고 병듦, 꿀은 오욕(五欲)을 나타낸다. 왼쪽 벽화는 허망하고 짧은 생을 사는 인간이 오욕에 취해 무명속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여기서 독사 즉 뱀은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구약성서에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를 간계로써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동물 뱀이 나온다. 선악과를 따먹기전에는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던 인간이 뱀의 유혹에 따라 타락과 원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오른쪽 그림은 그러한 내용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이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미켈란젤로 作 '원죄와 낙원 추방(부분)', 1508~12년 바티칸 시스티나성당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⑧

6. 진심이 범부 속에 있을 때(眞心在迷)

或曰眞心體用 人人具有
혹왈진심체용 인인구유
何爲聖凡不同耶
하위성범부등야
曰眞心 聖凡本同 凡夫妄心認物
왈진심 성범본동 범부망심인물
失自淨性 爲此所隔 所以眞心
실자정성 위차소격 소이진심
不得現前 但如暗中樹影
부득현전 단여암중수영
地下流泉 有而不識耳
지하유천 유이불식이

물었다.

"진심의 본체와 작용이 사람마다 다 갖추어져 있는데 어째서 성인과 범부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까."

대답했다.

"진심은 성인과 범인이 원래 같지마는, 범부는 망령된 마음으로 사물을 인식함으로써 깨끗한 자기의 성품을 잃어서 먼 거리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때문에 진심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단지 어둠 속의 나무 그림자나 지하에서 흐르는 물처럼 있게 되어 알지 못할 뿐이다.

故經云 善男子 譬如淸淨摩尼寶珠
고경운 선남자 비여청정마니보주
映於五色 隨方各現 諸愚痴者
영어오색 수방각현 제우치자
見彼摩尼 實有五色 善男子 圓覺淨
견피마니 실유오색 선남자 원각정
性 現於身心 隨類各應 彼愚痴者
성 현어신심 수류각응 피우치자
說淨圓覺 實有如是
설정원각 실유여시
身心自性 亦復如是
신심자성 역부여시

그러므로 경에도 '선남자야 비유하자면, 청정한 마니보주에 오색이 비치어 각 방향에 따라 나타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구슬에 실제로 다섯 빛깔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이, 선남자여 원각의 깨끗한 성품이 몸과 마음에 나타나 (사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응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깨끗한 원각에 실제로 그처럼 몸과 마음에 자성(自性)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치이다.' 하였다.

범부는 망령된 생각에 덮였기 때문에
번뇌에 가려 청정한 본성 깨닫지 못해

故知眞心 雖在塵勞 不爲塵勞所染
고지진심 수재진로 불위진로소염
如白玉投泥 其色不改也
여백옥투니 기색불개야

또 〈조론〉에 '이 천지와 우주 가운데 하나의 보배가 있는데 형산(形山: 육신의 비유)에 숨어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범부 안에 있는 진심이요, 또 자은 스님은 '법신은 본래부터 있어서 모든 부처가 공통으로 가졌건만 범부는 망령된 생각에 덮였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번뇌에 싸여 있으므로 여래장(번뇌에 덮여 있는 청정한 본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였다.

또 배공(당나라 때 대학자인 裵休)은 '종일토록 깨달음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범부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알라. 진심이 비록 번뇌 속에 있으나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마치 백옥이 진흙 속에 던져졌으나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김원각〈시인〉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밭 가꾸고 살면

동선스님 〈장성 용수사 주석〉



약력
- 1915년 전라북도 순창 生
- 32년 백양사 연봉스님을 은사로 출가
- 37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대교과 졸업
- 40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정진
- 영천 은해사 주지 2차례 역임
- 대전사 죽림사 도갑사 보림사 주지 역임
-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역임
- 현재 장성 용수사에 주석

'내 마음을 남의 마음에 맞추면 세상이 편하다' 한암스님 말씀 평생 간직하며 살고있어요

법조계 비리와 관련해서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오랫동안 곪아 있던 상처가 드러난 결과니 이제는 치료를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사찰의 토지와 관련해 여러차례 법정소송을 했고 그때마다 관검사, 변호사를 만났지만 옛날에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6·25 직후 내가 은해사 주지로 가게 되었는데 은해사 산과 땅이 다 남에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김혜윤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노리고 교육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토지 15만평 하고 산 950정을 재단으로 희사해서 혜성재단이라고 꾸며서 학교인가를 받았어요. 학교법인 이사장을 주지로 하고 김혜윤은 학교 교장이 되어 운영하며 절재산을 마음대로 하니 결국 시비를 가리는 싸움이 되고 15만평 되는 토지를 팔자는 결론이 났어요.

학교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해사 땅이니 은해사만 난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은해사 재산 싸움이 한창일 때 내가 은해사 주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과 이미 계약이 된 상태고 계약금을 다 받았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있더라구요. 나중에는 은해사 산림을 차압당하고 경매까지 가서 산이 열일곱사람에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의를 걸어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져버렸습니다. 나중에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대법원 황부장 판사라는 이를 찾아가서 울었습니다.

"스님들 수행하는 절이 11개나 되는데 다 헐릴 위기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이를 붙들고 울었죠. 황부장 판사가 보다 보다 딱하니까 7일만 있다 오라면서 참고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7일뒤에 가서 찾아낸 묘안이 주지가 사찰땅을 마음대로 재단에 준 것이 불법이고 총무원장이 허가를 한 것이 불법이고 문교부에서 허가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천년고찰이고 문화재가 있는 사찰을 어떻게 주지 마음대로 타인에게 증여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찰땅에 대한 증여무효소송을 하게 되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산을 샀던 열명이 넘는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그들이 애초에 산을 살때는 다 현금을 주고 샀는데 재판에서 졌으니 한푼도 못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겨 천년고찰인 수행도량을 지키게는 되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계속 있을수가 없더군요. 법으로 은해사 토지는 한평도 안뺏기고 북구가 다 되었으니 다른 절의 스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주지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을 해서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선본사나 제주도 원명사등 법적 소송을 담당한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도량을 지키는 일이라면 몸아끼지 않고 찾아 다녔지요. 그때 어떤 스님이 "은해사 재판은 어차피 지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좇아 다니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당신이 스님입니까? 나는 죽을 때 까지 싸울겁니다. 만일 소송에서 지면 절 11개가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은해사 재판을 위해서 영천군 군민중 4만5천 세대의 세대주 서명을 다 받아 냈어요. 말이 4만5천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할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한가지 바른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가 법을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승소할수 있었던 것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면 반드시 추진했고 바른 마음과 옳은 일을 위해 온 정성을 다했기에 성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판사나 변호사들은 아주 정직하고 맑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와 일하던 변호사는 착수금 한 번 받아 간 적 없고 대법관에게 병풍을 만들어 보냈는데 당장 돌려 보내더군요. 그만큼 법조계의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들 많이 하지만 내가 처음 백양사로 출가할 당시는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어려웠지요.

열일곱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까지 국문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나 가난하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월달에 백양사에 계시는 연봉스님께 세배를 갔습니다. 세배를 드리고 나니 스님께서 "너 중노릇 안할테냐?" 하시길래 "공부 시켜주면 하지요"했습니다. 그랬더니 "절에 있으면 저절로 공부할 것 아니냐"하더군요.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직 바르게 살아라" 하시던 연봉스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 시주물이 없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스님들이 공부하고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대단했습니다. 어디에 선지식들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찾아가서 배우고 정진했습니다. 나도 백양사에서 대교과를 공부 하던중에 원주소임이라든가 하는 사중일이 많아서 계속 있다가는 공부를 더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더라구요. 그래서 서울 대원암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한영스님을 찾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의 학인들이 공부를 하러 올 때 자기들 먹을 식량을 가지고 와야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학비도 식량도 없었지만 막무가내로 배우고 싶다고 떼를 쓰니 딱했는지 금강산 유점사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이종익 박사에게 소개편지를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타고 단발령 고개를 넘어 장안사까지 갔습니다. 마침 8월 보름이라 신장불공을 드리고 대중공양을 하는데 백양사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가난해서 학인들이 굶기도 하는 백양사와는 달리 금강산은 아주 큰 부자집 이었습니

우수통화품질 입증기념 "016 Free & Free 대축제"

「으뜸 통화품질 챌린지」 및 언론을 통해 통화품질을 입증받은 정보전화 016 - 추천한 고객과 추천받은 고객에게 총 1,000 분의 무료통화를 드립니다.
또한 신용카드요금납부 등의 조건으로 신규가입하시면, 최신 PCS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별한 016의 Free & Free 행운 - 놓치지 마세요!

free 1 언론이 인정한 016의 통화품질- 최대1,000분 무료통화 대축제

■행사기간 : 1999년 1월 22일~ 2월 20일(추천은 2월 19일까지만 가능)

■행사대상
·추천고객-1999년 1월 21일 현재, 정보전화 016고객 (사용정지중인 고객 제외)
·추천대상고객-추천고객으로부터 가입추천을 받아 행사기간중 신입가입한 고객 (중고단말기, 프리폰/렌탈폰 가입고객 제외)

■행사내용
·추천받은 신규고객이 행사기간내에 정보전화 016에 신규가입한 경우 무료통화 160분 추천고객께는 신규고객 1명당 무료통화 100분씩 (최대200분)을 드립니다.(5명까지 추천가능)
·추천받은 고객은 추천일 다음날로부터 행사종료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무료통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당일 가입시 무료통화 혜택 없음)
·신규가입하시기 전에 본인이 추천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신규가입 직후 무료통화혜택이 부여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추천/추천여부확인 : 02)3402-0500 또는 한국통신프리텔 전국 대리점
추천기간 : 09:00- 22:00 공휴일도 가능)
·이미 정보전화 016에 가입한 고객끼리의 추천은 행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ree 2 최신 PCS폰을 패키지로 제공

행사기간 내 아래의 3가지 조건으로 가입하시면,
최신 PCS를 패키지로 드립니다.

■행사기간 : 1999년 2월 1일-2월28일

■가입조건 : ·요금납부방법 : 신용카드 또는 KT합신창구
·요금서비스 :프리2000이상 (프리300, 프리400포함)
·정보서비스 : 1개이상 가입
※개통일로부터 6개월간 명의변경 및 일시정지 금지
(최신PCS 제공행사문의 : 080-016-0000 또는 한국통신프리텔 전국대리점)

■제공용 PCS폰



SPH-4700 (삼성애니콜) / LPG-6200 (LG싸이언) / HGP-7000K (8만원 가입자 부담) (현대걸리버폴더) / G2-F31/33 (한화G2)

free 3 졸업 입학생에게 160분 무료통화를- '99 새내기 대축제

■행사기간 : 1999년 1 월 22일-2월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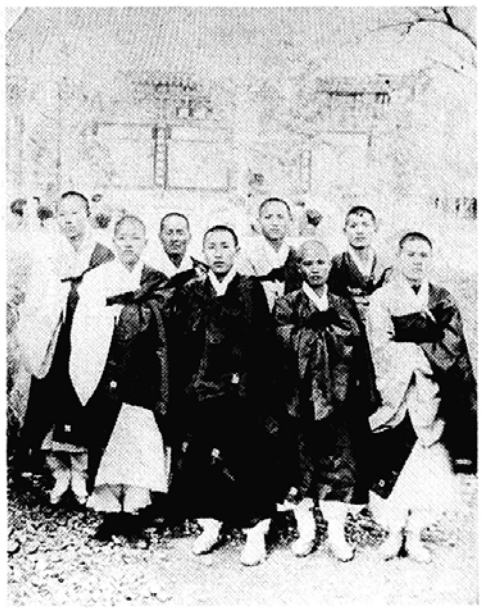
■행사내용 : ·졸업장, 학생증, 대학입학 접수증, 수능시험수험표중 하나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행사 내용중 1,000분 무료통화 대축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무료통화 혜택을 드립니다.
·단, 무료통화는 1,000분 무료통화 혜택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서울 : 02)732-1522, 737-8881로 전화주시면
▶신분확인후 즉시 개통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됩니다.

전화 : 02) 732-1522, 737-8881
팩스 : 02) 737-0697
우편번호 110-170
주소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PCS 016 담당자앞

큰스님 수행한담

언제나 좋은 열매 맺어요"



◇동선스님이 스무살 때 장성 백양사서 건당식 후 찍은 사진. 뒷줄 오른쪽 끝이 동선스님.

천상천하가 다 부처님세상
바늘하나 찌를 곳 없이 전부 佛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다. 저녁 공양을 하는데 과일, 음식등을 굉장히 많이 주더군요. 거기서 하루 자고 그 이튿날 유점사를 가다가 마하연을 들렀습니다. 마하연에 가니 수좌들이 메밀국수를 해서 점심공양을 한다고 40~50명이 모여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일출봉, 월출봉을 지나가는데 금강산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인간이 아니고 신선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산이 바닷물같은 구름속에서 뾰족 뾰족 솟아있고 바위들이 거울처럼 빛나더군요. 그렇게 구경을 하면서 유점사에 갔습니다.

이종익박사한테 가서 한영스님 추천서를 드렸더니 여기서는 글만 가르칠 뿐 학생들 받고 하는 권한은 없다고 하시면서 종무소로 가서 내 사정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점사에는 재적승려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청소도 하고 새벽예불도 모시고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점사에서 월하스님과 경산스님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두분은 사집과를 공부하고 나는 대교과를 공부했습니다. 2년 정도 머무르면서 공부하고 거기서 대교과를 졸업후 오대산 한암스님 회상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중견 청년들을 수련하는 수련소가 있었어요. 탄허스님이 강의를 하시고 한암스님께서는 화엄론을 가르치셨습니다. 화엄론을 죽 읽으시다가 질문을 하고 하시면서 직접 지도를 하셨지요. 보조스님의 수심결, 진심직설 등도 배웠습니다. 이 수련과정은 청년들의 심전 계발을 위한 것인데 악한 마음을 먹지말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국민들을 교육하도록 수련생들이 마을에 가서 활동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당시 서옹스님은 선방 수좌로 와 있으면서 강의를 같이 들었습니다. 일체의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비 수련생인 셈이었지요.

이런 제도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국민들 마음밭을 풍성히 계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항상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무관심하면 탐진치 삼독이 독버섯처럼 자라 흐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한암스님께 받았던 교화를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암스님께서는 항상 "네 마음이 네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다. 남의 마음이 네 마음이 아닌데 남의 마음을 네 마음 쓰듯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 항상 남의 마음을 맞춰주면 세상이 편하다. 아버지는 자식의 마음에 맞추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에 맞추고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에,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맞추면 세상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나라는 아상을 없애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남의 마음에 맞추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살다보면 시비거리가 사라지게 되고 늘 세상이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백양사와 유점사를 왔다 갔다 하며 아주 어렵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4차 정화불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암스님께서 대처승은 호법승, 비구승은 정법승이라 해서 '고불총림'이라는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대처한 이들은 사중을 보호하고 정법승은 수도에 전념하라는 것인데 대처승은 수도승을 받들고 경배하면서 살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고불총림이라는 규약에 보면 호법승은 정법승 자리에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양사 법당에 호법승석, 정법승석 자리가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비구승단으로 들어가 일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월주스님과 함께 전라남도를 다니면서 정화를 하게 되었지요. 그당시에는 대처승이 사찰주지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구승들이 걸망을 짊어지고 공부하러 절에 가면 푸대접을 하니 수좌들이 분심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서옹스님이 대흥사 주지로 있을 때 내가 총무로 가서 그곳 정화를 하고 대흥사 말사인 도갑사도 정화를 했습니다. 정화를 하고 다니다 보면 사적인 욕심으로 나를 음해하기도 하고 고생이 많았지만 오로지 부처님정법 이어 가겠다는 마음 하나로 지내왔습니다.

정화불사 중 보림사에 갔을때는 누가 나를 모함해 반공법위반으로 100일동안 유치장 신세를 졌습니다 비록 공산당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지만 부처님 제자라는 신분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검사가 "스님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하더군요. 그때 마지막 관결을 앞두고 할말이 없느냐고 묻길래 "나는 나를 고발한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공산당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몰랐다가 그 사람이 고발함으로써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은해사 주지를 하다 말고 그렇게 되었는데 징역살이를 하다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주지소임을 못하잖아요. 신도들이 찾아 와서 주지소임을 내놓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런 말 하지도 말아라. 나는 지금 주지도 아니고 임시로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주지 할 사람이 왔으니 당연히 내놓아야지. 한번 법을 안 자키면 백가지 천가지 불법이 생기는 법이니 안된다"고 하면서 떠나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 온 주지가 사중 재산을 다 팔아 먹고 해서 신도들이 그 주지를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모든 일이 정법으로 가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유마경〉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흙을 의지하여 먹고 살기 때문에 흙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몸과 내가 둘이 아니니 흙이 곧 나요, 내가 곧 흙이라는 뜻이죠. 흙이 곧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또 〈유마경〉에는 '신수불이(身水不二)'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니 그러므로 물을 사랑하라. 신공불이 즉 공기와 내가 둘이 아니니 공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야심경〉에도 있듯이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다. 즉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경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불이법문품이 있습니다. 불이법문품에 가면 지수화풍에 대해 말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불(火)이 어째서 너냐? 철학적인 불교의 깊은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火)이 어디에 있냐? 불이 이것입니다. (주먹을 내밀며) 주먹이 곧 불입니다.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자리가 불입니다. 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늘하나 찌를 것이 없이 전부 불입니다. 사람몸이 전부가 불덩어리입니다. 전자, 원자, 수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니 불이 곧 나요, 내가 곧 불입니다.

그러면 부처님(佛)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곧 부처님입니다. (역시 주먹을 내밀며)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불과 내가 둘이 아니고 바람과 내가 둘이 아니고 공기와 내가 둘이 아닌 진리를 꼭 체득했으면 합니다. 진정한 신토불이, 신수불이, 신화(火)불이, 신공불이, 신불(佛)불이를 실천하고 산다면 우리 모두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방일하면 탐·진·치 독버섯처럼 자라
착한마음을 악한 쪽으로 기울게 해요"

나의 수행일기



조현춘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

동사섭수련 통해 학문적 갈등 극복
불교공부는 '생명의 빛' 찾는 희열

나는 내가 정말 잘 났다고 생각해 왔다. 초등학교시절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효자였고, 중학교 시절에는 편도 14킬로미터, 왕복 28킬로미터를 구보로 힘들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언제나 일등을 놓치지 않아 방송에서 천재소년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대학원 심리학과를 졸업한 나는 정말 내가 잘 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강아지 정도의 지능을 가진 청년의 해맑은 얼굴을 만나면서, 오만과 편견, 힘겨움과 짜증, 분노까지 깃들어 있는 내얼굴을 자각하게 됐다. 나는 그 청년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어쩌란 말이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쩌란 말이냐.

인간적 갈등 뿐만 아니라 학문적 갈등도 컸다.

교수가 된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되돌아본 나는 동양정신을 통합하기는 커녕 서양심리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었다. 한계를 느낀 나는 심리학 교수를 그만두고 차라리 막노동을 하는 것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용타스님이 지도하는 5박6일의 동사섭법회에 참석하게 됐다. 동사섭법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백천만억 나유타배 두꺼운 나의 업장이 무너지고 찢어졌다. 나의 업장은 너무 두꺼워 소멸시키거나 녹일 수는 없었고, 단지 깰 수 밖에 없었다.

깨어진 업장의 파편에 피를 흘려야 했고, 피흘림이 너무 아파 지리산 골짜기 백장암을 무던히도 올랐다. 그러나 깨어짐의 후련함, 찢어짐의 평화로움, 처절한 고통속에서 환희심이 돋았고 그 피어난 희열은 나를 절망에서 구하였다.

나는 다시 심리학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동사섭에서 얻은 기운으로 서양상담심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양정신이라는 내용을 서양과학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를 행복훈련이라는 구체적 심리상담기법으로 발전시켰다.

첫 행복훈련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갔다. 전원이 '자신이 살아있는 부처'임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행복훈련의 감격은 오래 지속되었으나 나 혼자만의 보물 단지에 불과했다.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정말 감격스러운, 평생동안 처음겪는 경험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한번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다. 내가 안내하는 극락세계는 꿈처럼, 바람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일순간만 보였다가 사라지는 환각의 나라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다시 외로워지고 마음이 황량해 졌다. 그럴때 임영환 후배로부터 김재웅법사님과 법사님의 책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을 소개 받았다. 나는 법사님에게서, 금강경독송회에서, 법사님의 책에서 빛을 보았다. 그 빛은 행복훈련에서 잠시동안 강력하게 발산되었던 바로 그 빛이었다. 나와 모든 생명이 함께 하는 빛, 바로 생명의 빛이었다.

하루에 〈금강경〉을 7시간, 8시간씩 읽으면서 〈금강경〉의 의미를 새기던 어느날 나도 〈금강경〉으로 수행 좀 해보자 는 마음이 일어났고, 수행차원에서 보다 진지하게 〈금강경〉을 독송했다.

〈금강경〉을 독송하다보니 근원도 알 수 없는 나 자신의 저 깊고 깊은 곳에서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가 한방울의 물이라면, 그 빛의 크기는 바다보다도 더 컸다. 수백번을 독송하는 동안 〈금강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청소시키고 정화시켜 주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이제서야 만난 것이 정말 억울했지만, 그렇게라도 만난 것이 다행스러울 뿐이었다. 〈계속〉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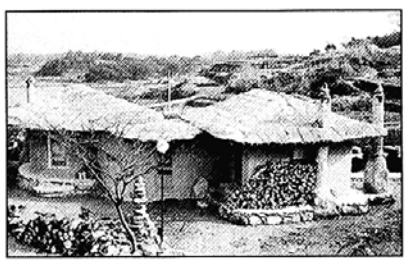
현 대 불 교
지사 · 지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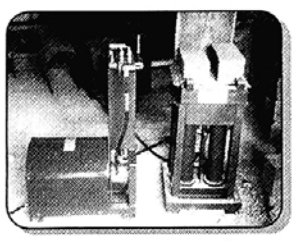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황토 흙벽돌 기계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634-1237

第8回 行願文化賞 公告
- 受賞候補者 推薦 依賴 -

本 財團에서는 每年 佛敎 文化 發展을 위하여 훌륭한 業績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褒賞하고 있사오니 다음 要領에 따라 많이 薦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施賞 部門

文化賞區分	對 象	人 員	賞金 內容
譯 經 賞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한 분	1명	賞金 300만원
文 化 賞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시, 소설, 극문학(희곡,방송극, 시나리오등)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분	1명	賞金 300만원
藝 術 賞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 (서화부문 제외)	1명	賞金 300만원
大衆藝術賞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홍보하고 대중문화(포교)에 이바지 한 분	1명	賞金 300만원

2. 具備 書類 : ① 推薦書 (指定樣式) · · · · · · · · · · · · · · · · · · 1 通
② 功績書 (具體的 內容) · · · · · · · · · · · · · · · · · · 1 通
③ 履歷書 (名啣判寫眞 3장) · · · · · · · · · · · · · · · · · · 1 通
④ 功績證憑資料(最近 2年이내 實績物) · · · · · · · · · · · · · · · · · · 1 通

3. 推薦 마감 : 1999年 6月 30日

4. 審査및 發表 : 本 財團에서는 委囑한 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受賞者에게 個別通知 및 佛敎關係 新聞 發表

5. 施 賞 日 : 1999年 9月29日 수요일

※ 其他 자세한 事項은 本 財團 事務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 중앙승가대학 기획실
· 전화: 926-4377(교환 302) · FAX : 921-9721 · 우편번호 136-075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깨달음과 미망세계 잇는 이중적 공간예술

해인사 국사단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건축학〉

가람의 장면들 ②

안도 밖도 아닌 경계에 세워 교리 상충 건물 절묘히 해결

불리한 지형 슬기롭게 활용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어서 법보사찰로 숭앙받고, 최근 입멸한 성철스님의 사리탑으로도 유명해진 해인사는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없다. 유구한 역사와 유명도에 더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까지 되었으니 금상첨화격이다.

국내 사찰로 문화유산이 되기에는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뿐이니 한국의 사찰건축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경관을 500년 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경관전의 과학적 설계나 그 앞의 기다란 마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없이 우리 건축술이 성취한 위대한 결실이다.

〈화엄경〉에는 '해인삼매(海印三昧)'라는 말이 나온다.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지면 삼라만상이 모두 바닷물에 비치는 것 같이 온갖 번뇌가 끊어진 고요한 상태를 일컫는다. 해인사를 건축했던 이들은 이러한 삼매의 장소를 만들려고 했다. 해인사 앞 산에 올라 가람을 쳐다보면 험준한 가야산 속에 밝고 고요한 터에 해인사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가야산의 울창한 수풀은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고 해인사의 가람은 그 바다 가운데 고요한 섬과 같고, 또는 한송이 연꽃과도 같다. 화엄의 세계, 연화장 세계가 바로 이를 말함이 아닌가.

그만큼 해인사의 건축은 불리한 자연지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이 점이 해인사의 가장 뛰어난 건축적 가치다. 다시 말해 해인사를 해인사답게 만든 것은 땅의 모습을 이용한 탁월한 지혜였다.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일주문의 기다란 진입로부터 일주문-봉황문-해탈문-구광루 등 여러 단계의 입구들을 지나면서 만나는 의외의 장면들은 모두 특별한 방법으로 땅을 이용하면서 생겨난 모습들이다.

그 가운데 봉황문과 해탈문 사이의 공간에서 발길을 멈추자. 이곳은 단순히 본다면 봉황문에서 위의 해탈문으로 가기 위한 계단들로 가득한 통과 장소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국사단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작은 건물이 앉아 있다. 아래 봉황문은 동쪽에 있고, 위의 해탈문은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계단도 서쪽으로 꺾어져 있다. 국사단은 동쪽의 빈틈에 자리잡았다. 따라서 봉황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의 국사단이 마치 정면에 있는 것같이 보이고, 왼쪽으로 꺾여 올라가는 계단 위로 기다란 해탈문이 균형을 이룬다. 이 하나의 공간적 장면은 고작적인 조형미학에서 말하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균형과 조화, 정적과 역동성, 비대칭적 대칭성 등.

미학적 수사보다도 흥미를 끄는 것은 국사단의 위치와 성격이다. 가야산에는 산신이 있고 해인사 가람 터에는 이 터의 형국(形局)을 주관하는 토지신이 있다. 국사단(局司壇)이란 이 토지신을 위해 마련한 건물이다. 가람을 수호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국사신앙은 불교의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한국 전래의 토속신앙의 대상이다. 그래서 건물의 명칭도 전(殿)이나 각(閣)이 아니라 단(壇)이다. 이 건물은 도저히 불교의 성스런 가람 안에 둘 수 없는 건물이다. 그러나 가람건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무시할 수도 없다.

넣을 수도 뺄 수도 없는 성격의 건물을 봉황문과 해탈문의 사이, 본격적인 불국토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경계에 위치시킴으로써 절묘한 해법을 개발했다.

교리적으로 사천왕상이 있는 봉황문은 아직 신중(神衆)들의 미망의 세계이고, 해탈문 이상이 깨달음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불국토인 연화장 세계는 해탈문부터라 할 수 있지만 봉황문부터 이미 가람은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이는 가람의 내부일 수도 있고 바깥일 수도 있는 공간적 경계다. 국사단이 위치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위치다.

봉황문을 들어서면 국사단의 정면은 뚜렷하게 부각되어 다가온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왼쪽 위로 계단이 이어지면 그 위의 해탈문이 말없이 서 있다. 어서 올라오라고 권하는 자세로.

국사단은 중요한 건물이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건물이기도 하다. 봉황문과 해탈문 사이의 이 공간은 국사단의 이중적 성격을 대변하듯 지형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중적인 경계의 공간이다.



◇해인사 봉황문과 해탈문의 사이에 위치한 국사단은 미망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이어주는 이중적인 경계의 공간이다.



성·동·석·재·불·사·공·예·사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작품으로
모시는 것이
불교석재조각의 대가
성동석재불사공예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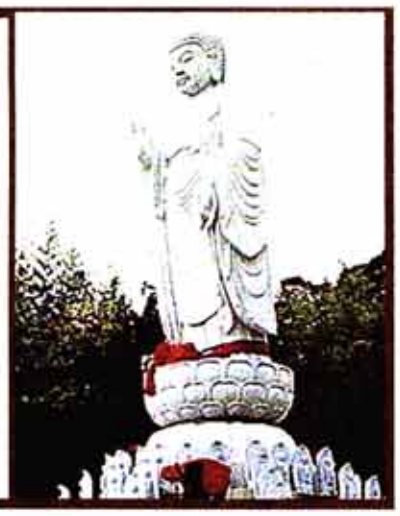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 성 수 합장

■전화: 0357)531-8736 ■팩 스: 0357)531-5549
■호출: 012)321-6044 ■핸드폰: 011)284-5101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보관, 환경을 생각하는 [illegible]
- 정성을 다해 제작한 이 연등을 삼보전에 올립니다 -

봉축 장엄 팔각등



만다라 장엄 팔각등



연등 남품시



연등 보관시



함석관으로 제작된 촛대,등걸이 드립니다.

주문방법 : 전화, 팩스, 인터넷 주문
납품방법 : 신청장소로 직배, 택배 발송
의 장 등 록 : 98-27738
실용신안등록 : 98-23124

주문 전화 : 02-732-1522 / 737- 8881(대표)
주문 팩스 : 02-737-0697
인터넷 주문 : (http://mall.buddhapia.co.kr)

장엄팔각등이 좋은 이유 10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1. 운반, 사용, 보관이 간편합니다.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한 번의 공정으로 사용이 가능하며(조립30초) 필요하신 모든 곳에 바로 설치할 수 있게 제작 되었습니다.사용후 연등을 분해(분해시간10초) 하시면 펼친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됩니다.
2. 색상이 선명합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과 고전적 단청 문양을 첨가한 장엄 팔각등은 완벽한 인쇄 처리를 통하여 기존등과는 차별되는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색이 없어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세척하면 새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사용이 오래 된 경우 분해하여 세척한 후 조립하면 새 것처럼 깨끗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용기간이 깁니다.
분해 조립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장소 기간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어 사용기간이 길어집니다. (4-5년)
5. 환경을 고려한 재생용 등입니다.
PP로 제작하여 재활용이 되므로 환경 침해가 없습니다. 오랜 사용으로 파손된 경우 분해하여 모아두면 용해후 재활용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변환경에 전혀 부담을 주지않습니다.
6. 눈, 비, 거센 바람에도 파손 변형되지 않습니다.
7. 야간 점등후의 모습은 더욱 화려합니다.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8. 평상시 사찰 장엄용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9. 별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500등 이상 주문 시 사찰명을 인쇄해 드립니다. 3천등 주문 시 원하시는 디자인을 제작해 드립니다.
10 디자인 변경이 용이합니다.
3천등 이상 주문 시 원하는 디자인을 제작해 드립니다.

우리모두 부처님 오신길을 깨끗이 합시다. 집안과 내집앞길을 깨끗이 하고 도로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이는 대로 치웁시다. 그래서 부처님 오시는 발걸음을 산뜻하게 해드립시다.
만 중생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연등부처님 계세시에 흙탕길을 긴 머리카락을 깔아 연등부처님께 공경을 표했습니다. 우리모두는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부디피아 http://mall.buddhapia.co.kr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으로 통신돼야 묵은 빚도 갚아

뜻으로 주인공 관해도 됩니까

문 오래전부터 궁금한 사항인데 저는 "주인공!"하고 관할 때 글자로써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하며 관해왔습니다.

마음공부는
머리로 하는게 아니라
사무치는 마음으로
주인空에
놓고 맡겨야 해요

그런데 가슴으로 마음속 깊이, 간절히 일체의 근본인 주인공을 부르기 보다는 저의 경우는 고정되지 않은 당신 또는 주인, 일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 또는 원리 하는 식으로 다소 편한 마음으로, 어쩌면 머리로써, 깊이가 없어 보이는 느낌으로 주인공의 뜻을 생각하며 관해왔습니다.

이런 질문자체가 나누기 좋아하는 저의 분별심인지, 공부를 잘 못하고 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받고 싶고, 잘못되었으면 올바른 길로 채찍하여 주십시오.

답 주인공을 자기의 근본이라 해도 좋고 참자기라 해도 좋고 진여라 불러도 좋습니다. 이름이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주인공'도 이름이긴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이름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이라는데 뭘' 하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밥 먹고 똥누고 잠자고, 보고 듣고 말하는 걸 누가 있어서 하는가 곰곰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는가 할 때에 선뜻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한다 해도 느끼고는 계시겠지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발견하기 까지는 그 자리를 주인공이라 이름 붙여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몽땅 놓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놓고 맡기라니까 어디 따로 놓을 데가 있고 맡길 데가 있어서 그러느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놓고 맡기라는 건 잘못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더군요.

그런데 이 공부는 한마디로 말해 내가 죽어 나를 발견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면 먼저 나부터 쑥 빠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내가 쑥 빠지려니까 빌 공(空)자 주인공에 놓고 맡겨야 내가 빠져도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건성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 해서 익어가는 게 아니며 그야말로 사무치는 마음으로 놓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참작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업 부도나 걱정입니다

문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엄마따라 선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별일없이 잘 지내왔는데 아빠사업이 부도도 나고 아빠의 내연 관계가 너무 많고 엄마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다못해 이렇게 스님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쭙니다. 아빠는 회사도 운영하고 싶지 않다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집과 의류제조업을 하는 공장인데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데 집도 쉽게 팔리지 않고, 집 담보로 은행 융자가 너무 많아 이자내기가 너무 힘이 드셔서 집을 팔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어머니께서 걱정이십니다.

스님 저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한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 어린 마음이 무척 갸륵하군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건 늙고 젊고가 따로 없어서 어리든 나이를 먹었든 다 같은 마음입니다. 참자기의 마음은 말입니다. 그러니 몸뚱이가 어리다고 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요. 엄마 아빠와 함께 여길 다니고 있다니 열심히 주인공을 믿고 놓고 관하도록 하세요. 일이 잘되고 안되는 것까지도 다 놓고 말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주인공이 우리 가족을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면서, 되는 것도 주인공 당신만이! 안되는 것도 주인공 당신의 몫이니 알아서 하시오!하고 놓으세요.



그림 · 최주현

이 공부는 내가 죽어 나를 발견하는 공부
흔들리지 않으면 법계가 다 호응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법계가 다 호응을 할 겁니다.

경전 해석 달라 파벌 우려

문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그간 아내의 권유로 6개월여 일요법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두 자녀도 어린이 법회에 동참시키고 있고 현재 조계종 포교사로 있는 불자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많은 감명을 받고 자성본래불을 찾기위해 노력하며 현재 스님의 법문이나 모든 것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참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마음선원의 모든 경전에 한마음선원의 독자적 해석을 하여 놓으셨는데 지금 조계종에는 〈통일 불교성전〉이나 기타 〈한글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석해 놓는 것은 다른 사찰에 다니는 불자들 또는 한마음선원에서 다른 사찰에 갔을 때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의식을 할 때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우기 같은 불법에 같은 경전을 보면서도 파벌 등이 생기는데 하물며 전혀 생소한 해석의 경전만 접하다보면 자칫 또다른 파벌형성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경전은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것으로 사용하면서 교육 등으로 스님의 사상을 펴는 것이 오히려 불교 대중화에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절 어느 선원에 가든지 어떤 불자와 함께 법회를 하더라도 서로간에 일반화되고 서로 같은 의식절차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같은 종교 같은 종단에 있으면서 서로간에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의 하나인 〈반야심경〉마저도 같이 염송할 수 없다면 이는 좀 불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불하세요.

답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불교의 '불'은 영원한 생명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교'하면 바로 우리가 살며 생활하는 도리를 이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여느 종교로서의 구별이 아니라 그대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말로 가르치려니까 그 시대에 맞는 말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부처님 계실 당시엔 그때 그 사회에 맞는 말로 가르쳤고 그 이후 중국에 전해져서는 또 그들 말인 한자로 가르쳤고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말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지만 그보다는 물질이 극치적으로 발달해서 정신세계는 뒷전이고 매사 물질로만 치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 정신을 다 빼앗기고도 빼앗기는 줄조차 모르고 살게끔 그렇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엔 거기에 맞는 말로 가르쳐야지 옛날 그식 그대로 가르친다면 제대로 알아먹기나 하겠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지만 가르치는 방편이나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요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세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 타고 다니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니 무명 옷 입고 마차타고 또는 걸어서 다니던 시대의 말로 가르쳐야만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근본이 다르지 않다면 껍데기야 대수인가요. 진리는 진리이니까 그대로 진리입니다.

선원서 천도재 지내고 싶어요

문 대행스님, 저는 항상 조상님들께 지내는 천도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천도재를 지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 의식이 듭니다.

춘천에서 살고 있고 한마음선원 본원에는 일년에 몇번 가질 않고 최근에는 그나마 가질 못했습니다. 종교활동을 하는 장애는 부지런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마음을 그만큼 못내는 것일수도 있구요. 가까운 절에서 천도재를 지낼까 생각도 했지만 한마음선원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 말씀 주십시요.

답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절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면 어떻고 어느 스님이면 어떻고 의식이 좀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정성이지요. 내 지극한 마음 기울여서 조상님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천도되기를 바란다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조상님들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이왕지사 갖출 것 갖출 수 있으면 좋겠고 공부가 많이 되신 스님께 부탁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형편이 따르지 못하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통하실 겁니다. 마음으로 말입니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05)

수박 씨를 밖에서 찾으려면 백년이 가도…

이 세상을 천차만별로 만들어 놓고, 천차만별로 움직이게 해 놓고, 마치 꼭두각시 놀음을 구경하듯 구경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지켜 보라. 잘하든 못하든, 하든 안 하든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볼 때, 그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한군데로 나고드는 주처가 있는 듯이 느껴질 것이다. 한 치도 놓치지 말고 단단히 지켜보라. 생각하기 이전의 그 주처가 대공의 주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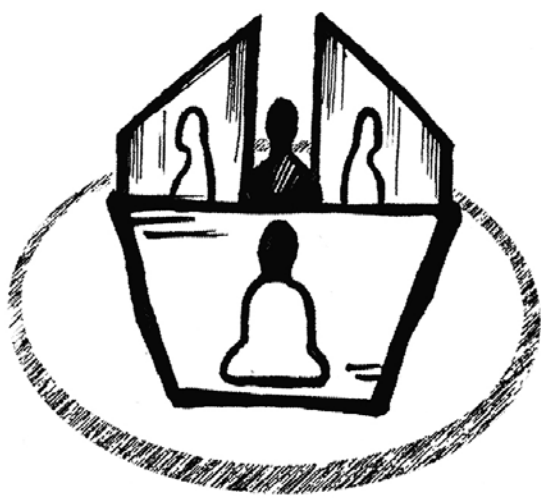
지켜 보라. 자기 발걸음을 지켜 보라. 말하는 건 누가하고, 듣는 건 누가 듣고, 보는 건 누가 보는지 지켜 보라. 자기 하나 있어 이날까지 모든 것을 해오고 있는 것을 지켜 보라. 생활을 떠나서 진리를 찾으면 끝내 찾지 못한다.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자기 모습 그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라. 거기에 울고 웃을 것이 진정으로 있는가. 울고 웃는 자신이 실체로서 있는가. 자세하고 자세히 관해 보라.

누가 했느냐? 온 것은 누구고 간 것은 누구냐? 누가 구덩이에 빠졌고 누가 나오려고 하느냐? 누가 울고 누가 웃느냐? 그렇게 하는 근본은 누구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근본은 누구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오직 '누가 하느냐'를 탐구하고 들어갈 때 공한 자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주인공을 불들고 늘어질 수가 있다. 주인공 하나를 쥐고 일념으로 들어가다 보면 비로소 활연히 참 나가 드러난다.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면 나를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자기'라는 욕심을 세우지 않고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지켜 보라.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나는 지금 왜 미혹한가, 나는 어째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인가…….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정지하게 살피면서 중생으로서의 자기를 영원한 자기, 무아인 주인공에 던져 버려야 한다.

자기를 형성시켰고 수억겁의 진화를 이끌었고 지금의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본래면목이 있는 줄은 아는데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있다면 대답하라.' 하는 것이 곧 관이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면 마음이 편해짐을 알 수 있다. 이때 진짜로 관해야 한다.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악업이 돌아오고



선하게 쓰면 선업이 쌓인다. 그러나 선하다, 악하다를 따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는가 그것을 지켜 보라. 지켜 보고 나가다 보면 좋게 하는 것도 자기가 지켜 봤고 나쁘게 하는 것도 자기가 지켜봤기에 좋은 것 나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가 하는지도 알게 된다. 누가 하는지를 알 때에 자유인으로서의 극락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나'라는 조건을 한번 돌아다보는 계기가 있어야 하고, 한번 돌아다 봤으면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맡겨야 한다. 맡겼으면 바로 거기서 일체 만법이, '내가 나왔기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끌고 다니고, 나는 내가 있기에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아뇩다라 삼먁삼보리에 이르기까지, 무의 세계 · 유의 세계를 합쳐 중용하는 것까지, 구경각지에 이르는 것까지 열반세계에 이르는 도리까지 다 배워서 안다 하더라도 그 전부를 누가 하는 것인가 확연히 꿰뚫어야 한다.

무슨 차원이 어떻다든가, 오계니, 십선이니, 육바라밀이니, 12인연법이니 그런 것을 공부의 기초 자료라 해서 읽어 가지고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된다. 잘못하면 문자에 치우치기 쉽다. 이 공부의 기초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공한 마음의 자리에 있다. 즉, 우리가 억천만겁을 돌아온 것이나 앞으로 갈 것이나 현재나 전부 삼합이 되어 공했다는 것을 알고, 아는 그 마음도 공했다는 것을 알아 모든 것이 거기로 들고 남을 믿는 데 있다. 말하자면 누가 있어 여지껏 살아왔고, 누가 있길래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가를 아는 게 우선이다.

자기 소견에 있는 내공을 타파 못하면 과거심 · 현재심 · 미래심의 삼세심 내공을 타파 못한다. 삼세심의 내공을 타파 못하면 사공법을 모르고, 사공법을 모른다면 원심력을 기르지 못해 원통 자활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한테 부 있고, 자기한테 스승 있고, 자기한테 부처 있고, 자기한테 법신 있고 한 것을 모르는 까닭이니 수박 씨를 밖에서 찾으면 백년을 가도 천년을 가도 안된다.

활을 쏘려거든 자기한테로 똑바로 쏘아라. 지켜 보는 자와 행하는 자가 합일이 되면 견성이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놓고 맡긴다는 것은 내가 쑥 빠지는 것

☞ 15면에서 계속

그렇다고 나 편리한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도재를 지내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먼저 천도재의 참 뜻을 아셔야할테고 스님네들이 왜 천도재를 지내라고 하는지도 잘 참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통신이 되어서 위로 묵은 빚을 갚을 게 아닙니까?

편입시험 치는데 불안합니다

문 스님 말씀 잘 받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9일 교육대학에 편입학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논술과 면접시험을 봅니다. 지난번 대학원 진학 시험 때와는 달리 여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기간도 짧아서 처음에는 불안하였지만, 밖으로 이루어지는 준비보다 내면의 마음 준비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서를 내러 가는데 부산교육대학에 편입학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주인공 대학"에 시험을 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논술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시험이 밖으로 몇자 적는 시험이 아니라 제 주인공을 만나는 또다른 시험을 치는 준비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면접도 그 교수님들께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주인공 자리에서 제 주인공 자리를 면접본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과의 대화에서도 "한집안 식구끼리 보는 것이니 불안해 하지 말라"는 마음과 "주인공이 헛돈 들이지는 않는다"는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주인공과의 대화는 늘 이런식의 자문자답식입니다.)

오늘 원서를 넣고 스님과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탈감 대신 "내자리 주인공이 아는데 왜 남의 자리 주인공에 맡해"하는 자신의 마음자리에 대한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지를 올리는 것은 제 자신의 주인공과 스님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마음과 뜻을 전하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님, 저는 이번 시험이 또다른 연비와 같다는 마음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제 팔에 연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가 제 마음에 시험치고 합격 도장을 쾅 찍는 과정 말입니다.

스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공부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

답 마음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개중에는 이 공부를 한다면서 여전히 '나다', '내로다', '내가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놓고 맡기는 공부가 아니지요. 놓고 맡기는 공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는 공부요 내가 빠지는 공부입니다.

처음에는 내 주인공 네 주인공 하다가도 공부가 익어가면 내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주인공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굳이 주인공을 찾지 않아도 여여하게, 뚜벅뚜벅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기 위해 정진하는 이유

문 주인공 공부를 알게 해주신 스님께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울산지원에 다니고 있구요, 경주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배와 공부에 대해 이야기 하던중 선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스님께 여쭙니다. "공룡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듯이 우리 인간도 어차피 사라질 것인데 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지요. 무어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마음 속에선 무언가 해줄 말이 돌기는 하는데 확연히 알 수가 없어서 여쭙니다. 메일을 받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대불교신문에서 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답 아이 참, 여태 그 말 대답을 모르셨습니까?

찰나찰나 바뀌며 돌아가니 본래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나'라고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나니 너니 하면서 따로 따로 봅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가 있고 동·식물이 있고 무정물이 있고 그럽니다. 그게 유의법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말 들어 보셨겠지요. 이 죽는 게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옷을 벗고 옷을 갈아 입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유의 세계 무의 세계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면 죽어도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대로 다시 몸을 되받고 또 되받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억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돈다 이거지요. 그러니 몸뚱이가 흩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지요. 그 몸 그대로 쓰고 나오지야 않겠지만 때로는 진화해서 나고 때로는 좌천해서 납니다. 그러니 어찌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아주 사라졌다고 하겠습니까? 또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지구라는 이 별만이 이 세상이고 다른 별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나'란 본래없다 하신 건 깨달은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니 모두들 공부를 해서 이 쳇바퀴로부터 벗어나야 하겠지요.

실험용 쥐 살생 가슴 아파요

문 큰스님,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한마음선원에 나가십니다. 저도 나갔었는데 학교 생활과 부딪치다보니 선원에 나가는 것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원동물학과이다 보니 실험으로 쥐를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아신 어머니께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저도 산 것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교수님께서는 실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이니 너무 개의치 말라고 하시는데, 또 너무 증식하다보면 저희들로서는 초과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쥐의 증식이 너무 무섭고 또 너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죽이는 것도 싫습니다.

죽일 때 어머님의 말씀대로 "그래, 너희와 나는 둘이 아닌 하나로 너희가 죽음으로써 더 좋은 세상에 더 나은 위치로 태어나라"고 속으로 말하고 죽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앞으로도 많은 생명을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보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안하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 공부를 아는 제가 생명을 죽여야 하는 게 죽임을 받는 그들에게도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좋은 세상으로 태어나게 하고 싶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제가 하는 입장에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살생을 전혀 안하고 살 수는 없지요. 먹고 먹히는 자연의 법칙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생을 하지말라 하시는 말씀은 '하지말라'가 아니라 생명을, 남의 생명을 내 생명 같이 소중히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따지고 보면 다만 생명을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누가 그걸 살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그 또한 살자고 태어난 생명이니 방편상 죽이게 되더라도 천도를 하면서, 너와 나가 둘이 아님을 되새기면서 하면 그건 죽이는 게 아니라 건지는 게 됩니다. 그렇다고 말로만 그런다면 안되지요. 풀 벌레 하나라도 생명은 다 같이 소중한 것이니 진정으로 그 생명을 건지면서 하도록 하세요. 누가 해도 할 일인데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기보다 내가 하는 게 그 생명을 바치는 대상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동료 극락왕생 했으면…

문 저는 서울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법원에 근무하다가 작년에 간암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던 한 판사가 올해 2월 7일 새벽 1시 혼수상태에서 세상을 달리하였습니다. 저와는 몇 달간 한 층에서 근무하며 오가다가 인사만 나누었을 뿐이지만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그것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달리하는 것을 보고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간암수술을 받고 친정에서 요양 중일 때 큰스님의 법문집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왠지 간절하였지만 당시 고인이 천주교 신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불찰로 교를 달리하는데 괜히 언짢게 생각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인이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것 뿐일텐데, 평소 공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탓인지 머리 속에 생각만 맴돌 뿐 마음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내는 것이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모친의 인도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능인선원에도 몇 번 나가고, 계신 〈한마음요전〉 대행큰스님의 수행하신 책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여러번 봉독을 하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요즈음 가까운 광명시에 거처를 옮기고 매일 기도하면서 생활합니다. 〈금강경〉도 봉독하고 〈관세음보문품〉도 봉독하고 〈반야심경〉 사경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합니다.

큰스님 좋은 법문 너무 소중하여 여러번 봉독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탓인지 큰스님은 일체를 한마음 주인공에 믿고 맡겨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마음 주인공에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한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주인공에게 믿고 맡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십시오.

답 앞에서도 어느 분 말씀에 대답을 해드렸는데 또 되풀이 해야 하겠군요. 나야 같은 말을 백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알아듣는 분이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고마운 일이지요.

놓고 맡기는 데 어떻게 맡기는 것이냐고 하시는 데 거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입니다. 무조건 그냥 매사를 '내가 한다' 생각마시고 일체는 주인공이 하는 거다 하고 굳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빠지는 겁니다. 내가 빠지면 그게 바로 놓은 것이고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다만 관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거울에 비추 듯이 그렇게요. 그렇다고 건성이 아닙니다. 말로만 내가 빠졌다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 나는 빠졌다. 그러니 주인공이 있다면 나와봐라' 할 때에 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이지요. 무조건.


그림 · 최주현

> 공부 익어 너와 나 둘 아님을 알게 되면
> 주인공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 그냥 뚜벅뚜벅 걸을 수 있게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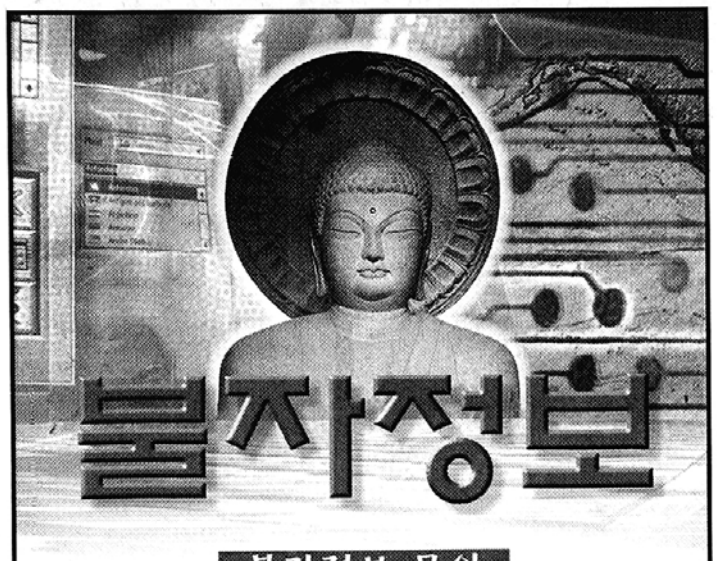
> 몸뚱이 흩어졌다고
> 끝난게 아니지요
> 때로는 진화해서
> 때로는 좌천해서
> 몸 되받고 되받으니
> 어찌 사라진 겁니까

찰나찰나 바뀌니 본래 나라 할것도 없어
남의생명 내 생명 처럼 여기는게 불살생

협찬 한마음

가족은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737-0697)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컬러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당뇨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의단요법·무료시술
치료비 전액무료
TEL : 0552-585-8118·8128
H.P. : 011-559-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잠이 쏟아진다!
■ 잠시 앉아만 있어도 잠이 쏟아지고 힘이 샘솟는 「비아그라」보다 더 신비한 「건강요」와 「한방베개」탄생
만약 2주간 사용불만시 100% 환불!!
전기사용무. 온돌침대겸용.보관간편
수신자부담/080)721-8858 세광산업(주)
-7일사용후 입금가능합니다.-

간병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02)363-7884
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강좌

수맥강좌안내
1. 신비의 추 사용
2. 현장실습
3.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4. 수맥관련 상담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주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출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달마정사**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
◇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
- 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점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불광사,승가대학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39번지)

구인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0558) 681-3908
FAX. 681-8759

말법시대의 중생을 교화하여 구제하고 어려운 시대의 경영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무후무하고 상상을 초월한 지혜방편을 마련하고 **관심있는 스님, 포교사, 신심이 돈독한 불자들을 초빙**하오니 많은 연락바랍니다.
02)579-0102,0103
011)217-9223

행자 되실분 구함
행작과정 교육후 스님으로써 승가대학 및 일체스님 과정을 거친 후 사설 사찰을 이어받을 신심있는 분을 구합니다. (단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써 25세 미만인 분)
아직까지 은사를 정하지 않은 스님도 상의 요함
053)585-0450
011)503-0455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숙식 제공※
경남 사천시·읍 구암리
백운암
0593) 852-322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탈종공고

탈종공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귀하
■ 사찰명 : 죽림사
■ 위 치 : 경남 진해시 마천동 5-6
■ 주 지 : 석지암
상기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을 공고함
1999. 2. 10.

탈종공고
대한불교 법화종 귀하
■ 사찰명 : 광불사
■ 위 치 :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507
■ 주 지 : 정암 김종대
위의 사찰은 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합니다
1999. 2. 10.

탈종공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귀하
■ 사찰명 : 지장정사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27-41
■ 주지: 월곡스님(김종문)
위사찰은 귀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합니다.
1999. 2.

기타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 회향암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전통 황토방
"흙은 만물의 모체다"
황토에는 병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데..
순수 황토만으로 시공하며 장판을 깔지 않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황토방으로 개조하며 도배나 화확제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음.
금강황토산업 032)427-7899/016)360-2236
FAX 032) 427-5634 지정 합장

황토 찜질선방 개방
모은사 주지 현공 스님이 직접 황토벽돌을 만들고 신비스런 향토찜질 선방을 지어 불치병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72-1
0593)854-8551
주지실 0593)854-8555

벽지 ◑ 바닥재 버티칼·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현대자동차 신차판매 안내
스님과 불자님들의 차량문제
"믿고 맡겨 주시면 불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 원응 곽영순 과장
대표전화 : (053)627-6616
휴 대 폰 : 011-509-9456
호 출 : 012-494-6181

불심으로 보살펴 드립니다.
♣ 산모 신생아 간호 관리 ♣

· 산모 간호 관리
· 가격 중심의 모아 관리
· 산욕기 건강관리
산욕기 질환과 합병증 예방,
영양관리,가족계획,체형관리,모유수유
· 신생아 간호관리
- 신생아의 건강관리 예방접종
- 정상적인 성장과정 관찰
삼정산후조리센타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2-3 J 빌딩 5층
02)484-8678/474-8678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 이며 4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大慈 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5회의 불보살님 건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1,400,000원
법화권(7권)- 170,000원
사 교(7권)-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창본
02)962-6477 처 사

귀 달마스님
◆사주 : 대운·행운·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15:00
051)441-0089 달마사

보이차 직판합니다.
100g ×10봉지(10만원)
100g ×1봉지(1만2천원)
02)911-6798
017)406-6682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 수양·기도·공부·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수양·병치료
양로원 성격의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는 최적의 수양 기도처로써 특히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환자들에게 친부모처럼 모시고 기도와 침술로서 완치시킴.
※침구, 숙식제공, 동참기도
※가격 : 입실 보증금 1,500만원 (월세로도 가능)
※위치 : 동대문구 전철 5호선 장안평역 3분거리
만불사 수양원 02)2245-7075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북 청도권 내
◆ 평 수 : 건평 150평
◆ 건 물 : 법당, 요사채, 선방, 누각 등
◆ 가 격 : 7천만원
◆ 특 징 : 주위 병풍석벽이 사찰을 둘러싸고 있고 사찰전면에 호수가 위치, 명승절지에 사찰이 입지
◆ 천년고찰
051)245-8782

사찰 운영안내
◇위치 : 서울(산속)
◇법당 : 23평 ◇요사 : 40평
◇부지 : 100평(실사용평수 340평)
◇가액 : 3억
◆ 지방사찰 교환가능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포 교 당
◆ 위치 : 용산구 한남동 557-39 한남역앞
◆ 평수 : 25평(빌라형으로 시설 완벽히 갖추어 있음)
◆ 비구니 스님, 무속인도 환영
◆ 가격 : 보증금 5백만원65만원 (1천만원 - 55만원)
02)793-1225/307-2025
011-230-2025

사찰(급)안내
네팔로 급히 출국하므로 급전세합니다.
※입주 즉시 법회 가능※
■사찰명:경주 무학산 성불암 토굴
■대지 : 200여평(산신당+용왕당) 합1개
■건물 : 대웅전 내 방2개, 주방, 전체 기름 보일러 목욕 샤워시설, 주차장 완비 전세금 1,800만원, 답사후 절충
011-543-4275/017-558-3450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774
◆ 대지 : 2000평 내에 목조기와 단층주택 큰방 4칸 (이중창방범창도 있음)
◆ 법당 : 임법당 1칸, 삼존불, 탱화 4점, 현판 및 넓은 마루도 있음
◆ 법당 신축부지도 있음
◆ 가격 : 시설집기 일체포함 총 3,600만원
0451) 641-7569

사찰부지(사정상)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저수지 및 국도접
◆ 평수 : 합 1,500평(다섯필지로 분할도 되어 있음)
◆ 참고 : 고시원,교육관,복지회관등 다용도가능,토목공사완료
◆ 가격 : 해외이민사정상 평당 현시세 70만원이상을 40만원정도에 급매함.
0575)874-46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용현면
◆ 대지 : 3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18평(방 2개)
◆ 가격 : 차후 상담후 결정
017)983-4895
0591)742-2714

사찰 월세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신도극장 뒷편
◆ 평수 : 45평(법당,요사채), 단독주택
◆ 가격 : 500만원(보증금) 월세 16만원
◆ 시설비 : 1,300만원 (집전체수리비) 절충가능
011)705-2806/02)379-011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법당 : 33평 ■ 요사 : 65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위치 : 통영시
◆부지 : 1,180평
◆법당 : 25평 ◆요사 : 25평
◆가액 : 답사후 절충
◆ 특징 :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송림에 싸여있는 청정지역
012)1067-0108
0502)580-0108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 시내에서 차편 5분 (서울 약1시간대)
◇대지 : 438평
◇층건평 : 83평
- 법당, 사무실
- 요사채 방13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
※ 직접면담(급매) ※
0336)643-9051
012)925-6118

포 교 당 안내
◆ 위치 : 상도동 201-60호
◆ 특징 : 단독 1~2층
2층 - 법당
1층 - 요사채
◆ 대지 : 66평 ◆ 법당 : 57평
◆ 가격 : 2억 5천(절충가능)
02)815-030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단장 미촌리 만월암 밀양에서 16분 거리
◆ 대지 : 103평
◆ 건평 : 22평 신축건물 스라브 시설완비
◆ 가격 : 3천 9백 (등기필)
0542)371-1306
0542)372-5040

포교당 운영하실 분
◆ 위치 : 동래구 온천 3동 (부산 백화점 맞은편)
◆ 법당 : 71평
◆ 4층 건물에 3층,방 3개,주방시설
◆ 특징 : 시설비, 보시함, 에어콘, 온풍기 설치 되어 있음 주차시설 완비, 교통이 편리함
051)505-0300

포교원 안내
◆위치:강동구 길동 시장통
◆19년 역사 포교원
◆방·법당·부엌·화장실
◆가격: 3천2백만원, 월 60만원 (가격절충가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급매
011)201-2561
02)482-4550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5분거리
◆ 법당 : 2층-35평 (약사부처님,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칠성탱화
◆ 가격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800만원 (억학하시는 분도 가능)
02)948-8974

사찰 안내(급)
이민으로 급히, 현시세 1/3가격으로
◆ 위치 : 충주댐 입구 원효종 "불암사"
◆ 대지 : 700평(집입로 포함)
◆ 요사채 : 34평 (교화당, 주방, 방6개, 현대식 사워장)
◆ 법당, 산신각, 석굴암 합 34평
◆ 부속물 : 5층석탑, 석가모니 석불상, 해수보살 좌불석상
◆ 팔경작 하실 분 2,000평 - 3년(300만), 5년(500만) (귀농인 정착 희망자 우대)
0441)848-1766/019)485-1766
0431)211-9546(자택)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2천 5백만원 (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 노원구 (전철역 2분거리 버스정류소 2분)
◆실평수: 대지 65평 (서울 APT내에 위쳐 건평 100평)
◆2층 -법당 / 1층 -요사채
◆가 액: 3억 5천(융자 1억 2천만원)
02)3391-4845
011)752-4842

사찰안내
◆위치 : 고흥군 동일면 전남나로도 성은암
◆부지 : 2,500평
◆법당 : 21평 (요사채 2동,자연석간수)
◆좌청룡 우백호의 어우러짐과 절뒤에 자연 탐바위 절앞바다에 거북섬 거북이 절로 올라오는 형상이며, 거북섬까지 하루 2번씩 바닷길이 열림.기도영험도량으로 전국각처에서 사찰 참배중
◆ 가격 : 3억
0666)834-4538
016)247-5363/0673)642-2965

사찰건축 및 목재 안내(전문)
· 사찰 건축 · 사찰조경 · 단청 · 목조주택(한옥,황토집)
사찰 목재 안내 ※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송)다량확보
♣ 대웅전:12평, 20평, 24평, 34평, 54평, 108평을 지을 목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대웅전 기둥: 1자, 1자 3치, 1자 5치, 1자 7치, 1자 8치, 2자 2치까지
♣ 대원목: 말구 1자 이상:24자, 30자, 36자, 42자 까지
♣ 서까래: (연목)12자, 15자, 18자, 20자, 24자
◈ 대웅전 설계, 조감도 그려드립니다. ⊙불사하실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주)천운 나강민 협장 본사대표 0371)762-3938
천운목재(제재소) 0371)732-3936 휴대폰: 011)735-4168

생활정보

갑자기 아프면 '1339'

연휴기간중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정보센터로 전화(1339번)하면 지역별 당번 병·의원이나 보건소, 약국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응급처치 및 질병상담까지 해준다.

화재보상 상담

서울시내 도심에서 6, 8일 며칠 간격으로 24건의 연쇄방화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전국 1백39개 소방서에 '화재피해 복구안내소'를 설치, 피해복구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내용은 각종 세금감면제도, 화재로 손상된 현금의 교환방법, 각종 증명서 훼손에 대한 복구방법, 보험청구절차 요령 등.

한복 선택 및 보관법

한복은 경제사정이 허락하면 한 세트를 한꺼번에 마련하는 게 좋다. 그래야 조화를 연출하며 제멋을' 낼 수 있다. 남자 한복은 두루마기 마고자 조끼 저고리 바지, 여자 한복은 두루마기 저고리 치마 속치마 흰버선, 어린이 한복은 마고자 조끼 저고리 바지(남자), 저고리 치마(여자)가 한 세트이다. 가능하면 물빨래가 가능한 옷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보관은 한복이 구겨지지 않도록 넓은 공간에 해야 한다. 빨래 후 그늘에서 옷걸이에 걸어 말리며, 금박된 옷은 천을 덮어 다림질 해야 한다.

'어르신 공경'은 젊은이의 의무

노인 79% "재산 있어야 자식에 대접받아"

복지부 효행자 대학특례 확대 … UN제정 '세계 노인의 해'

'아내 하고만 애기를 하고 부모는 탐탁히 여기지 않으며 부모가 노령이 되면 자식에게 의지하기를 원하는데도 인사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다.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 외로이 지내더라도 여관에 묵고 있는 손님 대하듯 은혜의 정이나 담소의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부모은중경〉

조상과 부모를 찾아 차례와 세배를 올리고 그분들의 공덕에 감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 어느 명절보다 효심이 강조되는 이 때 자녀들의 세배를 받지 못하는 부모와 노인들은 얼마나 될까. 급격한 핵가족화로 인해 어른들을 공경의 대상이 아닌 손님 대하듯 하는 요즘의 세태. 부모·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공경의식이 희박해짐에 따라 정부의 노후복지대책의 확충과 함께 노인 공경의 미풍양속 회복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5월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2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소외감을 잘 나타내고 있어 이런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78.6%는 자녀들에게 대접받으려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필요없다는 생각은 16.4%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들의 자녀 접촉빈도가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부모 봉양 분위기 확산 및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중인 효행자 대학특례 입학제도를 확대하고 전통 므벌가정(3대이상 동거가족)을 포상하며 그밖에 상속세 감면(1인당 3천만원), 소득세 공제(1인당 150만원), 주택자금 융자 지원(가구당 1천만원 추가 지원)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3백5만명으로 전체의 6.6%였으나 내년 중에 7%를 돌파하고 2022년엔 14.3%에 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무척 빠른 것이다. 고령화는 빨라지는데 노부모 봉양의식은 현저히 줄고 있다. 20년전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3세대 동거가구 비율이 69%였으나 지금은 32%로 줄었다. 반면 노인 단독세대 비율은 19.8%에서 53%로 뛰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숙식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미풍양속도 살려가야만 진정한 의미의 '노인 공양'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이므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으로 실버사회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의식을 제공함은 하품의 효양(孝養)이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함은 중품의 효양이며, 부모님의 공덕을 여러 부처님께 회향함을 상품의 효양이라 한다.'〈아함경〉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상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설날은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으로 남아있다.

설날 보고 들을 거리

■ 방송

▲'EBS 교양강좌'(EBS FM)=20~27일 오전10시부터 60분간. △20일 음악이 발전해온 이야기 △22일 한국 속담·수수께끼의 역사와 그 특징 △23일 한국 축제의 역사와 그 특징 △24일 우리 삶 속에 문화 예술은 왜 필요한가? △25일 통일을 기다리며 △26일 춤을 비롯해 음악이 만나는 다른 분야 이야기 △27일 아름다운 생을 위한 음악의 의미 등.

▲'현대의학의 영웅들'(EBS-TV)=매일 저녁 6시45분. △17일 응급의학의 선구자 피터 로즌 △19일 바이러스 전문 연구가 칼 존슨 △25일 여성질환 퇴치 명의 수잔 러브 △26일 조울증 치료의 대가 케이 재미슨.

■ 전통공연

▲국립국악원(02-580-3300)=17일 오후5시 '설날, 달토끼 용궁가다' 공연. 판소리 '수궁가'는 물론 관현악곡인 전인평의 '별주부와 토끼', 가야금 병창과 관현악이 어울리는 박범훈의 '토끼, 다시 세상에 나오는 대목',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씨 등의 '토끼 별주부따라 용궁가는 대목' 등 여러 장르로 형상화.

▲정동극장(02-773-8960)=16일 오후 4시 설날 특집 공연. 전속 예술단이 출현 장구춤, 검무, 삼도 풍물굿, 관굿 등을 선보인다.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02-566-7037)=16일 오후4시 중요무형문화재 104호 서울 새남굿 보유자인 김유감 만신이 재수굿을 선보인다. 17일에는 '한국의집 예술단'이 출연 시나위 합주, 진도북춤, 사물놀이 등으로 흥을 돋운다.

■ 개봉영화

▲쉬리=남북 특수요원 갈등구조에 멜로 곁들인 첩보액션 한국 영화. 한석규·최민식 주연. 서울·명보·허리우드극장.

▲연풍연가=제주 섬처녀와 서울 셀러리맨이 엮는 사랑. 장동건·고소영 주연. 피카디리·중앙.

▲화이트 발렌타인=순수하고 동화같은 사랑이야기. 박신양 주연. 단성사.

▲마요네즈=모녀간의 갈등을 일상 생활속에서 재치 있게 풀어 나간다. 최진실·김혜자 주연. 서울·중앙·허리우드.

▲빅 타임=사랑을 위해 암흑가 조직과 목숨건 혈투를 그린 액션물. 성룡주연. 서울·중앙·대한.

"아시아 2~3년내 물부족사태"

월드워치硏·유네스코·세계기상기구 등 잇단 경고

유엔인구기금(UNFPA)이 올 10월쯤 세계인구가 6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중국과 인도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2~3년내에 물부족사태가 발생, 세계적인 식량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월드워치연구소가 11일 발표한 〈99년 세계전망〉보고서에 따르면 91-96년 중국 북부 농업지역의 지하수면은 연평균 1.5m씩 낮아졌으며, 인도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하수면은 매년 1-3m씩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드워치연구소는 2-3년내에 물 부족사태는 식량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가속도가 붙은 기후변화도 식량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콕에 있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전문가들도 아시아 지역에서 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이 농작물의 수경재배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21세기에 물 공급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7일 경고했다.

8일 제네바에서 유네스코와 세계기상기구(WMO) 주최로 열린 물부족대책 국제회의에서는 1백여개국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및 식수오염 등으로 인한 물 공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세계적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도상국들에 파국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물부족을 겪는 국가가 오는 2025년에는 34개 국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론

의식개혁의 봄을



최 용 기
〈창원대 교수·법학과〉

2월 8일과 오는 3월 1일은 2·8도쿄독립선언과 3·1독립운동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 올해는 이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쳐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39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마다 새 봄과 함께 3·1절을 맞고 4·19를 맞이하지만 그 자유·민주·정의의 정신은 어디갔는가 묻고싶다.

입춘이 지나 새 봄을 맞는 하늘은 푸르고 맑기만 하지만 우리 사회의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기운은 언제쯤 가실지 안타깝기만 하다. 월간 〈조선〉 2월호에 게재된 前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아닌 중들이 중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승려의 자격과 위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중노릇하면 본인도 힘들고 신도들에게는 물론 불교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사법부 파동도 마찬가지다. 정의감이 없는 일부 사이비 법조인들 때문에 물의를 빚고 있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좌절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교회 역시 목사 아닌 자들이 목사노릇하고 있다. 목사·스님·신부에게도 국가고시를 실시해 자격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쓴 웃음이 나온다.

> "제자리 제역할 철저히 지켜질때 자유·민주·정의 이땅에서의 실현"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위선과 허위가 당연시 되는 점이다. 자기자신과 역할을 알고 처신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데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자신을 잃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의식개혁, 자각의 운동이 절실하다.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의식혁명이 필요하다.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개혁을 해야한다. 우리는 시대마다 자유·민주·정의를 일깨우는 운동이 있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4·19혁명이다. 그러나 당시의 뜨거운 정신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40년도 채 안됐지만 4·19혁명 유공자들 조차에게도 소홀히 한 업보다. 4·19혁명정신을 계승하는 4·19혁명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민족정기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4·19혁명유공자와 같이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을 때 몸바쳐 투쟁한 고귀한 정신은 공무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보상과는 구분하여 보훈적 차원의 예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독립유공자에 대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유공자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또한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사망자나 부상자만 예우를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는 것이다. 비록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공로가 인정된다면 그들에게도 당연히 예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혁명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4·19혁명정신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향해야 할 절대적 가치이다.

선열들의 자유·민주·정의 정신은 3·1운동과 4·19혁명정신으로 이어져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타도하여 현재의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고 제 2 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는 진정한 4·19정신을 제2 건국운동의 이념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화정신을 관념으로써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이념화 되고 국민 전체의 의식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해마다 봄은 오지만 광복정신과 혁명정신을 기리는 행사는 너무 형식적이다. 진정한 봄이 와야 한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대사(大師)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증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옥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 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핫병, 노화방지….
너무힘들 때는, 옥을 같이 사용해 보세요!
왕궁의 침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玉山家에서 기억만을 꼭찝이서 사야인 효과가 있습니다.
옥분108염주(10mm, W60,000)
· 목걸이 겸용 옥혼합제품
· 건강보전 기경팔맥 通氣용
· 무거운 것을 싫어하는 분에 적합
· 마음자리를 잘 볼 수 있고 탐진치의 瞋心을 줄일 수 있어 좋다.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02)777-0105(우편판매)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011)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함으로 미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 영업부 : 0343)445-6090
· FAX : 0343)445-3370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생명나눔실천회 · 현대불교 공동캠페인

생명존중 · 자리이타 실천하는 보살행

도선사 법회…장기기증 30 · 화장 6백78명 서약
11월까지 매월 전국 사찰 돌며 캠페인 펼쳐

교계의 장기기증과 화장(火葬) 서약운동이 본궤도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 · 수덕사주지)와 현대불교신문이 지난 4일 입춘을 맞아 방생(放生)도량으로 유명한 서울 우이동의 도선사(주지 동광)에서 개최한 '입춘맞이 불공 및 생명나눔실천 법회'에서 30명의 불자들이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떨치고 국토를 후세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고 서원한 불자도 6백78명에 이르렀다.

한해를 시작하는 첫번째 절기이자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입춘맞이 법회에서 불교계가 사후 장기기증 서약행사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기 몸을 보시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운동은 불살생계(不殺生戒) 정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길.

생명나눔실천회와 현대불교신문은 도선사 법회에 이어 오는 22일 오전 11시 울산 학성선원, 3월 28일에는 철원 심원사, 5월 화성 용주사 등 오는 11월까지 매달 한차례 이상 전국의 사찰을 돌며 화장 유언 및 장기기증 서약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4일 도선사에서 개최된 '입춘맞이 생명나눔 법회.' 불자들이 장기기증 화장서약 서명을 하고 있다.

"생명나눔은 생멸없는 삶"

생명나눔회장 법장스님 법문



'참회 · 방생도량 도선사에 봄이 돌아와 3천대천 세계에 꽃이 만발했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부처님의 으뜸 가르침인 불살생계(不殺生戒)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자신을 버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방생정신을 실천하는 보살행입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생각(我相)'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하며, 그것은 곧 깨달음과 열반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행복이며,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행복추구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모두 비워 빈 그릇을 만들고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집니다. 아상을 버릴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육신은 한 조각 구름처럼 덧없는 것'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런 생사와 관계없는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쓰기에 따라 생멸없는 삶이 펼쳐집니다.

"화장운동 집착 버리는 일"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 법문



도선사는 청담스님 때부터 물고기 한 마리도 새 삶을 살도록 강조해 온 방생도량입니다. 불교 전통 장의의식인 화장을 널리 확산시키고, 내 장기를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시하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이 한낱 허망한 껍질이라면 고통받는 이웃에 장기를 나누는 일은 더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등신불이 육신을 소신공양함으로써 중생에게 무한한 공덕을 회향하고 있는 것이 한 예입니다. 불교가 거의 사라진 인도에서는 아직도 화장제가 일반적인 장례제도입니다. 우리에게서 불교를 배운 일본의 국민들도 대부분 사찰에 위패와 조상의 유골을 모시고 있습니다. 불법을 가장 찬란하게 꽃피운 우리나라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불가의 전통인 화장제도가 정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고 화장 풍토를 뿌리내리게 해 건강한 국토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합니다.

"껍데기불자 안되려면…"

현대불교 김광삼 사장 인사말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참선을 아무리 많이 한들 보살행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껍데기 불제자에 불과합니다. 장기기증은 어렵더라도 헌혈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면 불제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생물학자는 사람의 몸이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포 하나하나는 독립된 생명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량수의 생명의식을 가진 세포들이 모여 5장6부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육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마거사가 '중생의 병이 나아야 내 병도 낫는다'고 했듯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내 몸도 병이 없는 것입니다. 즉 내 몸이 국토라면 무량수의 세포는 중생에 해당됩니다. 내 마음자리가 보시행을 실천하면 모든 세포가 환희심에 젖어 생명의식이 고양되어 건강해집니다. 장기 · 헌혈의 기증으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국 60조의 생명을 살리는 방생이 되는 셈입니다.

기복탈피 보살행 앞장선 입춘불공
가족 · 신행단체 동참자 많아 눈길

도선사법회 이모저모

○… 교계에서는 이번 법회가 그동안 입춘때마다 행해진 자신과 가족의 건강, 승진, 재물 등을 기원하는 기복에 치우친 입춘 기도나 산림법회에서 벗어나 방생의 참의미를 되새기게 했다는 평가. 특히 그동안 생명보육원과 혜명양로원등을 설립,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방생도량의 원력을 세운 도선사가 행사를 주관해 의미를 더한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화상과 장기기증운동에 불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불교계가 모범을 보인 것도 최근의 조계종 불규사태와 대비되어 눈길을 끌었다.

○… 이번 법회에서는 모녀와 부부가 나란히 사후 시신 · 장기증 등에 서약해 화제. 모녀의 지간인 최선규(67 · 충남 천안시 성정동) · 이종옥(39 · 서울 논현동) 보살은 평소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어머니 최 보살의 뜻에 따라 모녀가 똑같이 사후 시신 및 각막 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한편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온 차기석(55) · 이정희(46)씨 부부는 함께 사후 시신기증에 서약했다. 부부가 한마음으로 삶을 회향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것.

○… 불교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도선사 보리수회(회장 박정숙) 회원 20명은 단체로 장기기증 및 화장 서약서에 서명했다. 종무소 등에서 행사를 지원하다 달려나온 회원 중 5명은 장기기증을, 15명은 화장유언을 각각 서약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장기기증 서약자

태현스님 한정자 전영선 최선규 이종옥 채순희 이정희 차기석 신옥순 김묘순 김미수 이숙 이강우 이경아 고영주 허남영 김선자 이완희 김형년 권오희 고준자 최병대 고인숙 송화자 김영식 조진현 오강석 최정분 김미숙 홍영기

화장유언 서약자

간종호 강경란 강광원 강기분 강동희 강복자 강숙희 강영숙 강영자 강정숙 강정자 강정희 강처례 강필남 강형철 고금자 고영배 고은경 공정자 곽점순 곽춘선 구귀임 구동희 구민수 구연정 구필회 권경옥 권석란 권선화 권오숙 권운집 권위선 권윤옥 권이히 권장순 권현수 권화숙 기추라 김갑희 김건영 김경렬 김경애 김경옥 김경이 김경자 김광식 김광추 김금녀 김금란 김금례 김기환 김길순 김남열 김덕주 김동명 김득순 김만임 김명연 김명자 김명자 김명자 김명화 김명화 김무경 김무응 김미경 김복순 김봉님 김봉환 김분례 김분향 김삼형 김상고 김석순 김석이 김선숙 김선희 김성균 김성선 김성해 김송자 김송자 김수영 김수자 김숙희 김숙희 김순녀 김순녀 김순달 김순덕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승화 김애경 김애진 김양금 김여순 김영덕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순 김영이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희 김옥례 김옥순 김옥애 김옥자 김옥희 김용순 김원중 김인자 김임숙 김재연 김점례 김점심 김정길 김정대 김정숙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임 김정자 김정호 김정화 김정희 김종구 김종란 김증자 김진수 김진임 김진태 김청자 김청자 김춘란 김춘자 김칠성 김태선 김태선 김팔녀 김필라 김필순 김한복 김한숙 김핵자 김형자 김화형 김희라 김희옥 김희주 나금란 나상희 나순자 남분옥 남옥자 노강환노명수 노민호 노순덕 노순이 노용호 노유자 노희자 도치호 동광스님 류성열 류영렬 류옥열 류춘화 마법스님 모영숙 무애심 문귀남 문외자 민병수 박감례 박갑순 박강순 박경옥 박경옥 박구희 박금선 박노인 박두형 박만재 박말숙 박맹희 박복순 박부남 박상순 박상자 박상필 박소영 박순단 박순자 박양라 박영아 박옥욱 박영한 박영호 박옥분 박완순 박오 슉 박월순 박은서 박장년 박재임 박종자 박정전 박종례 박종순 박증자 박진하 박현옥 박혜경 박혜원 박홍자 박홍화 박효순 방귀진 방수자 배난옥 배인숙 배종진 백운화 백현희 법진월 변금자 변순희 보광화 보월성 보현행 봉지행 서금수 서금순 서남이 서삼순 서성문 서순례 서연석 서옥주 서윤석 서은순 서정자 서정자 서종분 서희순 석복례 선양순 성명수 성미자 성봉자 성순희 성옥희 성월선 손양호 손인숙 손재순 손정수 손태숙 손현숙 손훈자 송경복 송경순 송기애 송배식 송복례 송복순 송숙희 송영후 송완예 송정희 송팔희 송효숙 승달성 신금승 신기홍 신덕용 신명숙 신미일 신성철 신승연 신야근 신열우 신임순 신점순 신정미 신정숙 신정애 신해일 심명숙 심상덕 심재복 심재하 심재희 심현자 심희숙 안경자 안금자 안길순 안남숙 안명삼 안순희 안영숙 안옥련 안윤석 안장호 안춘자 양삼분 양정희 양천규 양태복 양희곤 어히숙 연현정 염민애 오남호 오동진 오병구 오선옥 오세영 오순단 오순희 오정신 오정자 우성희 우영숙 원대자 원복희 원석준 위영란 유남선 유삼순 유성구 유순남 유승옥 유옥자 유재숙 유정자 유춘승 유태연 유효준 윤경숙 윤경순 윤계준 윤덕녀 윤복이 윤석려 윤송석 윤수명 윤여원 윤영미 윤영숙 윤옥희 윤인복 윤재희 윤점달 윤정옥 윤정옥 윤지의 윤차분 윤춘실 윤희봉 이경자 이경자 이경자 이계영 이관우 이금남 이금동 이금연 이금옥 이금용 이금자 이기련 이기선 이기숙 이기영 이기자 이길순 이길종 이남순 이동강 이동철 이동희 이명국 이명숙 이무자 이민영 이병하 이보창 이복숙 이상숙 이상일 이상임 이상진 이선이 이선이 이선자 이성구 이성희 이수남 이수호 이숙자 이숙재 이순복 이순옥 이순자 이순자 이연심 이연정 이연화 이연희 이영숙 이영순 이영순 이영순 이영옥 이영옥 이영자 이영희 이옥봉 이옥선 이옥선 이옥이 이옥자 이옥자 이용래 이용순 이용자 이용학 이원기 이원숙 이윤경 이윤자 이은덕 이은수 이은숙 이은옥 이의렬 이인숙 이인숙 이인원 이일순 이임준 이재숙 이재순 이재옥 이정란 이정문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자 이정호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종관 이종국 이종배 이종선 이종숙 이종옥 이증임 이주란 이중석 이철의 이청자 이춘자 이태남 이한영 이향숙 이현숙 이혜원 이화진 이흔이 이희순 이희자 임란옥 임안순 임영자 임옥희 임정남 임창수 임철순 임춘년 임혜숙 자덕심 자월심 장관숙 장금봉 장기숙 장분자 장석모 장선옥 장세영 장인옥 장흥수 전금미 전남순 전병순 전선옥 전순옥 전순일 전승희 전영선 전윤례 전점순 전정례 전찬애 전향순 전화순 전희숙 정 미 정경례 정계수 정근환 정금수 정기준 정동순 정명자 정상구 정상예 정선예 정숙자 정순자 정순자 정순자 정연숙 정영덕 정영순 정영애 정유순 정유진 정윤화 정이애 정재수 정재순 정정숙 정정희 정천순 정팔만 정해남 정향란 정혜옥 조경순 조길자 조남숙 조병학 조삼순 조선희 조성두 조성재 조성출 조성희 조순례 조순자 조순화 조영훈 조옥자 조옥화 조은란 조은혜 조정임 조화자 조훈제 주봉근 주현희 주흥난 주희복 지기덕 지녕희 지정원 차기석 차미라 차영조 차용순 채순희 채영숙 채채봉 채춘순 천봉희 천성순 천하연 최경애 최경자 최경자 최귀분 최남임 최두란 최명희 최미라 최복순 최분옥 최선규 최숙자 최순자 최영자 최옥순 최용곤 최윤재 최은식 최응락 최인순 최재모 최정 최정훈 최지현 최춘주 최향순 최현아 최희영 최희자 평등심 하대진 한경희 한덕이 한명란 한복남 한봉수 한삼수 한수혜 한순애 한순옥 한연방 한영자 한익만 한정덕 한정자 한정희 한해숙 한혜란 함태숙 허 진 허문희 허순진 허은희 허준지 현수자 현순자 현원경 현정임 현형자 홍경분 홍계순 홍명라 홍복순 홍부례 홍석원 홍성렬 홍소근 홍숙자 홍영숙 홍운선 홍정표 홍팔순 황경서 황동주 황명선 황분이 황실장 황영자 황영희 황일순 황정숙 황정순 황정은 황정화 황차순 황판옥 황화자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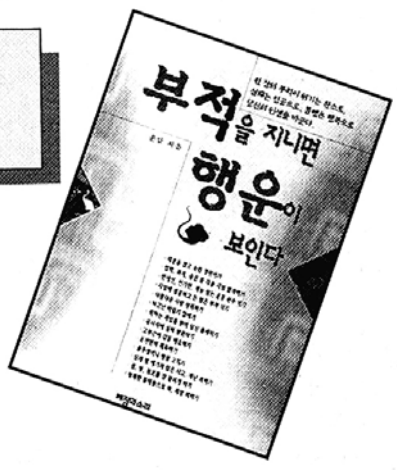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cm×55cm』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부적을 지니면 행운이 보인다
운담 지음/ 값 9,500원

아직도 부적을 돈으로 사십니까 ?
"원하는 부적을 오려서 지니세요."

찬장의 부적이
위기는 찬스로,
실패는 성공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 값 12,000원



生命工學과 符籍 Mantra and Yantra
생명공학과 부적
박지명 엮음/ 값 18,000원

도서출판 깨침의 소리 전화: 02)444-3575 총판 운주사 02)720-9372

물·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물.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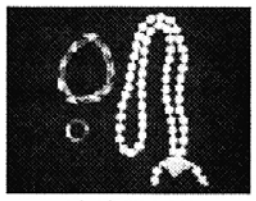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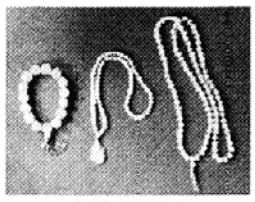
찻 상2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천연옥 마사지 겔

가 격 : ₩ 49,000

수암옥 장미, 옥팔찌, 반지 세트

가 격 : ₩ 49,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츰부다라니 불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색상 :금색, 검정

재봉틀 박사

가격 : ₩ 43,0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거산 죽염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홍삼

제조원 개성인삼 협동조합
중 량 80ml/50포입
가격 ₩ 98,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법성게 걸망

크기 500×460 (㎜) / 색상 회색, 밥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한국불교 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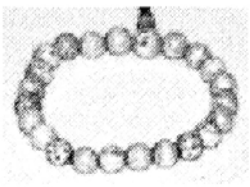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한국불교 총람 CD

가격 ₩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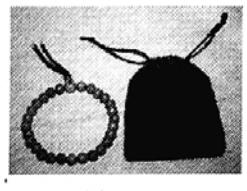
전단향 합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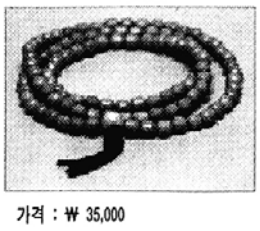
가격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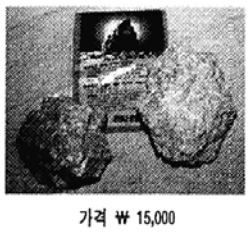
월성 합장주

가격 ₩ 3,000

주목 합장주

가격 ₩ 2,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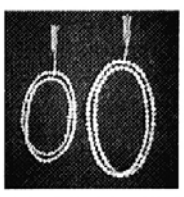
새광석 단주

가격 ₩ 10,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원석(냉장고용)

가격 ₩ 15,000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비람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종 류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가격
₩ 120,000

五福臨門 猛虎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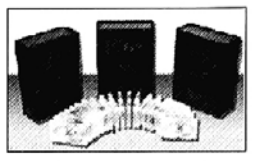
용 도 액자용
크 기 92㎝ × 61㎝
가 격 : ₩ 6,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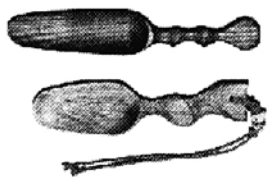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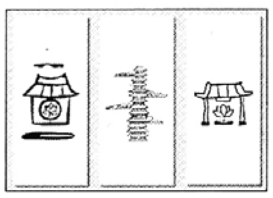
묘법연화경(전7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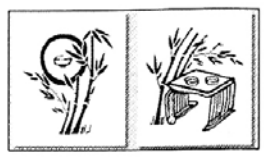
가격 : ₩ 140,000 (복장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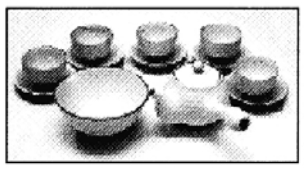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가 격
₩ 20,000
순금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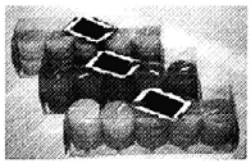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9㎝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크기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연꽃 향초

가격 : ₩ 2,500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가격 : ₩ 25,000
크기 : 4(높이)×7(지름)cm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기로) 140㎝(세로)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연꽃 앞치마

가격 ₩ 5,000

한샘 불교 카드

가격 ₩ 550

한샘 불교 카드

가격 ₩ 550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묘법연화경(소책자)

가격 ₩ 4,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700,000

유리 염주

가격 ₩ 16,000

태양주 단주

가격 ₩ 6,000

보리수 단주

가격 ₩ 9,000

전단향 염주

가격 ₩ 12,000

날 개

가격 ₩ 9,500 (CD)

시나브로1집

가격 ₩ 9,500 (CD)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생광석 비누

가격 ₩ 15,000(3개 한세트)

생광석 뷰티 파워

가격
₩ 25,000

생광석 파우다

가격 ₩ 38,000

생광석 허리 밸트

가격 ₩ 75,000

신행단신

진주청교련 찬불가 경연

청소년교화연합회 진주지부(지부장 김기원)는 7일 진주산업대학교에서 '제1회 청소년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독창·중창·합창부문으로 진행된 경연대회에서 '사바교주찬'을 노래한 장은영양(의곡사)이 독창부문 1위를 차지했다. 또 '큰 스승님'을 노래한 이필용군(월경사)의 7명과 '부처님 오셨네'를 노래한 불교회관 사라수합창단이 각각 중창과 합창부문 1위를 차지했다.

백담사에 새내기 배움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생회는 18일~21일 강원도 백담사에서 99년 불교대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연다. 배움터에는 발우공양, 선실수, 선재구법가 놀이 등이 진행된다.
(02)2260-3617

석왕사 설맞이 가족의 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6일 오후 6시 3백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가족의 밤 '육화(六和)의 꽃을 피웁시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5년이상 근속 우수 종무원 시상과 어린이집 원아들의 풍물연주, 학생회의 수화노래공연, 합창단의 신나는 대중가요 합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영담스님을 비롯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학생회, 청년회, 신도회 등 3백여명의 불자가 참석했다.

신행 캘린더

2월21일 (일)

■니르바나 실내악단 창단연주회=오후 3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니르바나 실내악단 창단연주회가 열린다. (02)415-2599

2월22일 (월)

■금강메아리 직지사 순례=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경북 직지사로 2월 순례법회를 떠난다. 오전 7시 서울 동대문 이스턴호텔앞에서 출발한다.
(02)772-9517

2월23일 (화)

■쌍계사 3사성지순례=쌍계사는 대구 팔공산 갓바위, 동화사, 파계사 등으로 3사성지순례를 떠난다.
(0595)883-1901

■다보사 〈천수경〉 특강=다보사는 26일까지 4일간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천수경〉 특강을 연다.
(02)475-6632

2월24일 (수)

■종범스님 초청 다보법회=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종범스님 초청 다보법회가 열린다. 불자가 수회도 참여한다. (02)703-0108

2월25일 (목)

■보조사상연구원 선전(禪典)연구 발표회=보조사상연구원 제2차 선전(禪典)연구 발표회 '대혜서장의 연구'가 25일, 26일 오후 7시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에서 열린다. (02)733-5322

2월26일 (금)

■만해상 시상식=제3회 만해상 시상식이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만해평화상은 이화여대 윤정옥교수, 학술상은 서울대 조동일교수, 시문학상은 정완영시조시인, 포교상은 우리는선우가 수상한다. (02)883-1805

■태고사·각원사 참배법회=용진신행회는 오전 6시 30분 진산 태고사 및 각원사로 참배법회를 떠난다. (02)279-1191

2월27일 (토)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연주회=혜초스님의 구법생애를 음악으로 펼치는 창작국악교성곡 혜초연주회가 오후 7시 서울 국립극장대극장에서 열린다.
(02)913-0753

■정계불자 합동법회=청와대불자회, 국민회의 연등회, 자민련불자회는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신년하례 합동법회를 연다. 이날 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법문한다. (02)788-2013 이상곤 국장

■미황사·대흥사 일대 답사기행=옛돌은 해남 미황사, 대흥사, 보길도, 진도문화유적지 등지로 2박3일 답사기행을 떠난다. (02)2266-1233

■길상사 주말수련회=28일까지 1박2일간 일반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길상사 주말수련회가 열린다. (02)3672-5945

■통도사·경주남산 순례=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28일까지 무박 2일로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와, 경주 남산일대를 순례한다. (02)725-1284

■한국전력반야회 수련회=한국전력반야회는 28일까지 충주 몽불암에서 수련대회를 연다. (02)3456-5780

2월28일 (일)

■맑고향기롭게 북한산 산행법회=맑고향기롭게 산행모임이 북한산으로 정기산행법회를 떠난다. 오전 9시 30분 서울 구기동 파출소 앞에서 출발한다.
(02)741-4696

■석불문화연구회 강원지역 석불답사=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강원지역의 석불을 찾아 답사를 떠난다. 오전 8시30분 서울 동대문 이화여대병원 앞에서 출발한다. (02)760-5138

3월1일 (월)

■범종교인 3·1정신 현창운동=종교지도자협의회는 오전 10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3·1절 기념식 및 현창대행진을 전개한다. (02)732-4885

종단소식

조계종

송광사 율·강원 학인모집

제 21교구본사 순천 송광사(주지 현지)는 율원·강원 학인을 각각 모집한다. 2년 과정의 율원 모집기간은 31일 오후 2시까지이며, 강원은 3월2일부터 치문·사집·사교반 방부를 받는다.

관음사 관음클럽 법회

제 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는 24일 관음사포교당 보현사에서 제주불교 관음클럽 월례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

대전교구 지방종회

대전교구 지방종회(의장 지철)는 6일 금강정사에서 정기종회를 열고 7천여만원의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또 종회는 올해 안에 종도들의 결집과 종단관 확립을 위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륙재·위령재·성지순례를 연2회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반야정사 양로원 위문

충북 반야정사(주지 일송)는 3일 청주 혜명양로원을 방문해 위로법회를 열고, 염주와 떡, 다과 등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종무원장 성수스님, 반야정사 주지 일송스님을 비롯해 신도 30여명이 함께했다.

한불청 참사랑행진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창립 88주년을 맞아 20일~21일 정동진, 등명낙가사를 순례하는 '새해맞이 참나참사랑 실천대행진'을 벌인다. (02)747-5787

천태종

관문사 제수용품 바자



관문사(주지 운덕)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지하 1층과 1, 2층 로비에서 '사회복지 기금마련 설날 제수용품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에서는 건어물류, 육류, 농수산물, 전어물류, 선물용품을 비롯해 제수용목기, 김치류, 젓갈, 밑반찬 등 다양한 품목이 선보였다. 또 지하 1층에서는 먹거리장터가 열렸다.

금강불교대학 졸업식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은 6일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제 15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식에는 도용종정, 운덕 총무원장을 비롯해 1백30여명의 졸업생과 이재창 학장, 조남호 서초구청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진각종

예비교화자 수습교육

교육원(원장 일정)은 예비교화자를 대상으로 8일부터 9일간에 걸친 교화수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일까지 주5회 열리는 이번 교화수습교육에는 26명의 예비교화자가 참가하며 교리실천, 교화개발, 계율실행, 실행지침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원융종

중앙비구니회 창립

제1회 법계고시 합격자와 중진급 비구니 스님 27명이 중심이 된 중앙비구니회가 창립됐다. 중앙비구니회는 1월28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원융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천통사주지 대월스님(총무원 재무부장)이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국제보살계등 추진

전국주지총회가 9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3월26일 창종법회 겸 총무원장 취임법회 봉행), 5월말 하안거교육 실시, 6월25일 전몰군경 수륙대재 봉행, 11월 국제보살계 봉행안 등을 확정했다.

법사종

제2 석굴암 순례법회

금강원(원장 성순경·총무원장)은 21일 대구 제2석굴암 순례 및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성지순례 및 방생법회는 가정의 평화와 경제안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02)395-2571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알림

△생활도자기 목공예품 판=천마재활원 원생이 만든 활도자기와 한마음 장애인임에서 만든 목공예품이 견동 한마음 개량한복점에서 매된다. (02)739-1402

△놀이치료시설 확장개장=전종합사회복지관은 놀이치실을 확장하고, 심리검사와 인상담, 부모상담 등의 전문담사업을 전개한다.
(02)421-6077

♣ 강좌

△다보불교학림=다보사 다불교학림 제3기 강좌가 3월일 개강된다. 주야간 반으로 눠 매주 월·화요일에 진행다. (02)475-6632

△여성문화교실=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양재, 홈패션, 종이접기, 지공예 등 13개 분야 여성문화교실을 개강한다.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0551)231-8017

△워드프로세서, 노래교실, 컴퓨터교실=개금사회복지관은 게이트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 노래·컴퓨터교실을 3월부터 개강한다. (051)893-5034

△칼라믹스, 동화구연, 어린이서당=공창사회복지관은 칼라믹스, 헤어미용사, 관족교실, 동화구연, 어린이서당 등을 개강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051)363-2068

△무료 한문서당=삼광사는 2년과정의 한문서당을 3월부터 연다. 수강료는 무료다.
(051)808-7111

△주민 참선교실=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3월 3일부터 지역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명상교실을 연다. 참선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대인관계 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02)989-4215

△수화강좌=조계사 장애인포교 모임 원심회는 22일부터 3개월과정으로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수화강좌를 실시한다. (02)720-4528

△단전호흡=자양사회복지관은 매주 월, 수, 목요일 오후 1시30분~2시30분까지 단전호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458-1664

△간병봉사자교육=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3일~4월2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 간병봉사자교육을 실시한다. 수강료는 5만원. (02)723-5101

△불교교리 및 찬불가 교실=한국불교여성연합회 경남지부는 매주 수, 금요일 불교강좌와 찬불가교실을 운영한다. 3개월과정으로 시명스님이 지도한다. (0551)2E3-0108

♣ 모집

△이·미용 봉사자=두송사회복지관은 월 2회 이미용봉사에 나설 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미용자격증 소유자여야 한다. (051)265-9471

△즐거운 우리 목욕실 이용자=강북장애인복지관은 '지역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즐거운 우리목욕실' 이용자를 모집한다. 남자는 월, 목요일에 여자는 화, 금요일에 실시한다.
(02)989-4215

△노인대학 자원봉사자=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대학에서 한국무용과 민요를 가르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주 1회 봉사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02)2282-1100

△법사교육 수강생=한국불교법사대학은 99년도 법사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02)720-1836

△청소년자원봉사단원=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월 1회 토요일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청소년자원봉사단원을 모집한다. (042)633-1141

△도서기증자=인덕노인복지회관 인덕문고에서는 도서기증자를 모집한다. 모든 종류의 도서를 수시로 접수받는다.
(02)385-8205

♣ 부음

△주간불교신문 김용대 발행인(화쟁교원 이사장)의 부인 김영수씨가 8일 동아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10일 경남 양산 석계공원 묘지에 안장됐다.



△호서대 전치수교수가 11일 오전 7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동경대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 교수는 그동안 동국대와 승가대 등에서 교수활동을 해왔다. 고인은 13일 화장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능인선원에 위패를 봉안했다.



△대한예술인불자연합회 이성웅 회장이 10일 인천 길병원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고인은 12일 경기도 화성에 안장됐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안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방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신나는 '눈썰매' 야외법회 제주 법화사어린이법회(지도법사 한북스님)는 7일 제주시 어리목 눈썰매장으로 야외법회를 떠났다. 유치부와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어린이 3백52명이 참가한 이날 눈썰매타기 야외법회에서 어린이불자들은 즐거운 동심속에 한껏 불심을 키웠다. 또 이날 야외법회에는 남주고등학교 불교학생회 회원과 어린이법회 교사등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제주 스님들 노후걱정 마세요"

태고종 제주종무원 승려복지 올 사업 착수

상조회 만들어 장례·의료비등 후원
위안법회 열고 원로의견 종무 반영

교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스님들의 복지가 제주도에서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원장 수암·금붕사주지)은 승려노후복지 정착을 위해 상조회, 사후장례, 후원기금 조성, 원로스님 위안법회 등을 99년 중점사업을 설정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승려노후복지대책 1차 사업은 상조회 결성이다. 종무원 산하 각 사찰들이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내는 상조회는 노후복지 정착을 위한 인적·물적·재정적 기반다지기에 쓰일 계획. 이 상조회비는 무의탁스님과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도내 노스님들의 의료비 및 장례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70세이상 스님이 20여명이 있으나 대부분 노후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태고종 제주종무원은 지난해부터 연 2회 원로스님 위안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원로스님 위안법회는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됐지만 원로스님들의 고견이 종무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종무원측의 얘기다.

수암스님은 "상좌가 없는 스님들이 열반하면 속인처럼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무엇보다 노스님들의 사후 장례식을 여법하게 치뤄드리는 것이 상조회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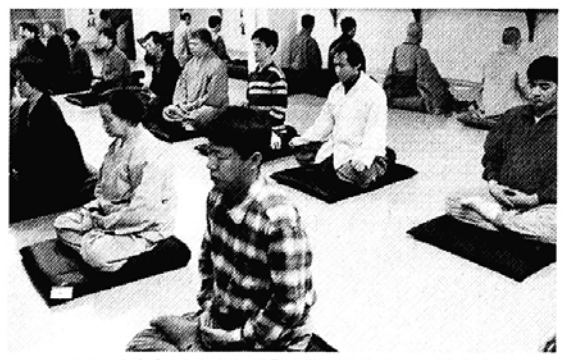
제주종무원은 승려노후복지 활동뿐만 아니라 대사회복지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태고종 제주종무원은 지난 1월 종회에서 종합복지타운 설립안을 확정하고 기본설계 및 운영계획을 준비중이다. 종합복지타운에는 대법당을 비롯 강당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치원 신행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고종 제주종무원은 종합복지타운 설립을 위해 그동안 1억5천여만원을 기금을 조성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도 태고종 제주종무원은 결식아동돕기 운동 일환으로 '생미공양운동'을 연중행사로 펼치며 소년소녀가장돕기, 양로원 위문 등을 비롯 각종 봉사 및 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승려노후복지 제도 정착및 각종 봉사 구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순수봉사단체인 (가칭)보현회를 4월께 결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의 상조회, 사후장례 등은 그동안 침체돼 있던 승려노후복지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75년 역사의 시민선방 맥을 잇는 선정회의 철야정진. 인근 직장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선학원 시민선방 매월 철야정진

75년간 이어지는 '참선열기'

설을 며칠 앞둔 13일 오후 2시, 정적이 흐르던 선방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며 잠시 술렁인다. 이어 벽을 향한 좌선이 시작된다. 시간이 흐르자 어느덧 서울 안국동 선학원 시민선방에는 30여명의 재가수좌들로 가득 찬다.

선학원 중앙선원장 성해스님의 법문으로 정진이 시작된다. "이 공부는 말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되, '한강 모래알 수만큼의 세월'을 두고 공부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1924년 개설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시민선방의 맥을 잇는 수행단체는 선정회(회장 배광식·서울대치대 교수). 97년 9월 성해스님의 선학강좌에 동참한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수행 모임으로 전환하며 선정회를 만들었다. 선사들의 발자취 어린 곳의 명맥을 잇고 많은 사람들을 참선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였다. 매주 토요일에는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셋째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예불 때까지는 철야로 정진한다.

1년여를 지나며 10명이던 회원이 30여명으로 늘어났다. 회원들은 물론 인근 직장인들도 한자리를 차지한다.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정진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조흥숙(32·씨앤씨 스튜디오)씨는 "바쁜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곧 나와의 만남인데 어찌 설레지 않겠느냐"고 공부의 즐거움을 말한다.

성해스님은 선정회의 든든한 후원자. 철야정진 때마다 함께 정진함은 물론 개인면담을 통해 수행을 지도한다. 봄, 가을 산철기간을 이용해 선학강좌를 열고 직접 강의한다. 이번 봄에도 3월 6일부터 〈선가귀감〉〈육조단경〉을 교재로 강좌를 연다. (02)732-3327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pia.com)

무등산 온천지구 해제요구

증심사 신도·주민 "지하수 고갈" 주장

광주 무등산 증심사 주지인 영조스님 등 주민 50여명은 5일 운림온천지구 지정 고시처분 해제 및 취소를 바라는 청원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온천지구 지정 이후 9년동안 주변에 아파트·예식장·음식점 등이 대규모로 들어서 개발여건이 바뀌었고 지하수 고갈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무등산 일원의 환경훼손을 불러올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서는 이밖에도 △광주시민의 쾌적한 환경추구에 대한 기본권 제약 △열·오폐수에 의한 하천오염 △지하수 침수에 따른 지반침하 △적송, 삼나무, 측백나무 등 식물 생태계 파괴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해인사 우회로 재설계

빠르면 내달초 착수

경남도가 추진중인 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 가야~봉산간 2차로 측조공사가 노선 전면 재검토로 결론이 났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 환경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생태파괴가 예상됨에 따라 노선의 전면재검토를 요청하는 최종회신을 지난해 12월 11일 경남도에 보내옴에 따른 것이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지난해 10월 22일 보낸 1차 회신에 대한 경남도의 이의신청을 묵살하고 최종회신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59호선 도로는 전면백지화 내지 노선 재설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관련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한 담당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되는 구간을 비껴가는 식으로 노선을 재설계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3월초에 재설계를 발주하여 10월안에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설계에 따른 재정부담이나 민원을 고려해 새로운 노선이 미봉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단체 및 불교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59호선 도로는 80m이상 대절토 구간이 두곳이나 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예상돼 왔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건봉사 2004년 완전 복원

올 대웅전터 등 정비…2만여평 전적공원도 조성

고성군 1백55억 투입

건봉사가 2004년 복원돼 불자들곁에 그 위용을 드러낸다.

고성군은 2일 건봉사 복원과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에 총 1백55억원을 투입해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문화재 정비 및 복원사업으로는 11억원을 들여 종각을 복원하고 연지 대웅전지 낙서암지 등을 정비한다.

건봉사 복원사업은 90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28억원을 들여 대웅전 팔상전 복원과 극락전지 등 29건의 유구 정비를 마쳤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물 복원에 나서 2004년까지 대웅전지 등 건물 29건을 복구하고 2만평의 전적공원을 만들어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호국불교 도량 건봉사에서 국가와 역사, 종교와 전쟁을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 순례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7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승병을 모집 봉기한 사명대사 기적비 정비 복원과 향로봉전투 등 전적비 2기 및 6·25 이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현재까지 안치된 1천52기의 전사자 위패 봉안관을 건립한다.

건봉사는 자체사업으로 일제 때 민족사상 계몽의 구심체였던 봉명학교 복원과 당시 사미승으로 불경과 학교교육을 받은 '서귀포 칠십리' 작사가 조명암 선생의 시비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교교양大서 학회 창립

한국불교교육대 1백명 동참…세미나등 개최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학인들이 체계적인 불교학연구와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불교학회를 창립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불교교육대학(대학원장 김지견)은 6일 대전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지도자대회에서 불교교육학회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불교교육학회는 연 1회 학술세미나, 발표회,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갖을 계획이며 회원들은 1년에 1편이상 불교학관련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불교교육학회는 한국불교교육대학 졸업생 1백여명이 회원으로 결성됐으며 초대회장에는 김공철 박사가 선임됐다. 특히 불교교육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천안 천불사 주지 인경스님이 연 3백만원씩 10년간 연구비를 지원키로 해 활발한 연구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02)821-0541

김중근 기자

"모전석탑 문화재 지정"

제천시 향토사학자 촉구

제천 모전석탑 훼손방지와 연구를 위해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풍면 교리 금수산 중턱에 위치한 모전석탑은 남서쪽으로 10도 정도 틀어져 있는데 화강 편마암 재료로 전돌을 쌓은 것이 특색이다. 7층 석탑이었던 교리 모전석탑은 도굴된 채 현재는 가로 4백5cm, 세로 4백5cm, 높이 2백14cm의 정방형 기단에 1층 탑신이 남아 있을 뿐이다. 석탑에서 북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 주초석 및 건물기단 석축이 남아있다.

제천시는 모전석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도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강지연 기자

"부부·인생문제 상담 절반"

제주 자비의 전화 통계
IMF로 가정해체 영향

지난 한 해 동안 제주 자비의전화(원장 지오)를 통해 상담한 사람들은 절반이상이 부부문제와 인생문제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 춘광 부설 제주 자비의전화의 〈98년 상담통계자료집〉에 따르면 부부문제(25.2%)와 인생문제(23.8%)가 전체 상담유형의 절반이상을 차지해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은 이밖에 정보문제(9.6%), 이성문제(9.5%), 가정문제(9.3%), 사회문제(8.0%), 정신건강문제(6.9%), 청소년문제(3.2%), 신체건강문제(3.0%), 종교문제(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문제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20.3%)에 이어 '배우자의 가출'(14.9%) 및 이혼(14.2%) 등이 주요원인으로 등장해 IMF구제금융사태가 가정해체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반영했다.

또 인생문제에 있어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36.3%), '삶의 의미 회의'(18.7%), '가치관의 혼돈'(9.9%)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아 경제난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채무 등 경제(20.7%), 직업(20.7%)문제가 나란히 수위를 차지한 사회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김재경 기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영천에 '노동선방' 연다

종명-범진스님 땅 2천여평 마련
"황무지 개간하며 백장청규 실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백장스님의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려 땀흘리는 노동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려는 두 스님이 오는 3월 말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에 노동선방을 연다.

일하는 스님들의 공동체 '일과 깨달음 도량'의 종명스님(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과 범진스님(일본 대정대 석사)이 바로 그들이다.

"무조건 좌선만을 고집하고, 박제화된 수행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노동을 수행삼아 그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우선은 범진스님과 둘이서 봄농사부터 지을 생각입니다." 종명스님은 노동선방을 열게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 노동선방으로 사용할 빈집 3곳과 농사를 지을 2천여평의 땅을 물색해 마을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 놓았다. 그 빈집에 황토흙으로 노동선방을 지어 수행하고 토론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황무지가 된 땅은 곧 개간할 계획이다.

스님은 올 첫 농사로 콩을 심는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콩의 80%는 유전자 조작 수입콩입니다. 단순한 먹거리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수입콩을 대신해 경북대에서 제공받은 조선콩 씨앗을 심어 유기농법으로 재배할 생각입니다."

스님은 수확한 콩으로 황토 노동선방에서 전통 무공해 메주도 만들어 불교귀농학교의 도농공동체를 통해 판매도 할 생각이며, 도라지와 더덕도 재배할 계획이다. 또 사찰과 불교학생회 등의 교류를 통해 생태농활을 유치하고, 도심포교 때문에 관심밖으로 밀려난 농촌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선방 운영은 문명의 전환점에서 자연도 살리고, 인간도 살리는 새로운 불교문화운동으로 이 시대에 불교가 해야할 중요한 중생교화사업의 하나라고 믿는다"는 스님은 "올해는 두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과 땀으로 만나며 깨달음을 향한 또다른 시도를 전개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새 신자 전법회는 최소 3개월동안 초심불자들을 온전한 신도이자 불자로 키워내는 일을 맡는다.

"내가 접수한 새 신자 내가 책임진다"
봉은사 '초심자 전법회' 창립

"내가 접수한 새 신자는 내가 책임진다."

2일 봉은사 대웅전에서 창립된 '봉은사 새 신자 전법회'(회장 고심우행) 회원들의 다짐이다.

처음 봉은사를 찾은 이들이 온전한 불자이자 당당한 봉은사 신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새 신자 전법회가 하는 일이다.

주지 원혜스님은 "1년에 1천5백여명의 새 신자가 봉은사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동안 새 신자를 위한 전법활동은 포교실에서 상담원이 축원카드를 작성하고, 축원카드 활용법과 법회 등의 내용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수행과 전법을 위한 한국불교의 모범 포교도량으로서 면모를 다지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신행단체 임원을 중심으로 준비작업을 거쳐 새 신자 전법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법회는 회장단을 비롯 20여명의 회원들이 요일별 전담책임제로 2인씩 조를 짜 매일 포교실에서 근무하면서, 봉은사 법회와 교육, 신행활동을 안내하는 등의 전담관리 활동을 펼친다.

이은자 기자

6월 법사대회 열기로

법사연합회 올 사업계획 9일 발표

한국불교법사연합회(공동회장 선진규 한정섭 정병조)는 9일 서울 안국동 동산교육회관에서 신년하례 및 업무보고회를 갖고 오는 6월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법사대회를 열기로 했다.

'21세기 불교중흥과 법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전국법사대회는 재가법사 3백여명과 신도 1만여명이 참석, 법사품수식과 보살계 수계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는 6월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법사품수식과 관련, 조계종 등 주요종단에서 재가자의 '법사' 호칭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사연합회는 또 내년에 국제법사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올 9월 이전에 준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법사연합회는 조직강화를 위해 지역별 부회장을 임명하고, 교양대학 분과와 포교원 분과로 나눠 분과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여성분과특위와 국제분과특위, 군·교도소포교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밖에도 사단법인화 추진, 법사복 통일 등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임명된 부회장과 특위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임선교(경기) 김덕수(대전) 이하우(부산) 이양길(대구·경북) 이득우(전북) 김진택(광주) 이지행(서울) 노혜광(인천), 특위위원장-여성특위 송춘희, 국제특위 최일산 이치란, 군·교도소는 미정.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나진-선봉어린이 90% 건강회복
JTS등 구호효과

북한 나진·선봉지구 어린이중 90% 이상이 한국과 미국 종교사회단체와 결연을 맺어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기구인 정토회 산하 한국JTS(이사장 법륜)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나진·선봉지구 1백6개 탁아소와 유치원생 1만1천여명중 1만여명이 영양쌀가루 지원을 받아 체중이 15% 이상 증가했다.

한국JTS는 지금까지 2억6천여만원어치의 설탕과 분유, 쌀, 옥수수를 지원했으며, 매달 설탕 10t과 분유 5t 등의 구호품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불교TV 살리기' 후원회 결성

불교TV(사장 신허스님)는 11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2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불교TV 살리기를 위한 후원회'를 결성키로 했다.

이영숙이사(방송인)가 후원회장으로 선임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주주총회를 3월 17일 목동 청소년회관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99년 예산 58억3천7백만원을 승인했다.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불교TV 경영 현안을 안건으로 상정, 주주들에게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범종교 남북교류협 공동대표모임 정례화

범종교단체 남북교류협력협의회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표회의를 갖고 이재정신부(성공회대 총장)를 공동대표 의장으로 선출했다.

또 성조스님(조계종 사회부장) 지성스님(태고종 총무부장) 회정정사(진각종 총무부장)를 불교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불교계 운영위원으로는 자월스님 하림스님 지현정사 전형근 유지원 정안숙씨가 추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동대표모임을 정례화하고 종교인 방북결과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종교계 대북교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정기포럼도 분기별로 열기로 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고침 본지 210호 23면 '훼불 세계적 관심사로' 기사중 종교학회는 불교-기독교학회, 위로금 전달처는 원명선원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국립공원 경찰 3배로 늘린다

사찰방화-불법야영-무허건축 등 단속강화

국립공원내 불법 야영과 무허가 건축행위 등을 단속하는 공원경찰(파크 레인저)이 3배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전통 사찰에 대한 방화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경찰을 현재 1백17명에서 3백41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최근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별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공원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추가 지명을 신청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공원의 신청대로 검찰이 사법경찰관리를 모두 추가 지명할 경우 20개 국립공원별 평균 공원경찰 수는 6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 공원경찰은 공원내 토지형질변경 등 무허가 건축행위와 무단 출입, 불법 야영, 쓰레기 불법투기, 밀렵과 식물 무단 채취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공원관리소별로 1차 적격성 검증을 거치고 공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검찰에 공원경찰 추가 지명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개혁 설문조사
불교언론인회 올사업 확정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방송진흥원 관리처장)는 11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98년도 결산 총1천74만원을 승인하고 99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회장단을 비롯 상임지도위원 감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조계종 총무원장 초청 간담회 △창립1주년 기념법회 △불교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참선 수련회 등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선방수좌 40명 해제보시금
디지털대장경 후원금 쾌척
용화선원 2억2천만원 후원 약정

7일 인천 용화선원에서 봉행된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 주최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후원법회에서 안거 중이던 선승 40여명이 '해제보시금' 1천여만원을 보시했다(사진).

'해제보시금'은 안거를 마친 선승들이 3~4개월간의 만행중에 사용하는 여비. 수행에만 전념하는 선승들의 유일한 정재다. 수좌들의 후원금은 해제일인 3월 2일 고려대장경연구소에 전달된다.

용화선원장 송담스님은 "소금에 담구고 옻칠을 한 대장경 경판은 해인사에서만 볼 수 있는 유산일 뿐"이라며 "디지털 대장경은 해인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고려대장경을 볼 수 있는 21세기 대장경인 만큼 가치있는 보시"라고 말했다. 송담스님도 1천만원을 기탁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이번 후원법회에서 디지털 대장경 후원금으로 총 2억2천여만원을 모금했다. 지난 한해동안 모금한 후원금 4억2천6백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종림스님은 "디지털 대장경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법회였다"며 "수행하는 자세로 팔만대장경 전산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뉴스 & 뉴스

조계종 복지재단이사진 교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스님)은 10일 총무원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사회부장 성조스님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는등 7명의 이사진을 전원 교체했다. 또 지하스님을 감사에 유임시키고 호법부장 종고스님을 새 감사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서는 총 10억1천6백89만원의 예산으로 산하시설 보조금(3억6천4백여만원), 불우이웃 결연사업(9억1천4백여만원), 교육문화사업(8천만원), 직영시설보조금(8천만원), 시설수탁운영·지원사업(5천2백만원), 정보자료실운영(5천1백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3천4백만원), 출판홍보사업(1천9백만원), 조사연구사업(1천6백만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중신회 27일 운영위원회

조계종 중앙신도회(공동회장직무대행)는 새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논의키 위해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중앙신도회와 총무원은 10일 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대의원총회 준비실무단(단장 조종래 총무국장)을 구성했다. 정성운 기자

종정협, 경제회복 기원법회

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대산·삼론종 종정)는 12일 불교방송국 3층 법당에서 '국가경제회복 및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산 삼론종 종정, 영명 법상종 종정을 비롯한 각 종단 종정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5백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도필선 기자

불방 정상화 범대위 해체

97년 4월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해 결성됐던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지원스님)'가 9일 해체됐다. 이번 조치는 검찰 수사의 공식적인 종료와 고소·고발된 조해형 (前 불교방송사장), 송병욱(前 불교방송 상무), 김동신(前 불교방송 총무국장)씨 등 4명이 2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무협의 통보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김주일 기자

故 강덕경할머니 지문엽서

나눔의집(원장 혜진)은 故 강덕경 할머니의 지문 초상작품을 인쇄한 엽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 엽서를 가진 사람은 한 엽서에 가정, 직장, 단체 등으로부터 10~15명의 지문서명을 받아 나눔의집으로 반송하면 된다. 반송된 10만장의 엽서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과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군 위안부 관련 재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제출된다. (0347)768-0064

김재경 기자

탈 종 공 고

한국불교법화종 귀하

사찰명	주 지
안 국 사	노 청 공
청 룡 사	박 묘 화
삼 보 암	정 명 자
약 수 암	차 화 심
죽림정사	오 정 관
관 음 사	이 도 용
수덕정사	옥 도 현
삼 향 사	손 백 산
달마정사	김 도 우
보 타 원	추 석 정
반 야 원	구 경 심
용 구 사	김 난 순
성 불 암	권 혜 룡
수 덕 암	최 혜 봉
보 현 암	박 노 성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찰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999년도 주말 선 수련회

♣ 내용 :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室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8배, 삼귀의 · 오계 수계 등 불자예법.
♣ 장소 :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 인 원 : 선착순 50명
♣ 대상 : 일반인, 직장인
♣ 수련비 : 2만원

차수	기 간	대 상	회비
제4차	2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5차	3월 6일(토)~ 7일(일)	일반인,길상사거사림회	2만원
제6차	3월13일(토)~14일(일)	일반인,길상사합창단	2만원
제7차	3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8차	4월10일(토)~1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9차	4월24일(토)~25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입재 /일요일 오후 8시 30분 회향)

♣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 ①이름 ②생년월일, 성별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⑤직업 ⑥수련회 경험유무 ⑦수련회 동참 소견 (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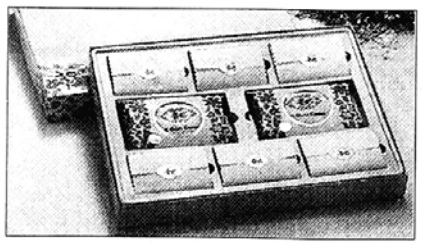
(수련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천지나 본인이 뵈할 경우 원하는 차수에 언제라도 다시 동참 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 동참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찬상 정리, 사무실 보조, 뒷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향비를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괘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신행수기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작은 실천 큰 기쁨 ①

김민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그림 · 문병성

또 다른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37년을 하루같이 다니던 교직생활을 명예퇴직하고, 길섶에 핀 들꽃을 보아도 처량함을 느끼는 50대의 늦깎이로 변모했다.

새벽잠에 뒤척일 식구들의 아침을 준비하며, 창 밖 푸른 새벽어둠 속에 을 한해 나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물결처럼 주르르 들어간다.

얼마나 어리석은 중생이었는지….

그해 겨울 나는 전남 고흥 송광암(松廣菴)으로, 강원 태백 정암사(淨岩寺)로 내 몸 안의 방랑벽을 등에 지고 부처님께 짊은 동안거 기도를 다녔다. 산사의 깊고 고요한 겨울밤은 뎅그렁 뎅그렁 흔들리던 풍경소리와 함께 걸어갔다. 무수한 별들만이 황홀히 내 머리 위에 젖어 내렸다.

정암사 적멸보궁에서 새벽예불 올리며 108참회를 하고 석가모니불을 간절히 불렀다.

〈금강경〉에 '먼저 깨치고 난 참복기심(개침) 뒤에 그 깨침이 재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을 응무소주 행어보시(應無所住 行於布施: 내는 마음도 없이 보시를 하라)'라 하시던 가르침을 받고자 했을까? 마음을 다 바쳐 비로자나(法身佛) 부처님께 의지하고 수마노탑 노사나 부처님께 진리를 구하며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경판사업과 소책새마을 봉사'에 대한 서원을 세우니 어서 가서 행하라는 부처님의 손짓인양 아침이 문틀을 넘어서 동이 텄다. 원(願)과 행(行)이 한결같아지길 화광주지스님께 증명(證明)하고 1백일 기도를 시작했다.

수행이란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내면을 향해 걸어가는 긴 여정(旅情)'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근기에 맞게 열심히 닦아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더 없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닐까.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주관하는 팔만대장경 팔만 후원인 모집에 동참해 화주가 되었다. 경판 50매 동참불자가 되기를 서원하여 1경판 1인, 가족경판 19인, 영가경판 5인, 1구좌경판 92인을 화주하며 참 분주하게 살았다.

처음 동참을 권유할 때는 젊은이들이 미신을 대하는 양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등 무안하고 자존심이 상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나…" 하며 속상해 했다.

그러나 곧 탐내고 성내고 잘난척 하던 내 마음이 '아상(我相)'이라는 그림자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았다. 자꾸 공부를 하다보니 이런 아상의 걸림돌들이 하나하나 부드럽게 풀어져 탐낼 일도 화낼 일도 없고 편안하고 즐거우며 마음이 평화롭고 환희심이 우러났다.

디지털 팔만대장경 권선하며 瞋心 닦아
수행은 자기내면 향해 걸어가는 긴 여정

나의 간청에 선뜻 가족 경판을 후원해 주던 사람들, 1구좌 1구좌 정성껏 후원해 주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행위인 선근(善根)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줄 모르고 "저 사람은 나에게 좋게 해준 사람이다" 하고 감사하기만 했다. 1백여명이 동참하는 동안 이제는 그 사람과 그의 좋은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 보는 각단도 생겼다.

늦바람난 여자처럼 왜 그리 열심이냐, 종교란 적당히 믿어야 한다던 남편도, 만류하던 아들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거절했을 때 미워했던 그 친구도, 섭섭했던 모든 이들이 이제는 부처님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조금만 마음을 돌려 생각해 보면 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아상을 녹이기가 힘들다. 많이 섭섭하고 많이 미워하고 또다시 포용하려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중생이 중생처럼 보이지 않고 허물이 없는 존재, 즉 부처님처럼 보인다는 것을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즉비중생(卽非衆生)이라 하지 않았던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매 한 매 권선할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 한구절 한구절을 체화시키는 것 같았다. 친언니마저도 "너는 할 일도 없니? 지금이 IMF 시대인지도 모르니?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무안을 주었을 때, 봉은사에 다니는 친구가 "봉은사에 가서 권선하면 더러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아! 진심을 닦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배우기도 한다. 수양을 많이 했다 하는 점잖은 사람들 중에도 조금만 마음을 건드리면 진심이 티지곤 하는데 이 어리석은 중생의 '진심닦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진심을 닦아가는 많은 상황 상황 속에서 진심을 닦으면 세상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조금씩 눈을 떠가게 되었다.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음지와 양지가 있다. 고등학교 동창회, 감송회(감동 교육청 초등학교 서무부장들의 모임), 나의 모교인 재경 보은중학교 동문회 이사회에서는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후원을 기쁘게 받아주어 이 세상은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각자가 서로 베풀고 서로 의지하며 보시(布施)를 배우고, 이해타산을 떠나서 기쁘게 주거나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보시가 아닐까?, 어떤 베품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도 좋은 보답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아닐까? 나는 진정 타인에게 기쁘게 베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속에 자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비굴한 마음, 과소평가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울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생활이 완성되게 하시고 수행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해주신 부처님께 머리숙여 공경드린다. 경전을 읽는 즐거움보다 조그마한 행(行) 한가지를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체험하고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가짐을 갖게되길 항상 노력한다.

98년 5월3일, 그날은 백일기도 회향일이고 부처님오신날이기도 하며 경판 50매 동참이 이루어진 날이니 어찌 기쁨이 더욱 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 세상 수많은 인연들이 여름의 뜨거운 햇빛에 영글어 가는 포도송이처럼 '나'가 누구인지 '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차츰차츰 새겨 나갔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가르침의 도량인가 싶다.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캠페인에 경판 50매로 동참한 것과 함께 시작한 소책새마을 봉사도 이젠 서먹한 마음이 사라졌다. 곱은 두 손을 합장하며 반겨주고 따스히 손을 맞잡아주는 소책새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누구에게든 도란도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소책새마을 사람들은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지체, 지체장애, 시각·청각장애,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등으로 정신연령은 다섯살 남짓한 어린아이들처럼 산다. 그저 몸이 권하고 먹는 것만 있으면 마냥 좋아하는 순박스런 사람들이 모여사는 마을이다. 이들에게 빈병이나 캔뚜껑을 모아 휠체어 보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날부터 빈병이나 캔뚜껑 모으기에 나섰다.

〈계속〉

伽山智冠 編著 伽山佛教大辭林 출간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伽山佛教大辭林 구입및예약회원 안내

가산불교대사림 편찬 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教大辭林 회원'으로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원동참은 가산불교대사림의 완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가격은
- 1·2권 각 115,000원(기간), 3~15권 각 150,000원(년간 연차별 예정)
- 가산불교대사림 전권 예정 가격 : 2,180,000원

■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 본원방문 구입시 10%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 전화 주문시 방송하여 드립니다.
- 그외 본원거래예약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전권(15권) 예약회원이 되시면
- 예약회원은 불교대사림 발간(총15권, 년간2권 발간예정) 즉시 어느곳에서나 받아보실 수 있으며, 앞으로 본 사전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차액은 본 연구원에서 부담합니다.
- 전권의 예약회원이 되시면 20% 할인하여 1,750,000원(무료로 포함)으로 각 권 출간후 바로 우송해 드립니다. 또한 3개월(월583,000원)에서 6개월(월291,600원), 1년(월145,800원), 2년(월72,900원), 3년(월48,600원), 4년(월36,500원), 5년(월30,000원)까지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 월1만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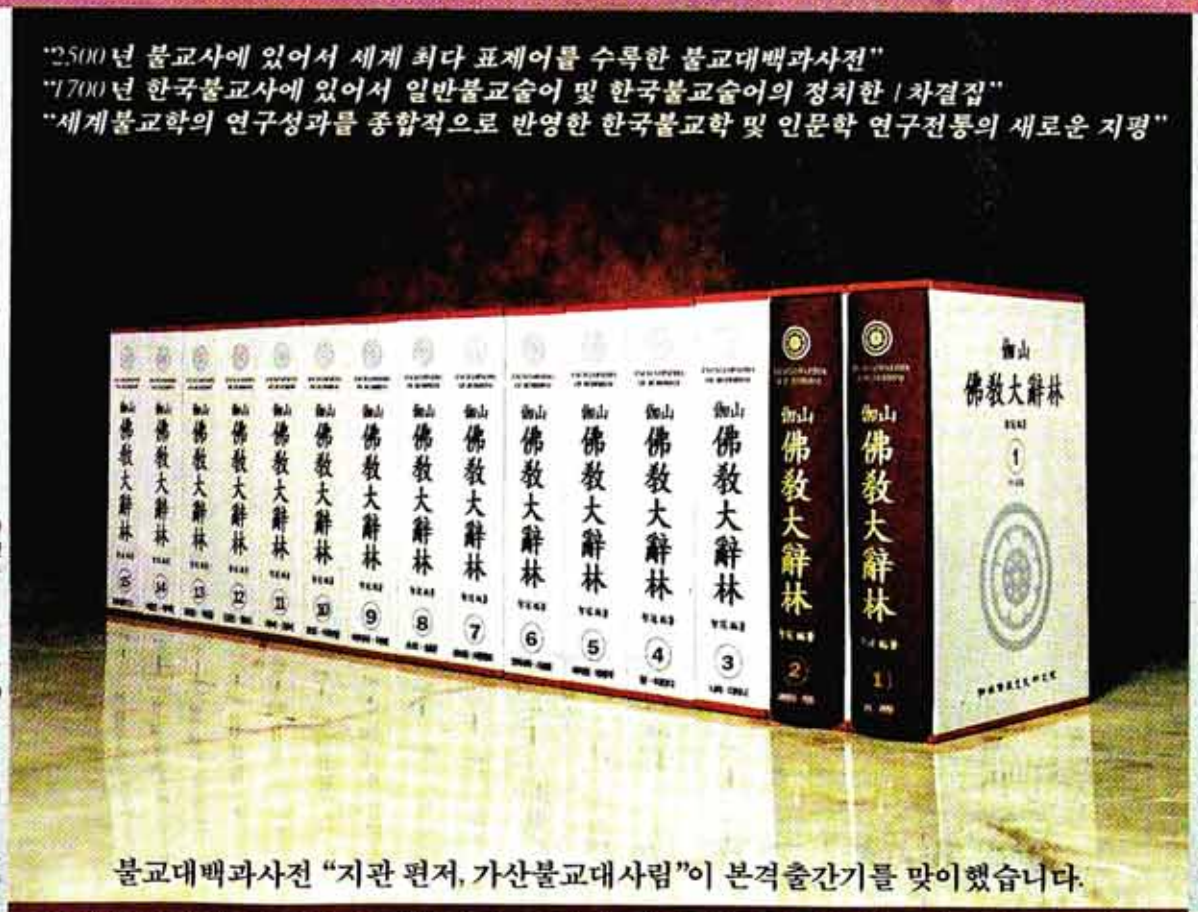
☐ 회원이 되시면
- 위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도서에 대하여 20% 할인 혜택을 드리며, 본 연구원에서 개설하는 각종 연구회 및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모니터가 되시어 본원의 발전을 위한 열린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회비는
- 본원으로 직접 방문 납입하거나, 지로(7606753) 또는 온라인구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기업은행 : 277-006129-04-020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
국민은행 : 031-01-0384-966 이지관(가산문고)
우 체 국 : 013201-0012357 가산문고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110-510 서울시 종로구 통승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T. (02) 765-9602~3 F. (02) 765-5673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 최다 표제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술어 및 한국불교술어의 정치한 1차결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 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불교대백과사전 "지관 편저, 가산불교대사림"이 본격출간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대작불사에 동참할 신심깊고 능력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 연구원 및 사원모집 : 모집부서 - 사전편찬실 상임연구원(○명), 기획연구실 사무국장(○명), 학술·편집간사(○명)

1) 편찬실 상임연구원(○명)
① 지원자격
불교학·불교철학 전공자로 박사과정 수료 이상
②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중·장기 연구계획서 1부
·연구목록 1부

2) 기획연구실 사무국장(○명)
① 지원자격
·4년제 대학졸업자(인문학전공자 우대)
·운전면허소지자, 병역필
·한글 및 응용소프트웨어 사용 가능자
·IBM환경 전산시스템 운영 능숙자
·기업체, 공공단체의 관리 및 사무직 경력우대
②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3) 기획연구실 학술·편집간사(○명)
① 지원자격
·인문학 전공자
(불교학, 종교학, 철학전공자 우대)
·한글 및 응용소프트웨어 사용 가능자
·IBM환경 전산시스템 운영 능숙자
·학술·기획·편집 경력자는 우대
②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대우 - 경력에 따라 조정 ■ 전형방법 - 서류, 면접 ■ 연락처 - TEL : 765-9602/3 FAX : 765-5673 천리안ID : DHATU

☐ 규모
·전체 총항목수 15만여 항목(표제어)으로 현재 간행된 국내외 사전 중 최다항목 계재
·권수 4×6배판 1200여쪽 전 15권
·출간 : 권1 ㄱ항(가~과원) 항목수 : 8234
권2 ㄱ항(과원덕~찍됨) 항목수 : 7697

☐ 작업기간
·1차 / 기초작업기간(1차 표제어 발굴 및 정리)1982년~1991년
·2차 / 편수 재작업 · 추가 항목 발굴 조정 · 기초원고작업 기간 1991년~1993년
·3차 / 본격 집필 및 출간기간 1994년~현재

☐ 참여인원
총괄집필 가산 지관스님을 보좌하여 원내외 30여명 작업
(연 인원30×365)

☐ 편수특징
·1700여 년만의 한국 불교 술어의 최초결집
·명이한 한글 현대문으로 서술하되 원문을 반드시 병기하여 대중화와전문화의 요구를 아울러 충족하였음
·불교 원어를 본격 병기한자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함으로써 韓漢 · 韓梵 · 韓巴 · 韓藏 등 다용도 복합어휘 내지는 전문사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임
·같은 불교 술어일지라도 최대한 한국불교 찬술 문헌에서 그 용례를 설정하였음
·시대순(초기불교-근본불교-부파불교-대승불교-밀교-선불교에 이르는) 사상사적 변천과 지역순(인도불교-남방불교-티벳트-동북아중국 · 일본 · 한국 등 전지역에 이르는) 지역적 변화에 따른 종합서술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백과사전적 · 전문적 이해를 도모함
·대장경류 및 기간된 원전류 1,000여종(高麗大藏經, 韓國佛敎全書, 新修大藏經, 續藏 등)을 집중 분석하여 용례화하였으며, 상세한 표기와 정확한 문헌표기로 술어이해를 위한 연구성과를 최대한 밝힘
·관련항목과 공항목을 통하여 관련 술어를 체계적으로 연결 · 이해하도록 하여 불교술어의 연쇄적 관심을 통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였음
·특히 한 항목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서술하기보다 용례와 참고문헌을 다양하게 밝힘으로써, 현시점에서 보는 세계적인 사전편수 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확보했음 즉 독자에게 해석공간 및 지평을 확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실어주는것을 편수특징으로 삼았음.
·기존에 출간된 모든 불교 사전(일본 스리랑카 독일 영국 등 전지역의 사전)을 비평적으로 참고하되, 기존의 연구성과를 교정 추가 반영하였음
·종교 · 역사 · 철학 · 문헌학 · 문학 · 의학 등 한국학 및 관련 연구자들의 필독서가 되도록 전 항목에 걸쳐 종합적이고도 다각적 시점을 최대한 확보 서술하였음

☐ 예산
·1982년~현재 40억원 소요

☐ 향후 편찬 및 간행계획
·연차로 간행하되 현재 연간 2~3권 간행 예정
(재정 여건에 따라 완급이 조정됨)